시흥문화

제2호

특집 / 『시흥시 신현동지』 발간과 그 의의

인터뷰/주혁 상임위원

기획1 / 시흥시의 지석묘

시흥리포트 / 시흥시 관광가이드 · 월곶동 편

맥을 잇는 사람 / 「1999 경기으뜸이」 이종덕

시흥문화원

시흥문화 제2호

1999
시흥문화원

발간사

'문화시흥' 을 위한 다양한 계획

한 해를 마감하는 연말이면 누구나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못 다 이룬 계획을 아쉬워하고 반성도 하며 새로운 계획으로 마음이 분주할 것입니다.

문화원의 일년을 종합, 정리하는 『시흥문화』를 준비하며 그러한 감회에 젖는 것은 일천한 문화원의 역사에 비해 크게 요구되는 시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한 아쉬움 때문일 것입니다.

이에 시흥문화원은 더욱 다양한 계획으로 문화시흥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이번에 두번째로 발행되는 『시흥문화』는 이러한 노력을 보여주는 문화원의 활동상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시대에 맞는 기획으로 많은 시민이 참여하는 문화교실의 수준 높은 강좌와 온 가족과 청소년들이 즐기는 문화유적순례 및 갯벌체험과 같은 지역의 이해를 넓히는 행사를 통하여 일차적으로 내가 사는 고장에 대한 자긍심을 일깨우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여러분의 애정과 격려, 꾸준한 관심을 부탁드리며 바쁘신 중에도 『시흥문화』 제2호 발간을 위해 귀한 원고와 사진, 기타 자료 및 취재에 협조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대망의 새천년에는 각 가정마다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999년 12월

시흥문화원장 정 학 진

축간사

21세기를 여는 지역문화의 '窓'

꿈과 희망을 가득 안은 대망의 새 천년 21세기는 문화의 세기라 불리울 만큼 우리 사회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야만 하는 시대적 사명감을 가졌다 할 것이며 끊임없는 변화와 개혁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지역 문화를 선도해왔던 시흥문화원에서 향토문화의 보존과 발전의 정보가 모아진 『시흥문화』 제2호를 새로운 모습으로 발간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새 천년의 중심가치는 문화예술적 창의력이라고 하였습니다. 지식, 정보, 문화예술이 사회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새로운 시대는 그 어떤 시대보다 새로운 사고와 가치를 필요로 하게 됩니다. 문화예술은 주어지는 것이라기보다는 마음에 느끼고 싹트고 체험하는 데서 이루어져야 하며 우리는 문화예술을 소중히 여기고 간직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 시흥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해서는 몇몇 예술인들의 능력이나 노력만으로는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오로지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예술인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등으로 아끼고 도울 수 있는 구심점이 이루어 졌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시흥문화』가 이러한 구심점으로서 21세기 새로운 시흥문화를 여는 '窓'의 역할을 충분히 해나가리라 기대합니다. 그 동안 책자 발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정학진 문화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999년 12월

시흥시장 백 청 수

축간사

보다 풍요로운 『시흥문화』 기대

희망의 21세기, 새 천년이 시작되는 첫해에 시흥의 문화예술을 이끌어가는 시흥문화원에서 『시흥문화』 제2호를 발간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그 동안 지역사회 발전과 지역문화 창달을 위해 진력해 오신 정학진 문화원장님을 비롯한 문화예술인 모든 분들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앞에 다가온 21세기, 새로운 천년은 지식과 정보, 그리고 문화창조력이 사회 모든 분야의 발전을 이끌어갈 뿐만 아니라, 개인과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게 될 '지식혁명의 시대' 요, '문화의 시대' 가 될 것입니다.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전통문화, 그리고 높은 지적 수준과 문화적 창의력을 갖춘 우리는 '문화의 시대' 를 위해 준비된 민족입니다. 5천 년의 훌륭한 전통문화를 지켜온 우리 민족의 자긍심으로 이를 현재에 걸맞게 계승 · 발전시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고 과제입니다.

우리 시에 산재한 유 · 무형의 문화예술을 체계적으로 보존하여 시흥문화를 보다 풍요롭게 만드는 『시흥문화』로 성장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 시흥시민의 삶이 문화의 향기로 더욱더 풍요로워 질 것으로 확신합니다.

다시 한번 『시흥문화』 제2호의 발간을 축하드리며 시흥문화원장님 이하 회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999년 12월

시흥시의회의장 이 홍 철

제5회 향토문화유적답사

(1999. 4. 23. 남양주시 일원)

문화교실 및 문화가족 4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남양주 일원에 대한 향토문화답사가 지난 4월 23일 실시되었다. 향토문화 유적지의 현장체험을 통해 역사관의 재조명과 확립을 목표로 진행된 이번 답사에서는 광릉, 봉선사, 정약용 선생 묘, 홍릉, 유릉 등을 방문함으로써 살아 숨쉬는 역사의 숨결을 느낄 수 있었다는 것이 참석자들의 한결같은 지적이었다. 아울러 문화가족으로서의 자긍심과 답사에 대한 새로운 문화 이미지가 정립되었다는 평가도 있었다.

조선시대 인선왕후가 살던 마을유래비 제막식

(1999. 5. 21. 장곡동)

시흥시 장곡동 산 68번지에서 출생한 조선시대 인선왕후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왕후가 살던 마을유래비 제작을 기념하는 제막식이 지난 5월 21일 오전 11시 장곡동에서 거행되었다. 시흥문화원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는 정학진 문화원장, 백청수 시장, 자민련 김의재 의원, 장경우 전의원,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장철수 교수 등 각계 인사와 입주주민 및 문화원 가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을 이루었다. 효종의 왕비인 인선왕후는 왕궁의 나인들이 넓은 소래 갯벌에서 게를 잡고 있는 부인의 몸에 드리운 빛을 보고 찾아 모셨다는 일화가 전해지고 있으며, 슬하에 현종과 5명의 공주를 두었는데 딸들에 대한 사랑이 절절하게 담긴 한글편지 70통이 전해지고 있다.

새 천년을 위한 문화교실 특별연수

(1999. 6. 25. 시티웨딩홀 5층)

6 · 25를 맞이하여 문화의 시대적 의미와 역할을 강조하고, 강좌와 그때 그 시절의 음식체험을 통해 21세기를 맞아 인간의 삶과 사회, 그리고 세계에 대한 인식이 문화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일깨우기 위해 지난 6월 25일 10시 시티웨딩홀 5층에서 새 천년을 위한 문화교실 특별연수가 개최되었다. 이날 행사에서는 '문화와 21세기'라는 주제로 박준성 성균관대 교수의 특강이 있었으며, 오리엔테이션, 나의 미래설계 등의 행사가 이어졌고 행사 참여자에 대한 시상과 주먹밥 등 그때 그 시절의 음식체험 시간을 가졌다.

몽골 유목문화대전 견학

(1999. 7. 24. 경기도립박물관)

문화원 임원 및 학생 가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몽골 유목문화대전 견학이 지난 7월 24일 경기도립박물관에서 개최돼 관심을 모았다. 이번 행사에서는 몽고 유목민들의 생활상을 다채로운 행사와 함께 펼쳐 참석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학생들에게 몽고민족의 생활습관 및 환경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단체관람을 통해 공동의식에 대한 이해와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제1회 갯벌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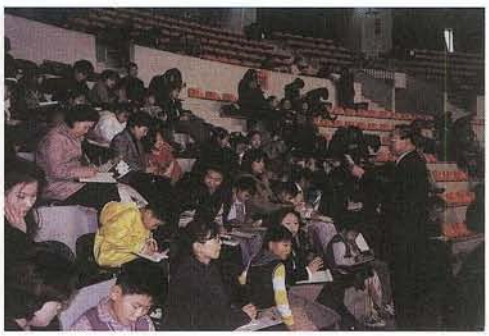
(1999. 8. 19. 오이도 해양단지 선착장 앞 갯벌)

제1회 갯벌체험이 지난 8월 19일 개최돼 비상한 관심을 모았다. 오전 9시 30분 연합병원 앞 공원에서 대형버스로 이동한 참가자들은 당초 예상보다 훨씬 웃도는 250여 명이 참여해 시민들의 관심도를 반영했다. 오전에는 시화공단 내 삼립식품과 두산유리의 제품 생산과정을 견학했으며, 시흥시청 대회의실에서 백청수 시장의 특강과 이홍철 시의회의장의 인사말이 이어졌다. 시청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마친 참가자들은 오이도 선착장으로 이동하여 오후 2시부터 본격 행사인 갯벌체험 개막식을 가졌다. 이후 참가자 전원이 참여하는 머드와 각종 이벤트가 오이도 갯벌에서 개최되었다. 오후 5시 30분부터는 서훈 상임지휘자가 이끄는 시흥청소년교향악단의 연주가 이어졌으며, 시흥문화원 문화교실 민요반의 합창, 사물놀이, 민속놀이 체험 행사가 펼쳐졌다. 시흥시의 해안선의 길이는 18㎞이고, 평균 7~9m의 심한 조수간만의 차를 보이며 간석지가 넓게 발달했다. 갯벌은 정왕동(오이도), 월곶동, 포동, 방산동(폐염전 포함), 장곡동 등에 걸쳐 형성되어 있다.

시흥문화교실 제2기 수료식, 제3기 개강식

(1999. 10. 1. 시흥문화교실)

전통문화의 계승과 발전은 물론,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통해 시흥시민의 정서 함양을 도모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시흥문화교실이 지난 10월 1일 제2기 수료식 및 제3기 개강식을 거행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문화교실은 서예반, 종이공예반, 닥종이인형반, 툴페인팅반, 역사비디오반, 신문지공예반, 민요반, 꽃꽂이반 등이며, 향후에는 전통매듭, 전통수예, 장기 · 바둑, 서당, 외국어, 사물놀이 등이 증설될 예정이다.



제2의 건국운동 실천 백일장대회

(1999. 12. 16. 수원체육관)

전국문화원연합회 경기도지회가 주최한 제2의 건국운동 실천 백일장대회가 지난 12월 16일 수원체육관에서 열렸다. 시흥문화원에서 추천한 학생 및 일반인 70명이 참석하여 수필부문에서 초등부 김경준(도창초교) 군과 일반부 서민자(매화동), 이행지(매화동) 씨가 각각 차상, 참방을 차지하는 성과를 올렸다. 초등부 김경준 군은 「먼훗날」이라는 제목으로 차상을 차지했으며, 일반부 서민자 씨와 이행지 씨는 「나는 누구인가」라는 제목으로 각각 차상과 참방을 차지했다.

시민영상제

제11회 연성문화제
시흥시민노래자랑

전통국악공연

시흥명필휘호대회

제11회 연성문화제

전통국악공연

제11회 연성문화제
시흥시민노래자랑

문화교실

제11회 연성문화제

새로운 천년의 시대를 맞이하는 한마당 큰잔치 제11회 연성문화제가 지난 10월 9일부터 17일까지 9일간 시흥시 관내 곳곳에서 열려 관심을 집중시켰다.

시흥문화원의 주최로 열린 이번 행사에서는 시흥시민의 높아진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고자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다양하고도 새로운 행사를 준비하여 축제 분위기를 연출했다.

전통혼례의 시연, 문형문화재인 외줄타기, 모든 시민이 참여하는 시흥명필휘호대회, 비디오 영상작품을 상영하는 시민영상제 등 새로운 문화와 옛 문화의 접목과 조화를 통해 시민과 함께 하는 문화의 한마당을 펼쳤다는 평가를 받았다.

10월 9일 오후 2시 은행동 근린공원에서 개최된 「전통혼례시연 및 민속놀이」에서는 투호놀이, 새끼꼬기, 떡치기와 떡만들기, 사물놀이 공연 등을 통해 시흥시민의 화합과 애향심 고취에 크게 기여했다.

10월 10일 오후 6시 포동 시민운동장에서 열린 「시흥시민의 밤」에서는 동별 시민가요대회, 인기가수 · TV 연예인 초청공연이 개최되어 시민들의 뜨거운 호응을 이끌어 내었다.

10월 11일 오후 6시 실내체육관에서 막을 올린 「전통국악공연」에서는 도립국악관현악단의 연주와 시흥문화교실 민요합창단의 합창이 펼쳐져 참석자들의 갈채를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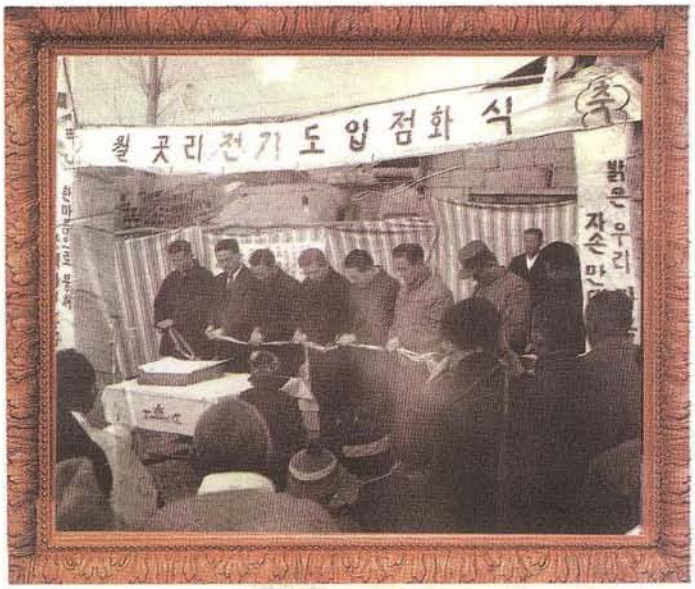
또한 10월 12일부터 16일까지 시청 전시실에서 열린 「문화교실 수강생 작품전」에서는 수강생들이 평소에 갈고 닦은 솜씨로 서예, 닥종이인형, 종이공예, 꽃꽂이, 톨페인팅, 신문지공예를 선보였다.

특히 10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은행동 근린공원에서는 「시민영상제」가 열려 시흥시민은 물론이고 타 지역에서도 집중적인 관심을 보였다. 시민들이 직접 제작한 다큐멘터리를 선보였는데 이웃의 고통, 그리고 사소하지만 의미 있는 이웃의 삶을 영상에 담아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17일 마지막날 개최된 「시흥명필휘호대회」에서는 일반부, 중고등부, 초등부로 나누어 한글과 한문의 문장실력을 겨뤘다. 대회에 참석한 시민들은 인성교육을 근본으로 한 문장을 읽고 쓰면서 전통문화가 과거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까지도 넘나든다는 사실을 일깨웠다.

호롱과 전등

호롱불, 혹은 등잔(燈盞)불의 조도(照度)를 높이려면 심지를 두 개 또는 그 이상으로 하여 불을 켜면 되는데, 이렇게 하는 것을 '쌍심지를 세운다'라고 표현한다. 불꽃은 심지 끝에 매달려 있지만 정작 제 몸을 태우는 것은 심지가 아니라 심지에 배어든 기름이다. 심지가 굵은 사람이 정치인이 되기도 하지만 너나 없이 정치인들은 국민의 등불이 되겠다고 말한다. 불꽃이 심지의 끝에 매달려 있기 때문에 정치인들은 제 몸이 불타고 있다고 믿는다. 그러나 정작 제 몸을 태우는 것은 심지가 아니라 정치인을 믿고 뽑아준 국민들이다. 국민들은 호롱불, 혹은 등잔불의 심지가 쓸만한지 그렇지 않은지 쌍심지를 세우고 잘 판단하여 선택해야 한다. 역사의 호롱불이 꺼지면 그 나라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이 어둠 속으로 사라지기 때문이다.



서울 종로에서 민간인이 전등을 점화한 연도는 1900년. 2000년은 민간인들에게 전등이 보급된 지 100년이 되는 해인 셈이다.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1971년 1월 29일 군자면 월곶리의 전기점화식 테이프 커팅 장면은 비록 화려하지는 않지만 하나의 사건이었다. 참석한 내빈 중에는 옛날 군복을 입은 장교가 보이고, 남들보다 먼저 테이프를 절단해버린 내빈도 눈에 들어온다. 현수막에는 '월곶'이 '월곳'으로 표기된 것이 특이하기도 하거니와 각종 구호가 난무하여 근대화에 대한 의지와 소망을 가늠할 수 있다. 털모자를 쓴 아이, 짧은 머리를 한 노인에 이르기까지 테이프 커팅을 하고서 단상 앞에 다가서면 떡판 하나만 달랑 놓여 있어도 모두들 풍요롭게 느껴졌던 시절. 그때를… 아십니까?

글 · 신승철(소설가)

시흥문화 제2호

20 특집
『시흥시 신현동지』 발간과 그 의의 / 『시흥시 신현동지』 요약 · 20
『시흥시 신현동지』 기획에서 발간까지의 작업일지 · 24
『시흥시 신현동지』 목차 및 필자명단 · 25 / 주혁 상임위원과의 인터뷰 · 26

28 기획 1
시흥시의 지석묘

34 기획 2
오이도 가운데살막패총 발굴조사약보고 · 서울대학교인문학연구소

58 설문조사로 본 시흥시
시흥 1000년, 시흥군 100년, 시흥시 1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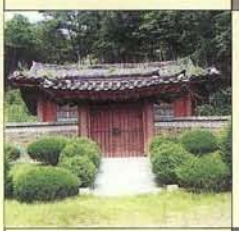
67 시흥리포트
시흥시 관광가이드 · 월곶동 편 · 최낙영

84 맥을 잇는 사람 / 「1999 경기으뜸이」 이종덕 씨
전통과 현대를 접목하는 유기장인

시흥문화 제2호

발행인 정학진/발행처 시흥문화원(032-695-6465, 경기도 시흥시 대야동 484-5)
발행일 1999년 12월 30일 / 기획 · 편집 큰기획(02-2268-6832)
題字 전남훈(경기도서예가연합회 회장,시흥문화원 이사)

『시흥문화』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윤리규정을 준수합니다.
이 책은 비매품이며 국비와 시비보조금으로 발행되었습니다.



3 **발간사**
'문화시흥'을 위한 다양한 계획 · 정학진

4 **축간사**
21세기를 여는 지역문화의 '창' · 백청수
보다 풍요로운 『시흥문화』 기대 · 이홍철

6 **문화원 소식**

10 **화보**
제11회 연성문화제

12 **사진일기**

18 **문화 칼럼**
한 가지라도 맹목적인 게 있어야 한다 · 이거룡

40 **시민 문예마당**
시 / 노순례 · 이숙 · 이향란 · 장연희 · 차정림
수필 / 김순숙 · 복연금 · 이묘숙

53 **우리 동네 사람들**
농부 · 김중연 / 목장경영 · 원태희
어부 · 송선일 / 대야소방파출소 · 최영수
문화상회 · 김향분

64 **만나고 싶었습니다**
시흥 출신 탤런트 한인수

80 **우리는 동호인**
우먼포커스

88 **사진으로 보는 우리 고장**
계수동사람들

90 **시흥의 옛 이야기 ②**
따뜻한 전설의 고향, 시흥 Ⅱ

94 **전통종가를 찾아서**
윤성준 종가 · 한걸택 종가

98 **문화의 현장 / 냉정초등학교**
우리 고장의 역사와 문화를 배웁니다

100 **전통음식점 / 금천옥**

103 **제2의 건국운동 실천 백일장 입상작**

106 **시흥문화원 2000년 사업일정**

108 **시흥시 2000년 사업일정**

111 **시흥시의회 2000년 사업일정**

112 **원고모집**

시흥시
신현동지

방산동 · 포동 · 미산동 주민들의 삶과 문화

독립적인 생활단위였던 우리 나라의 마을들.
독립적인 문화단위였던 우리 나라의 마을들.
시흥시 신현동 주민들의 삶과 문화가
왜 학계의 관심사로 떠올랐을까?
고향마을의 역사를 한국역사의 중심무대로 이동시킨
마을지 편찬의 교과서 !

신현동지에는 방산동 · 포동 · 미산동 주민들의 삶과 문화가 낱낱이 소개되고 있다. 마을의 변천사, 생활환경, 지명유래, 인물, 민속생활, 문화유산, 洞談을 통해본 동민의 삶, 포리호사건의 전말에 이르기까지 22명의 전문필자들이 문자로 육화해 낸 정신의 무늬가 화려하게 담겨 있다. 또한 부록편에는 어느 동민의 농사일기, 포리호사건의 기사모음, 주민들의 소장증명서, 포리초등학교의 생활기록부, 신현동 연표 등이 수록되어 있다.

신현동지 - 4×6배판, 438쪽, 신현동지편찬위원회 편
신현동지(부록) - 4×6배판, 128쪽, 신현동지편찬위원회 편
시흥문화원, 1999년 10월 발간, 비매품.

1999
시흥문화원

특집/『시흥시 신현동지』 발간과 그 의의
시민 문예마당
우리 동네 사람들
시흥리포트
우리는 동호인
맥을 잇는 사람

한 가지라도 맹목적인 게 있어야 한다

이거룡 · 철학박사

순수한 행위는 맹목적이다. 목적 없는 행위만이 순수할 수 있다. 사랑이든 종교든 목적이 있으면 이미 그 본래의 의미를 잃는다. 목적이 있다면 그것은 사랑도 아니고 종교도 아니다. 다만 '너'와 '나' 사이의 비지니스일 뿐이다. 이익을 사고 파는 거래가 있을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사랑은 맹목적이어야 한다. 특히 남녀 간의 사랑은 그렇다. 눈멀고 귀먹지 않은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사랑은 다만 맹목적일 때 이해를 따지지 않는 불가사의를 만든다. 어머니의 사랑이 고귀하다고 말하는 것도 그런 이유다. 그것은 이해 득실을 따지지 않는 맹목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참사랑'일 수 있다.

그런데 또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맹목적인 행위란 너무 위험한 것이라고 말한다. 금지한다. 맹목적이라는 말이 우리에게 지니는 일차적인 의미는 무모하다는 것이다. 부정적이다. 맹목적인 사랑, 맹목적인 우정은 순수하다는 것을 알면서 우리는 왜 맹목적이 되는 것을 두려워 하는가? 왜 맹목은 터부시되는가?

터부라는 말은 서로 반대되는 두 방향에서 이해된다. 그것은 한편으로 신성한 무엇이며, 다른 한편으로 위험하고 부정한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에게 맹목은 터부다. 다시 말하여 그것은 순수하고 성스러운 동시에 무시무시하고 두려운, 따라서 금기시되는 것이다. 맹목은 금지되고 있지만, 그 이유는 모르는 채, 아니 이유를 물어야 한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 다만 맹목적이 되는 것을 두려워한다. 그것은 이유불문의 금지다.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터부시해 온 맹목은 느낌 혹은 감정에 대한 맹목이며, 그 이면에는 이성에 대한 맹목적인 추종이 숨어있다. 다시 말하여 우리가 맹목적이어서는 안된다고 말할 때, 그것은 정작 이성에 대한 맹목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성에 대한 무조건적인 추종을 맹목적인 것이라고 말하지 않으며, 오히려 그것을 합리적이기 때문에 가치있는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사람에게 이성이 전부일 수는 없다. 오히려 우리의 삶에 깊이를 더하는 것은 투명한 이성이 아니다. 다른 것이다. 사랑은 깊다. 죽음도 깊다. 그러나 사랑도 죽음도 인간의 이성이 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에 대하여 이성은 속수무책일 뿐이다. 화려한 학벌로 보나 가문으로 보나 무엇으로 봐도 저 여자가, 남자가 나를 사랑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아니다. 우리가 참으로 알고자 하는 것,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것은 언제나 이성의 너머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이성에 모든 것을

걸어왔다.

만일 느낌에 대한 맹목이 위험을 내포한다면, 그것은 순수와 통하기 때문이다. 순수한 것은 이미 더럽혀진 것보다 오염되기 쉽다. 이용당하기 쉬운 것이 순수다. 이런 점에서 느낌에 대한 맹목은 위험한 것이지만, 느낌에 대한 맹목 자체가 부정적인 것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 무조건 느낌에 대한 맹목이 비난받아야 할 이유가 없다. 다만 그것이 교묘히 이용되고 악용되는 사회가 오히려 문제다. 가슴을 열고 누군가에게 다가가는 자, 반드시 심상을 잃게 되고 마는 부조리를 경계할 뿐이다.

이제 우리 주변에는 진정한 맹목을 찾아보기 어렵다. 맹목적인 사랑은 없다. 너무 쉽게 사랑하고 너무 쉽게 떠나는 것이 요즘 세대의 사랑이다. 적당히 사랑해야 적당히 아플 수 있다는 말도 있다. 이해타산을 따지지 않은 우정도 보기 드물다. 어쩌다 소설 속에서나 보는 천연기념물이다. 이제는 대중적인 드라마나 영화도 맹목적인 사랑은 고리타분한 신파에나 어울리는 것이라 여기는 모양이다.

종교도 마찬가지다. 사랑이 맹목적이어야 하는 것처럼, 종교도 맹목적이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그게 아니다. 대개의 종교, 보다 정확히 말하여 종교집단은 인간의 구원과 고통을 걱정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보다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일까를 걱정하고, 이것은 결국 많은 돈을 거두어 들이는 일과 짝을 이룬다. 따르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어떤 사람이 하나의 종교단체에 속한다는 것은 그가 속해 있는 집단의 사람들로부터 이득을 보자는 계산도 깔려있는 것같다. 물론 전부가 그렇다는 것은 아니다. 아무튼 '많이 많이'를 추구하기는 성과 속의 구분이 없어졌다는 생각이 드는 게 요즘 우리 주변의 현실이다.

맹목은 깊이에의 추구다. 우리의 삶에 종교가 중요하고 사랑이 중요하다면, 그것은 맹목적인 사랑이 혹은 맹목적인 종교가 우리를 내면의 깊이로 침잠하게 하기 때문이다. 종교를 인간의 궁극적인 관심이라고 말하는 것이나, 종교보다 강한 것이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런 이유다. 종교나 사랑은 일상사의 표면에 부유하는 이런저런 사실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깊이로 침잠하는 것이다. 폭보다는 깊이가 중요하다. 이런 점에서 흔히 좋으나 사랑은 배타성을 띠기 쉽다. 한 사람이 여러 종교에 기웃거리는 것은 이단자로 낙인찍히며, 한 남자가 여러 여자를, 혹은 한 여자가 여러 남자를 사랑하는 것은 불륜으로 비난받는다. 사랑이든 종교든 깊이로 추구하는 맹목적인 행위여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에 맹목적인 것이 사라져 간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그만큼 얕고 허전해졌다는 말이다. 사랑하는 애인의 변심에 목을 매는 순애보가 드문 세상은 각박하다.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다. 목적을 지니는 것이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인 현실 세계에서 잠시라도 목적을 잊어버리고 산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인지도 모른다. 어려운 일임에 분명하다.

그러나 적어도 한 가지는 맹목적인게 있어야 한다. 그것이 사랑이든 종교든, 혹은 다른 무엇이든, 우리의 삶 속에는 목적을 잊어버리고 결과에 집착하지 않는 맹목적인 한 구실이 있어야 한다.

맹목은 우리에게 남아 있는, 그래도 사람은 순수하다는, 순수할 수 있다는 최후의 흔적이다. 만일 우리에게 맹목의 불씨가 꺼지고 없다면, 그것은 이미 우리가 참으로 희구하는 목적지에 이를 가능성은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시흥시 신현동지』 발간과 그 의의

『시흥시 신현동지』 요약

『시흥시 신현동지』(이하 『신현동지』)는 새로운 세기를 코 앞에 둔 1999년 말에 발간되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경기도를 비롯하여 전국 각지의 광역단위에서 동지와 마을지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기존의 시 · 군지라는 정형화된 틀에서 벗어나 향토지가 다양한 생활단위로 넓어지고 있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추세라 할 수 있다. 이는 지방자치제의 정착과 자기 지역의 정체성 확보를 위한 출발점이라는 측면에서 당연한 결과일 것이다.

『신현동지』 발간에는 도서출판 큰기획의 주간인 주혁 상임위원(경기지역사연구소 선임연구원)이 기획 및 발간에 따른 전체 일정을 총괄했고, 현지조사와 원고작성에는 모두 22명의 학계 내외의 인사가 동원되었다. 총 1년 4개월이 소요된 발간의 전 과정은 필자와 현지 주민들과의 합작품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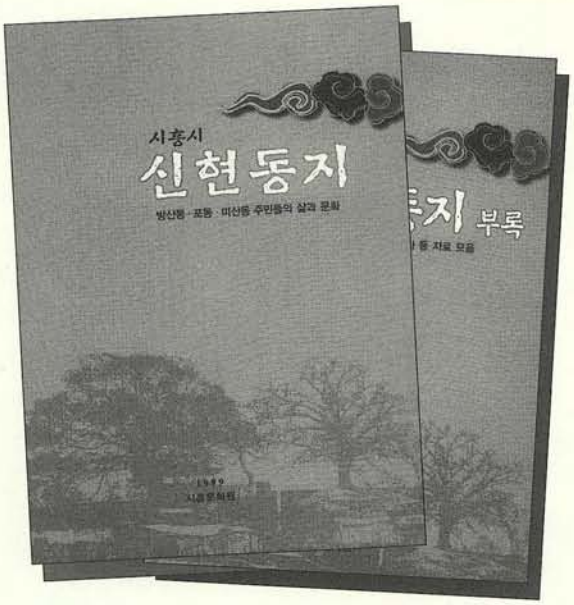
필자들은 문헌조사와 현지조사를 병행하면서 동민들의 삶과 문화에 나타난 특징이 무엇인가에 주목하였고, 현지 주민들은 필자들의 거듭된 방문에도 자신들의 삶과 마을의 전통을 충실히 답변해 주는 고생을 감내하였다. 이 과정 끝에 탄생한 『신현동지』는 조사보고서인 동시에 신현동의 역사책이라 할 수 있다.

먼저 이 책은 6개의 부에 20여 개 항목의 글로 구성되어 있다. 개별 항목의 글과 6개 각부의 글에는 가급적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와 삶을 담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동민들의 삶의 궤적과 숨결을 충실히 담아내고자 자랑꺼리 뿐만 아니라 동민들의 삶에 나타난 희노애락을 빠짐없이 수록하도록 힘썼다.

6개 부와 20여 개 항목으로 구성

Ⅰ부 「삶의 터전과 환경」에서는 신고개면에서 신현동까지의 변천사, 경기만과 학미산이 풀어놓은 생활환경, 지명유래, 풍수지리로 바라본 신현동 등의 제목으로 구성되었다. 여기서는 신현동이란 마을의 역사적 변천과정과 신현동 주위의 자연환경 및 인문환경을 살펴보았다. 다시 말해 신현동의 삶의 터전과 환경이 어떠했는가에 주목하였고, 이는 동지를 구성하는 총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Ⅱ부 「마을을 지킨 이들」의 내용은 크게 이곳에 태어나 묻혀 있는 사자(死者)와, 떠나지 않고 계속 살고있는 토박이들에 관한 것으로 나눌 수 있다. 오래된 성씨(姓氏), 고장을 빛낸 인물, 어느 동민의 하루와 평생이란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어느 마을이나 그 터전을 떠나지 않고 오랫동안 그 땅을 지켜온 사람들이 있다. 신현동도 예외가 아니었고 오래전부터 여러 성씨가 들어와 세거하였으며 옛 선현들의 무덤도 도처에 흩어져 있다. 또 이곳에서 뼈를 묻을 염부, 농부, 그리고 주부의 삶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평생 신현동을 지켜온 세 분의 삶, 한 우물을 변함없이 파고 산 이들의 지난한 인생을 여과장치 없이 수록하였다.

Ⅲ부「민속생활과 그 모습」에서는 마을 및 가족생활에서 전승되는 것들에 주목하였다. 여기에 수록된 글들은 신현동의 세시풍속, 출산에서 제례에 이르는 각종 의례, 마을과 각 가정에서 지켜온 각종 신앙생활, 신현동 내 각 자연마을이 형성되어 온 과정과 공동생활, 마지막으로 오랫동안 계승해 온 민속예술과 놀이는 무엇이었는가를 다룬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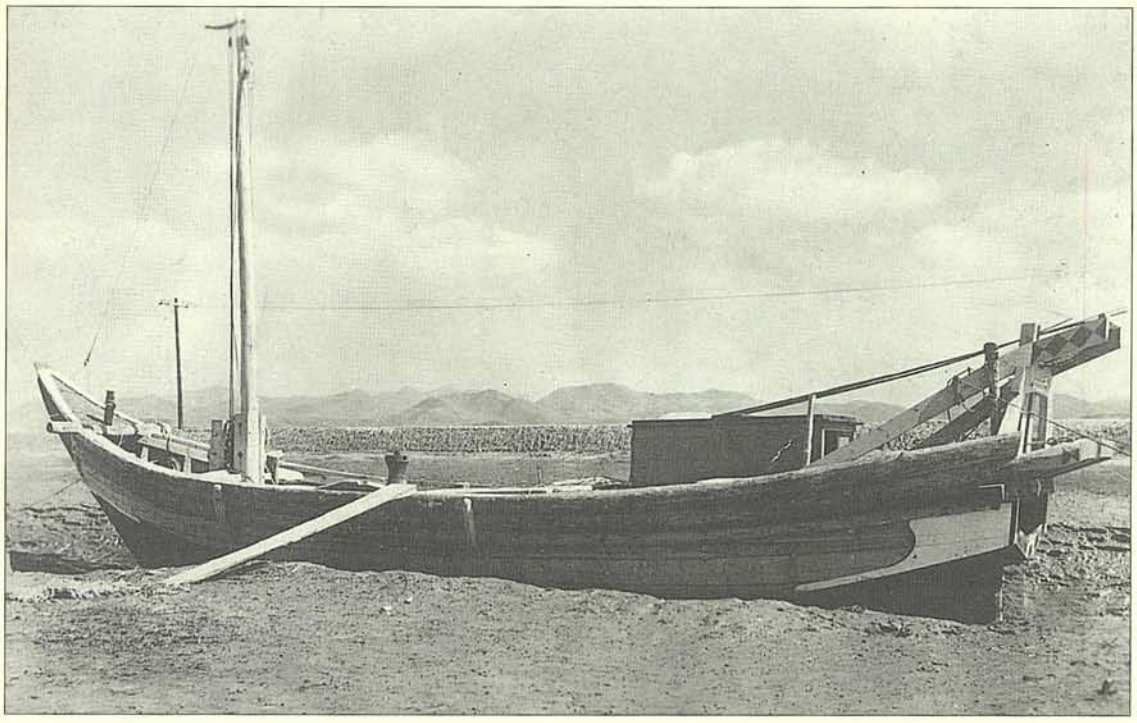
특히 마을민의 신앙생활에 대한 조사를 통해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는 공동체 신앙에서 가정의 무고를 바라는 가정신앙, 그리고 무당이 주관하는 무속신앙 등 다양한 신앙체계가 신현동 안에서 여전히 성행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또한 전통을 띠고 있는 놀이문화로 새우개 장승놀이와 전하봉영놀이 등이 신현동 일대에서 전승, 보존되고 있는 사실도 아울러 드러났다.

Ⅳ부「오래 간직해 온 고장유산」은 마을 곳곳에 분포한 다양한 문화유산과 특산명물, 그리고 가 볼만한 관광자원 등을 살펴보았다. 오랜 역사를 간직한 채 땅 속에 묻혀 있었던 방산동 청자·백자 가마터의 현황과 그 특징, 마을을 지켜온 자연문화유산과 지석 등 조선시대에 조성되어 마을에 남은 문화유산,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져 일궈낸 소금·쌀·포도 등의 특산명물도 언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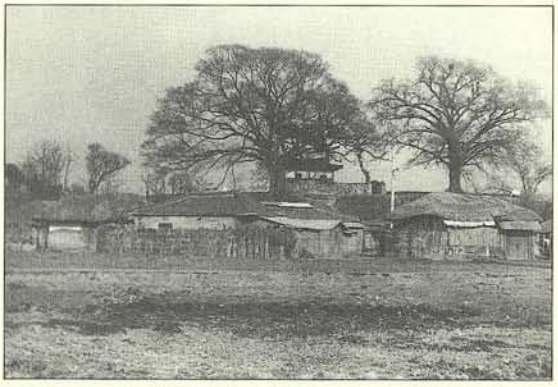
Ⅴ부「어제와 오늘을 묶어주는 이야기」에서는 먼저 오래 전부터 전승되어 지금까지 토박이들이 간직해 온 설화 및 전설에 주목하였다. 다음으로 선조인 망자(亡者)를 어떻게 모셔 왔는가를 묘역 관리와 족보 보완, 그리고 현대사회의 개발과정에서 묘역이 어떠한 변화를 겪고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마을 속에서 공동체적인 삶과 문화를 형성해 온 주민들이 어떠한 말을 남겨왔는가에 주목하여 이를 '洞談을 통해본 동민의 삶' 이란 항목을 설정하여 몇가지 유형별 특징으로 나누어 알아보았다.

특히 '亡者의 집' 은 단순히 조상을 어떻게 숭배해 왔느냐에 그치지 않고 조만간 전통적인 매장풍습이 사라지게 될 현실상황에서 선현의 묘역을 어떠한 시각으로 바라봐야 하는가에 대해 많은 시사를 줄 것이다. 또한 동민들이 구체적으로 남긴 '洞談' 에 주목한 것은 동민들 사이에 오고 간 말들은 일회적으로 스쳐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응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한 것이다. 그들의 말은 결국 동민들끼리 공유하는 가운데 누적된 문화현상을 의



정박 중인 포리호(1950년대 후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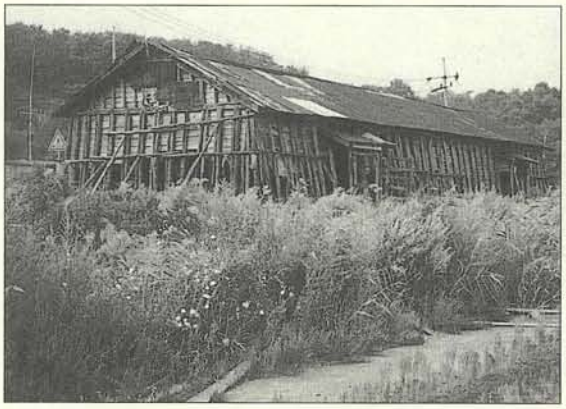


새우개 당나무 전경(1970년대 초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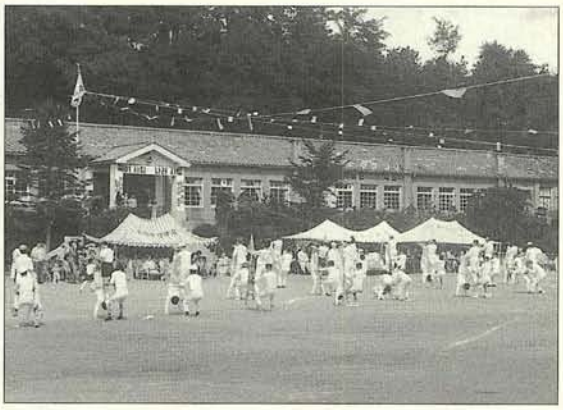
미한다. 동담의 개별 항목은 토박이들과의 인터뷰 과정에서 설정하였고 그 의미를 함께 짚어 보았다. 이를 통해 다른동네와 비교하여 신현동 사람들이 자연과 더불어 마을생활을 영위해 온 보편적인 삶과 함께 신현동만이 갖고 있는 특징적인 면모도 아울러 확인할 수 있었다.

Ⅵ부 「함께 살아온 현대생활」은 적어도 3~4대가 함께 살아온 과정 속에서 일제강점기를 전후한 시기에서 현재까지 주요 생업기반의 변화, 동민들이 겪은 한국전쟁의 실상, 서해안에 인접한 신현동의 어업과 그 변화의 계기는 무엇이었는가에 주목하였다.

먼저 방산동과 포동 일대에 광활하게 펼쳐진 소래염전이 동의 주요한 경제기반이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특히 1996년이 폐염전될 때까지 많은 동민들이 염전벌에서 평생을 보낸 염부로서 살아갔을 정도로 소래염전은 동의 생활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또다른 생업기반으로 포동 일대의 어업과 포리항구 등에 초점을 맞춰 접근하였고, 특히 1960년에 목포 앞바다에서 발생한 '포리호사건'에 주목하였다.



폐염전 조치 후 소금창고 전경



포리초등학교의 즐거운 운동회(1979년)

포리호는 마을주민들의 염원을 담아 포리 동네에서 건조되었으며, 마을 경제재건의 상징이자 뿌리에 해당할 정도로 큰 기대를 안고 있었다. 그렇지만 간첩에 의해 납북되어 바닷속으로 수장되었던 포리호 사건 이후 마을의 경제기반은 삽시간에 허물어졌고 어업이 결정적으로 쇠퇴하는 계기로 작용했음이 확인되었다. 경제적인 기반의 변화는 마을생활에서도 적지 않은 변화가 있었다는 것도 분명하다.

한국전쟁이 전 국토를 초토화시킨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신현동이란 조그마한 마을에서도 그 피해가 빗겨가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오래된 기관으로 관내에서 유일한 초등학교인 포리초등학교, 미산감리교회, 첫 중등교육시설인 성산학원 등의 어제와 오늘도 함께 살펴보았다.

『신현동지』 부록편 별도로 발행

『신현동지』와 함께 『시흥시 신현동지 부록』(이하 『부록』)도 발간되었다. '연표 · 농사일기 · 신문기사 등 자료모음'이란 부제에서 알 수 있듯이 신현동을 조사하면서 발굴한 근현대사 관련 자료를 수록한 것이다. 기존 동지에서는 자료부분을 본책 뒤에 수록하곤 하였으나 『부록』에서는 별도의 자료집으로 묶어 새롭게 구성하였다.

『부록』에 수록된 내용은 크게 5개 부로 구성되었다. 제1부 「어느 동민의 농사일기」는 포동에서 70평생을 농사지으면서 보낸 이만규 옹의 농사 및 생활일기 중에서 1967년도, 1971년도, 1972년도, 1977년도 등 4개 연도의 일기를 그대로 수록한 것이다.

제2부 「포리호사건」은 포리호가 1960년 12월 17일 간첩에게 납포되어 북으로 끌려가다가 좌초된 사건을 다룬 것으로 12월 17일부터 23일까지 경향신문 기사를 빠짐없이 실었다.

제3부 「주민 소장 증명서」는 동민들이 소장하고 있던 도민증, 제대증 등 각종 증명서를 수록하였다.

제4부 「포리초등학교의 생활기록부」는 관내 유일한 학교인 포리초등학교의 1960년대에서 1990년대까지의 생활기록부를 10년 단위로 끊어서 게재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5부 「신현동 연표」는 멀리 삼국시대에서 1990년대 후반까지의 주요 연혁 및 사건, 사고 등 제 변화상을 시대별로 나누어 연 · 월 · 일 순으로 정리하였다.

『시흥시 신현동지』 기획에서 발간까지의 작업일지

1998. 8 ~ 9. 30	기획안 작성 및 자료조사
1998. 8. 21	목차 시안 검토(제1차 편찬위원회)
1998. 9. 11	수정 목차안 검토(제2차 편찬위원회)
1998. 10 ~ 12. 31	자료조사, 집필회의, 원고청탁 완료
1998. 10. 9	집필자 회의(기획안 토론 및 조사방향 등을 협의, 이기만 실장 포함 큰기획 3명, 주혁 상임위원 포함 필자 7명 참가)
1998. 10. 21	방산동, 포동, 미산동 자문위원 선정 및 운영안 검토(제3차 편찬위원회)
1998. 11. 6 ~ 11. 7	집필자 방산동, 포동, 미산동 현장조사(필자 5명, 이승언, 이영득 사무국장 동행)
1998. 11.13	집필자 회의(목차 보강 및 조사방향 협의, 5명 참가)
1998. 11.18	신현동사무소 방문, 향후 조사시 협조 요청(필자 2명)
1998. 11. 23	집필자 현지조사(공주대 이해준 교수 동행, 필자 10명)
1998. 12. 16	포동, 방산동 노인정 방문조사(민속 관련 필자 2명)
1999. 1 ~ 1. 31	수록 사진 검토 및 현지 촬영
1999. 1. 4~1. 10	신현동 주민의 족보 및 자료대여, 신현동 사무소 자료 조사 및 대여
1999. 1. 13~1. 14	방산, 포, 미산동 주요 묘역 조사, 문화재 조사, 노인정 방문, 시흥시청 향토사료실 방문(필자 6명)
1999. 1. 15~1. 31	정승모 선생의 조사일기(1979년 현지조사 1년치) 분석 및 정승모 선생 수집 사진자료 검토
1999. 2 ~ 3. 31	원고접수 완료
1999. 2. 4~2. 15	신현동 관내 교회, 포리초등학교 방문, 묘역조사, 노인정 및 게이트볼장 방문, 인근마을 조사(필자 4명)
1999. 3. 9	어업 및 한국전쟁 관련 현지조사(필자 3명)
1999. 3. 14	학미산 산신제 행사 참여, 걸뚝 무당집 방문(필자 2명)
1999. 4 ~ 6. 30	원고 검토, 필자교정
1999. 7 ~ 8. 31	현장 추가 확인조사를 통한 원고보완
1999. 9 ~ 9. 30	부록 작업(원고작성 및 교열, 교정)
1999. 10 ~11. 30	본책 교열, 교정 및 편집디자인 완료
1999. 12	인쇄발간 완료

『시흥시 신현동지』 목차 및 필자명단

Ⅰ. 삶의 터전과 환경

Ⅰ-1 신고개면에서 신현동까지의 변천사	주혁(상임위원)
Ⅰ-2 경기만과 학미산이 풀어놓은 생활환경	양보경(성신여대 지리학과 교수)
Ⅰ-3 지명유래	이승언(시흥시 향토사료실)
Ⅰ-4 풍수지리로 바라본 신현동	최원석(고려대 지리학과 박사과정 수료, 성신여대 강사)

Ⅱ. 마을을 지킨 이들

Ⅱ-1 오래된 姓氏	정승모(서울시립박물관 전문위원)
Ⅱ-2 고장을 빛낸 인물	김창현(문학박사, 한양대 강사)
Ⅱ-3 어느 동민의 하루와 평생	김현미(경기지역사연구소 연구원, 민속전공)

Ⅲ. 민속생활과 그 모습

Ⅲ-1 열두 달 세시풍속	천진기(가톨릭대 강사)
Ⅲ-2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의례	장철수(정신문화연구원 민속학 교수)
Ⅲ-3 마을의 안녕과 가정의 무고를 비는 신앙생활	김지욱(경기도박물관 학예연구사)
Ⅲ-4 방골, 신촌, 고기동 마을의 형성과 공동생활	이재필(청주대 강사), 이준석(국립문화재연구소)
Ⅲ-5 민속예술과 놀이마당	서승우(국립문화재연구소 연구원)

Ⅳ. 오래 간직해 온 고장유산

Ⅳ-1 방산동 청자 · 백자 가마터	최건(해강도자미술관 학예연구실장)
Ⅳ-2 알려야 할 문화유산	차선혜(경희대 강사)
Ⅳ-3 자연과 사람이 만들어 낸 특산명물	정학수(부천시사편찬위원회 상임위원)
Ⅳ-4 우리 동네 답사기	유종인(시흥 출신 시인)

Ⅴ. 어제와 오늘을 묶어주는 이야기

Ⅴ-1 입으로 전해온 이야기	이상열(한국문화행정연구소 연구원)
Ⅴ-2 亡者의 집	허홍범(이천시사편찬위원회 상임연구원, 경희대 강사)
Ⅴ-3 洞談을 통해본 동민의 삶	주혁(상임위원)

Ⅵ. 함께 살아온 현대생활

Ⅵ-1 '蘇萊鹽田', 염전과 함께 한 사람들	김보영(한양대 사학과 박사과정)
Ⅵ-2 동민들이 겪은 한국전쟁	박동찬(한양대 사학과 박사과정)
Ⅵ-3 만선의 깃발 단 배가 드나들던 포리, 그리고 '포리호사건'	김지형(경기대 강사), 주혁(상임위원)
Ⅵ-4 미산감리교회, 성산중학원, 포리초등학교의 어제와 오늘	김보영(한국역사연구회 연구원)

『시흥시 신현동지』는 주민들의 삶과 궤적입니다

주혁 상임위원과의 인터뷰

"『신현동지』에서는 편집상에서 다양하고 쉽게 읽혀지도록 노력했다고 보면 좋을 것입니다."

『시흥시 신현동지』(이하 『신현동지』) 발간의 의의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동지 발간의 전 과정을 책임졌던 입장에서 몇가지만 언급해 보겠습니다. '대중성 강화', '지역과의 구체적인 관련성 강조', 마지막으로 현지조사 방법에서 '개별조사와 공동조사를 함께 실시했다는 점' 등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대중성 강화'라는 측면에서 기존의 향토지들의 대부분이 서체, 사진배치 등 편집상에서 구태의연한 면이 많았던 것에 비해, 『신현동지』에서는 편집상에서 다양하고 쉽게 읽혀지도록 조금 노력했다고 보면 좋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관공서 냄새가 덜 나도록 신경을 썼습니다. '지역과의 구체적인 관련성을 강조하는 면에서는 먼저 책의 목차만을 놓고 보더라도 신현동의 구석구석이 드러날 수 있도록 배려했고' 서술내용에 있어서도 일반론적인 언급은 가급적 피했습니다.

이번에 『신현동지』를 발간하면서 역점을 두신 것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다른 동지와의 비교를 통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향토지는 그 안에서 살았거나 살고 있는 주민들의 삶과 그 궤적이 생생히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덧붙여서 향토지의 서술내용은 학자들끼리만 공유하는 '전문 조사서로서의 품격'만을 고집하거나, 내용의 질과 상관없이 '발간 자체에만 의의'를 두는 경향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합니다. 물론 『신현동지』에서 욕심을 낸 만큼 그것을 제대로 담아냈는지는 자신할 수 없습니다.

기존에 나온 각각의 읍면동지는 각각의 특징을 드러내면서 그 지역의 전체상을 나름대로 담고 있습니다.

다만 몇몇 읍면동지의 경우 목차가 총론, 정치, 경

제, 사회, 문화 등 매우 커다란 항목으로 설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공감하기 힘듭니다. 이런 항목 설정으로는 구체적인 지역성을 담보하기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중앙에서 불어오는 중앙사적인 시각과 방법론이 자기 지역 고유의 전통과 색깔을 담아내는 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다른 동지와 달리 부록을 제작하셨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기존에 나온 동지 중에서도 본책 맨 뒤부분에 부록을 모아둔 예는 없지 않았습니다. 다만 신현동지의 경우 부록을 별권으로 묶어서 냈다는 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신현동지가 나왔다고 해도 신현동의 모든 것을 밝혀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현동의 역사는 새로운 자료를 통해 새롭게 구성되어야 할 것이고, 동 자체의 변화도 앞으로 급속도로 진행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마을 · 읍 · 면 · 동 아니 더 큰 생활권역을 대상으로 한 향토지가 그 내용을 보다 충실히 하고 해당 지역민의 다양한 삶과 문화를 폭넓게 담아내려면 내용에 걸맞는 충분한 자료를 얼만큼 확보하는가에 달려있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보면 동지 자체보다는 부록에 수록된 내용의 질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신현동지』에 수록된 내용 중 새로운 것이 있다면 소개해 주시고 그 의미에 대 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새롭게 무엇을 밝혀냈는가는 한마디로 이야기하기 곤란하지만 그래도 새로운 사실이라고 언급할 수 있는 부분은 현 시흥 제일의 곡창지대인 호조벌과 관련된 것을 들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18세기 후반 정조의 화성행차와 관련하여 호조가 주관하여 호조벌을 조성한 것으로 알려져 왔지만 그 이전부터 이 일대에 제언이 있었으며 정조대 이전에 이미 넓은 들판이 있었음이 고지도 등을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이외에 창녕 성씨 집안의 성세장(成世章)의 지석이 문화재적 가치가 매우 높고 사료상으로도 주목할 만 하다는 것이 거듭 확인되었습니다.

민속과 관련해서는 신현동의 생업기반 중 하나가 어업이었는데 이와 관련된 당제와 민간신앙이 아직도 넓게 분포하고 있다는 사실도 현지조사 과정에서 알 수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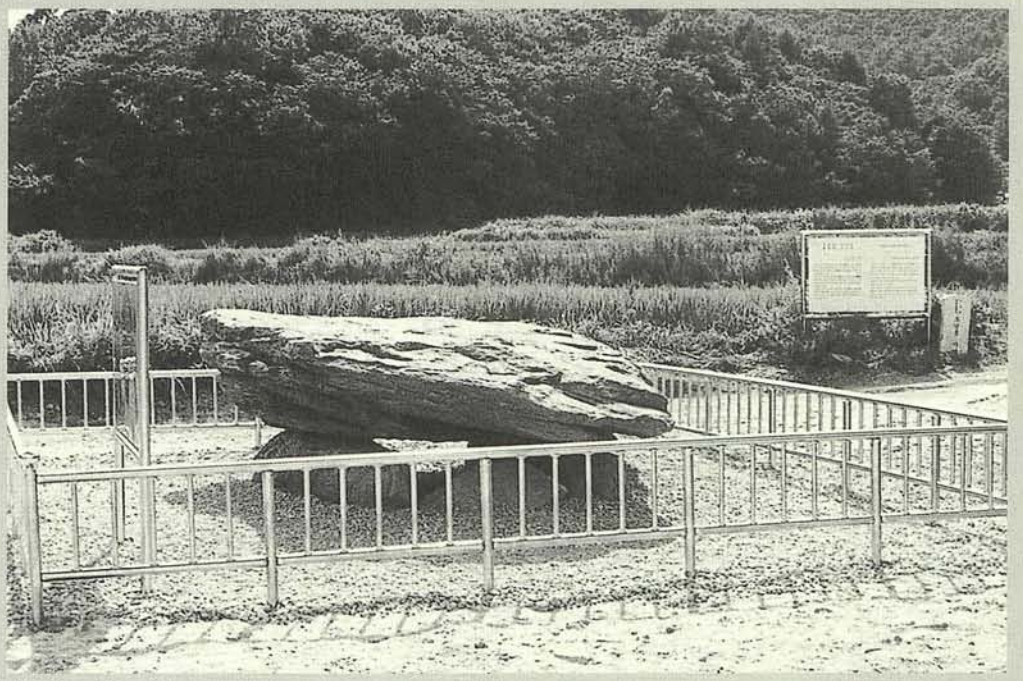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현재 신현동은 개발 바람을 안고 많은 아파트와 공장이 건립되는 가운데 개발과 환경보존이라는 진통을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신현동지』를 기획에서 발간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총괄하면서 느꼈던 보람과 함께 아쉬움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무엇보다 가장 큰 보람은 내가 왜 향토지 안에서 혹은 향토사학계 안에 있어야만 하는가라는 질문을 나 자신한테 더 깊게 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신현동지를 만들었던 1년 4개월 간의 시간이 저에겐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동지 발간과정에서 아쉬움이 있다면 보다 많은 문헌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했고 부록에 전근대 시기의 자료가 빠진 부분입니다. 혼자서 22명의 필자관리는 물론 전 과정을 총괄하다보니 어떤 항목에 참고할 자료가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참고하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

또한 부록에서도 자료집으로서 불충분하게 끝난 것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향후 추가조사와 보완작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복원된 조남동 지석묘

시흥시의 지석묘

시흥시의 지석묘(支石墓)를 소개한다. 시흥시에서 확인된 지석묘로는 조남동 지석묘, 계수동 지석묘, 군자동 지석묘 1호~4호, 조남동 장자터 지석묘 1호~4호 등이 있으며, 이 중에서 현존하는 지석묘는 조남동 지석묘와 계수동 지석묘뿐이다. 지석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등 다방면에 걸친 학술적 정보를 고고학자들에게 제공해 주고 있어 우리가 보존해야만 할 가치 있는 민족의 문화유산이다. 최근 시흥시와 한양대박물관에서 발행한 발굴조사보고서 『始興市 鳥南洞 支石墓』와 『始興市 桂壽洞 支石墓』를 요약 정리하였다. 〈편집자 주〉

1. 지석묘란 무엇인가?

지석묘란 입석(立石), 석상(石像), 석관묘(石棺墓) 등과 같은 거석문화의 하나로 세계적으로 널리 분포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고인돌(Dolmen)이라고 부르는 선사시대 유물이다. 지석묘는 세계적으로 유럽의 지중해 연안과 흑해 연안, 북아프리카, 중앙아프리카, 서남아시아,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대만, 한국, 일본, 산동 및 요동반도를 연결하는 지역에 많이 분포하고 있으며 남미의 콜롬비아 등지에서도 발견된다. 그런데 그 중에서 양이나 밀집도 면에서 가장 많은 지석묘가 분포하는 지역이 다름 아닌 바로 우리나라이며 특히 전라남도 지역에서 많이 발견되고 있다.

지석묘는 형태상 다음과 같은 네 종류로 대개 분류하는데 첫째 지상에 네 개의 판석(板石)을 세워 그 석실(石室)로 지상의 묘실(墓室)을 삼고 그 위에 덮개석을 얹은 북방식, 둘째 네 개의 낮은 굄돌을 놓고 그 가운데 땅을 파 지하에 묘실을 만든 후 덮개석을 얹은 남방식, 셋째 땅을 파서 지하에 묘실을 만들고 판석이나 굄돌이 없이 그냥 덮개석을 얹은 개석식(蓋石式), 넷째 판석이나 굄돌을 5~8개 정도 둘러 석실을 만들어 묘실로 삼고 그 위에 덮개석을 얹은 위석식(圍石式) 등이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형태적인 분류는 지역적으로 보면 한강을 중심으로 북쪽으로 올라갈수록 북방식이 많이 발견되고 남쪽으로 갈수록 남방식의 밀도가 높아진다. 전라북도 고창(高敞)에서도 북방식이 발견된 예가 있지만 그 수가 많은 편은 아니며 개석식은 한반도 전역과 요동반도에서 많이 발견된다. 위석식은 한국 남부의 영산강, 보성강, 낙동강 유역과 제주도에서 발견되고 있으며 일본과 동남아시아에서도 다수 발견된다.

그러면 이 지석묘는 누가 무엇을 목적으로 만든 것일까? 우선 지석묘는 거대한 암석을 그 재료로 하기 때문에 그것을 축조하는 과정에서 많은 수의 노동력과 거대한 돌을 다루기 위한 숙련된 기술 및 도구가 필요하다. 지석묘 축조에 쓰인 암석은 주로 화강암이나 편마암 등이 쓰였는데 평안남도 개천군, 전라남도 광주 충효동, 나주 판촌리 등의 지석묘 부근에서 발견된 채석장은 지석묘로부터 가깝게는 500m에서 먼 곳은 10㎞나 떨어진 곳에 있다고 한다. 수십 톤에 달하는 암석을 거대한 암반에서 채취하는 일도 일이려니와 그것을 이렇게 먼 거리까지 운반하는 일 또한 쉬운 일이 아니었음이 분명하다. 현재까지 고고학자들의 연구성과를 종합하면 약 1톤의 무게를 갖는 덮개석을 열지어 뉘어 놓은 둥근 나무 위에 올려놓고 옮기는 데에 대략 10명 정도의 성인이 필요하다고 한다.

이것을 한국의 지석묘에 적용해 보면 예를 들어 전라북도 고창의 운곡 21호 지석묘의 경우 그 무게가 297톤이므로 297×10명=2,970명, 즉 약 3000명 정도의 성인 장정

이 동원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들 성인 1인이 한 가구를 구성하고 있고 한 가구의 인구가 평균 5명 정도였다고 가정했을 때 당시 운곡 21호 지석묘가 있었던 지역에는 대략 1만 5,000여 명의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었을 것이다. 또한 그 지석묘의 주인은 최소한 1만 5,000여 명의 인구를 통솔하면서 자신 혹은 자신의 일가를 위해 이런 지석묘를 축조하는 데 3,000명 정도의 인원을 동원하고 그들을 먹일 수 있는 경제력을 장악하고 있는 통치권력자였음에 틀림없을 것이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지석묘를 그것의 축조에 강제로 성인의 노동력을 동원할 수 있는 정치권력을 가지고 평민들의 물질적 재부(財富)를 독점한 권력자나 지배자의 무덤으로 보는 것이다.

이러한 지석묘를 통해 현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지석묘에서 발견되는 토기나 갈돌, 반월형 돌칼, 토기의 벽면에 남아 있는 곡식자국 등으로 판단해 볼 때 당시 사회는 벼농사 등으로부터 얻어지는 잉여 경제력을 바탕으로 상당한 노동력을 수용할 수 있는 사회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러한 잉여 생산물을 바탕으로 전문기술자들이 식량의 생산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암석의 채석이나 운반, 토기 및 청동검 등 부장품 제작에 동원될 수 있었다. 즉 지석묘는 지배자 가족의 무덤이며 이 지석묘의 집단적 분포는 지배자가 지배하는 영역의 범위와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아무튼 한국 선사시대의 대표적인 유물 가운데 하나인 지석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등 다방면에 걸친 학술적 정보를 고고학자들에게 제공해 주고 있어 우리가 보존해야만 할 가치 있는 민족의 문화유산인 것이다.

2. 시흥시의 지석묘

(1) 조남동(鳥南洞) 지석묘

경기도 중서부에 위치한 시흥시는 오이도(烏耳島) 패총(貝塚)의 발견으로 일찍이 선사시대부터 인간이 거주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군자산(君子山)이나 운흥산(雲興山) 기슭에서 무문토기(無文土器) 조각이 수습되었고 조남동(鳥南洞)이나 계수동(桂壽洞)에는 청동기시대의 지석묘가 남아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지역이 역사적으로 우리 민족의 주요한 활동무대였음이 밝혀졌다. 시흥시는 1989년 시로 승격된 이래 면적이 많이 축소되는 과정에서 관내에 소재한 문화유적의 수가 상대적으로 줄어든 반면 공단과 택지개발의 증가로 인해 지역주민의 문화적 욕구는 날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러한 이유로 시흥시에서는 1985년 발견되어 지금은 경기도 기념물 제103호로 지정된 조남동 지석묘 주위를 정비하여 공원화할 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우선적으로 지석묘와 그 주변지역에 대한 정밀학술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1999년 6월 25일

복원 전의 조남동 지석묘

지석묘의 복원 장면

계약을 체결한 후 6월 28일부터 작업에 들어가 7월 20일 발굴조사를 완료하고 8월 9일까지 복원작업을 실시하였으며 그 작업에는 주로 한양대학교와 한서대학교 학생들에 의해 조사가 진행되었다.

이 지석묘의 서남쪽에는 마산(麻山 ; 246.2m), 북서쪽에는 물왕(物旺)저수지와 운흥산(雲興山 ; 204.5m), 그리고 동쪽에는 멀리 수암봉(秀岩峰 ; 395m)이 위치하고 있다. 남쪽의 안산시(安山市)와 경계를 이루는 마산의 여러 산줄기 중 북동쪽을 향한 세 갈래의 산줄기 사이로 '안골'과 '허가마골'로 불리는 두 개의 작은 계곡이 형성되었는데 현재는 모두 논으로 경작되고 두 계곡이 만나는 지점에 지석묘가 위치하고 있다. 조남동 지석묘가 위치한 곳은 해발 34m가 되는 곳으로 과거에는 지석묘 주위에 큰 복숭아나무와 빨래터가 있어 사람들의 이용이 많았으나 지금은 논으로 경작되면서 주변지형이 많이 변화하여 논길만 남게 되었다고 한다.

지석묘의 조사를 위해 우선 지석묘 주위에 남북 방향으로 트랜치(발굴을 위해 수직으로 파 내려간 구덩이)를 설치하고 발굴을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지석묘는 북동쪽으로 기울어진 상태였고 북쪽 지석은 완전히 땅에 묻혀 있었으며 남쪽과 동쪽의 지석만이 일부 노출되어 있었다. 덮개석은 장축 410㎝, 단축 296㎝에 높이가 83㎝의 크기였으며 재질은 섬록편마암(閃綠片麻巖)이고 무게는 약 17톤에 달했다. 덮개석에는 돌을 갈아 파 들어간 둥근 홈인 성혈(性穴)이 23개 있었는데 이는 조상숭배사상의 한 형태인 난생설화(卵生說話)와 관련이 있는 것이다. 받침돌인 지석은 남쪽과 북쪽이 각각 246×92×48㎝, 233×62×90㎝로 재질은 조장편암(曹長片岩)이었고, 재질이 다른 것으로 보아 지석묘 축조 당시의 것이 아닐 가능성이 큰 동쪽의 지석은 84×24×82㎝의 크기에 휘록

암(輝綠岩)으로 만든 것이다. 그리고 서쪽의 지석은 유실되어 알 수가 없다.

이 조남동 480번지의 지석묘는 덮개석의 크기가 4m가 넘는 대형 북방식 지석묘로 학계의 주목을 받아왔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석묘에서는 이후 혼입된 자기편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하부구조나 유물이 발견되지를 않았다. 이것은 주변의 트랜치 조사에서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17톤이나 나가는 덮개석으로 보아 축조 당시 이 지석묘 주인의 영향력을 가늠해 볼 수는 있다. 또 시흥시 주변지역인 의왕시, 광명시, 안산시, 군포시, 안양시 등의 지석묘에서 다양한 형태의 하부구조가 확인된 것으로 보아 이번 조남리의 경우도 비록 유적이 발견되지는 않았으나 이들 주변지역과의 비교연구를 통해 수백 년 간 지속되었던 청동기시대 문화재의 전반을 복원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되었다고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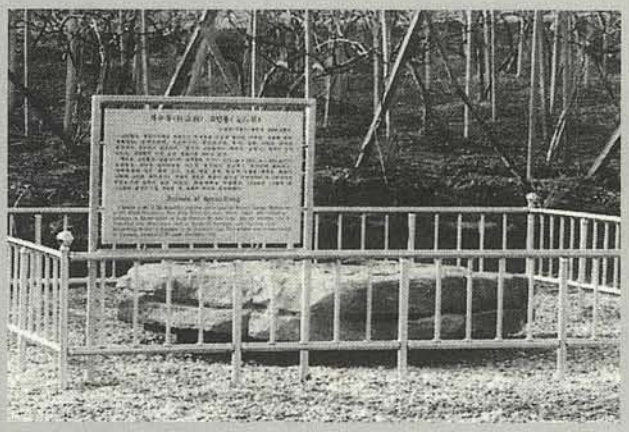
(2) 계수동(桂壽洞) 지석묘

계수동 지석묘는 비교적 큰 규모의 남방식 지석묘로서 위치는 시흥시 계수동 안골마을의 서쪽에 위치한 야산(해발 69m)의 동쪽 능선 끝자락(해발 26m)으로 계수초등학교에서 안골마을로 들어오는 입구 오른편에 자리잡고 있다. 안골마을의 북서쪽으로는 1.8㎞ 거리에 해발 148.3m의 할미산이 있고 동남쪽으로는 1.6㎞ 거리에 해발 150m의 양지산(陽支山)이 위치하고 있다. 지석묘가 위치한 지역은 포도밭이나 콩밭으로 경작되고 있는 등 주변환경이 과거의 지형과는 많은 변모가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며 발굴작업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이 일대에는 도로건설작업이 진행 중이었다.

이 지석묘의 덮개석은 재질이 호상편마암(弧狀片麻巖)으로 315×262×55㎝의 크기로 전체적인 평면의 형태는 마름모꼴이며 장축(長軸)의 방향이 안골마을 앞의 남쪽에서 북쪽으로 흐르는 개천방향과 일치하였다. 덮개석 아래에서는 3개의 지석이 확인되었는데 서쪽의 지석은 녹리석편암(綠泥石片岩)이고 북서쪽과 북쪽의 지석은 덮개석과 같은 호상편마암(弧狀片麻巖)이었다.

따라서 서쪽에 위치한 지석은 아마도 후대에 혼입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발굴결과 하부구조의 상층이 교란되고 폐비닐이나 백자조각 등이 출토되는 것을 감안하면 동쪽과 남쪽의 지석은 일찍이 유실된 것으로 보인다.

지석묘와 관련된 문화층의 존재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지석묘 주변지역에 트렌치를 설치하고 조사를 실시했으나 문화층은 확인되지 않았고 다만 서쪽 부분에서 백자조각, 회색토기조각, 무문토기조각 등이 출토되었으며 서쪽 개울 건너편의 파밭에서 마제석착(磨製石鑿)조각과 무문토기조각이 수집되었다. 그리고 발굴조사 과정에서 이 지석묘로부터 동남쪽 500m 떨어진 야산 구릉지대에서 3기의 지석묘가 새로이 확인되었고 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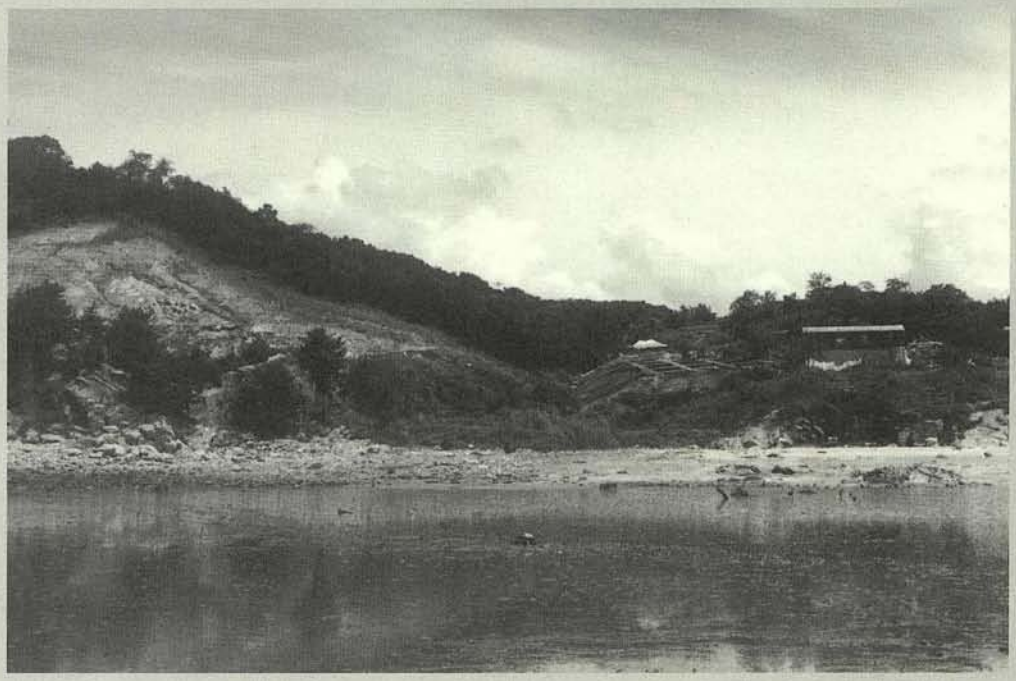
복원 전의 계수동 지석묘묘

서남쪽에서 바라본 계수동 지석묘

곳에서도 마제석착과 무문토기편이 출토되었다

이상의 결과로 보아 계수동 지석묘가 발견된 안골마을은 청동기시대에 사람들이 거주하는 취락지가 형성된 곳으로 여겨진다. 이 지석묘는 시흥시 조남동 및 인근 도시의 지석묘들과 함께 한강유역의 역사 초기 정치집단의 등장과정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니는 고고학적 유물이다. 시흥시를 포함한 한강유역은 역사 초기 진국(辰國)과 삼한(三韓)시대의 마한(馬韓)이 위치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초기 철기시대나 삼국 초기에 해당하는 고고학적 유물이 보고된 사례가 없다. 그러나 조남동과 계수동의 지석묘가 축조된 것을 감안하면 시흥지역도 청동기시대부터 어떤 소규모의 지역 정치체제가 형성되었을 것으로 생각하며 이들 한강유역의 정치집단들은 하남(河南) 위례성(慰禮城)에 자리잡은 한성시기 백제에 일찍이 통합되었을 것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고고학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이상의 두 지석묘는 파괴된 채로 계속 방치되고 있었으며 최근에는 도로건설이나 개간 등의 결과로 없어질 위기에 놓여 있었다. 따라서 이번 한양대학교 박물관에 의한 정밀 학술조사를 거친 후 최대한 원상태로 이 지석묘들이 복원된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지석묘 복원 공사 후 지석묘 내부에는 유적명칭, 문화재 지정번호(조남동의 경우 경기도기념물 제103호로 지정), 소재지, 발굴조사 및 복원기관, 발굴경과 및 조사내용, 복원위치(계수동의 경우 도로건설구간을 피해 현위치에서 정서로 36m 위치 이동) 등이 담긴 복원기를 삽입하고 주변 지역은 보호철책 및 자갈 등을 깔고 안내판을 설치함으로써 학습교육의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오이도 가운데살막패총 전경

오이도 가운데살막패총 발굴조사약보고

글 · 서울대학교인문학연구소

지난 1999년 8월 17일 11시 시흥시 정왕동 오이도 가운데살막패총 발굴현장에서는 백청수 시흥시장을 비롯하여 학계, 문화계, 언론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대학교 발굴조사단의 현장설명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발굴조사에서는 1,000여 점의 유물이 확인되어 우리나라 신석기문화를 이해하는 데 새로운 자료가 제시되었다는 것이 학계의 평가였다. 설명회 자료를 게재한다. 〈편집자 주〉

오이도 가운데살막패총 발굴현장

1. 머리말

경기도 시흥시의 오이도는 섬 전체가 패총으로 덮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서해안 신석기시대의 대표적인 유적 중의 하나이다. 최근 한국수자원공사에 의해 오이도회주도로 건설계획이 수립되어 패총의 일부 지역이 훼손되게 됨에 따라, 그에 앞서 긴급구제발굴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이번 발굴조사의 대상은 오이도 남서부지역으로 오이도 주민들은 이곳을 '가운데살막' 이라고 부르고 있다. 패총은 나지막한 구릉의 완만한 경사면을 따라 형성되어 있는데 모두 세 개 지점에서 확인되었다. 이 중 두 지점은 이미 자연유실 및 주민들에 의해 훼손되어 패각의 일부만 남아 있었으며, 한 지점만이 비교적 양호한 상태로 남아 있었다.

2. 조사경과

오이도패총에 대한 학술조사는 1960년부터 시작되었으며, 1988년과 1994년 서울대학교박물관팀에 의해서 발굴조사가 실시되었다. 오이도는 섬 전체가 패총으로 이루어졌다고 할 정도로 패총이 곳곳에 분포하고 있다. 이 패총들은 대체로 만(灣)이 형성된 포구 주위에서 확인되는데, 크게 북부지역패총군, 남서부지역패총군, 남부지역패총군으로 구분된다.

남부지역패총군(신포동A패총 · 신포동B패총)에 대한 조사는 1988년과 1994년 두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는데, 이 곳에서는 야외노지 3기를 비롯하여 많은 양의 빗살무늬토기 및 석기, 골각기가 출토되었다. 신포동패총 출토 토기류는 주변지역 출토 토기류의 문양모티프 변천을 고려해 볼 때 신포동A패총은 신석기 중기 후반에, 신포동B패총은 신석기 후기의 1기인 시도기(矢島期)에 속하며 절대연대는 BC 3,500~BC 1,500년 사이에 해당된다.

이번에 발굴조사한 '가운데살막패총' 은

수혈주거지 전경

오이도 남서부지역패총군으로 모두 3개의 패총이 확인되었다. 주민들에 의해 주차장으로 사용되면서 크게 훼손된 남쪽의 패총을 '가패총', 양호한 상태로 남아있는 가운데의 패총을 '나패총', 나패총 북쪽의 계곡 건너편 구릉상의 패총을 '다패총'이라고 편의상 구분 명명하였다.

가운데살막 '가패총'은 이미 대부분이 파손되어 패각의 일부만 단면상에 남아 있을 뿐이다.

'나패총'은 패각이 비교적 잘 남아 있는 곳으로, 패총이 형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전 지역을 전면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방격법(方格法, Grid Method)으로 굴토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방격법은 굴토과정상 시간과 인력이 많이 소요되는 난점이 따르지만, 평면적인 맥락과 층위적인 맥락을 비교적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발굴방법이다.

우선 5×5m의 방격(方格, Grid)을 구획하고 난 뒤, 방격의 서쪽과 북쪽에 각각 폭 1m의 둑을 남겨 굴토하였다. 따라서 각 방격당 실제 굴토한 면적은 4×4m가 된다. 패총을 발굴할 때 사방 4m의 방격은 층위적 맥락을 파악하는 데 다소 넓은 감이 없지 않으나, 각각의 패각더미를 확인하는 데 있어서는 평면적 맥락을 파악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사방 4m의 방격을 구획하였다. 그러나 다소 넓은 방격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다시 각 방격을 4등분하여 4개의 구역(pit)으로 나누어 굴토하였다.

굴토결과, 패각은 평면상 총 23개의 방격 중 17개의 방격에서 확인되었으며, 층위상으로는 4개의 층(II층 · III층 · IV층 · V층)으로 나누어진다. II층(암갈색 혼토패층)과 III층(잘게 부서진 황색패층)에서는 철제품과 함께 후대의 토기편이 나오고 있어 재퇴적된 것으로 보이며, IV층(순패층)과 V층(혼토패층)에서는 빗살무늬토기만이 확인되고 있어 이 두 층이 신석기시대 패각층임을 알 수 있다. 특히 V층은 상면에만 패각이 얇게 깔

곽대순 전 요녕성문화청장(가운데) 현장지도

려 있으며, 유물 또한 이 상면에서 집중적으로 출토되고 있는 점에서 V층은 패총이 형성 당시의 구(舊) 지표임을 알 수 있다.

현재 모두 12개의 패각더미가 평면상에서 확인되는데, 이 패각더미 하나하나는 신석기시대 조개채취집단 내 소집단(예를 들면 가족 등)의 수 혹은 조개채취를 위해 계절에 따라 이곳을 얼마나 반복적으로 점유했는가 등 신석기시대의 서해안지역 주민들의 생계전략 연구에 대한 귀중한 자료라 여겨진다.

한편 V층 상면에서 야외노지로 추정되는 유구 4기가 확인되었는데 그 중 2기는 지름 약 1m 가량의 원형으로 재가 구(舊) 지표 위에 얇게 쌓여 있었으며, 나머지 2기는 약 15cm 정도의 깊이로 땅을 파고 불을 지핀 후 수십 개의 할석을 얹혀 놓은 적석의 형태로 지름은 약 1m 내외이다. 이러한 적석의 노지는 이미 조사된 신포동패총에서도 3기가 확인된 바 있으며, 영종도, 시도, 삼목도, 암사동, 오산리 등 신석기시대 유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이다.

'다패총' 인 경우 패각 내에서 빗살무늬토기와 함께 후대토기가 섞여 나오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재퇴적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다패총'의 패각 아래에서 말각방형의 수혈주거지 3기가 확인되었다. 수혈주거지 3기 모두 구릉사면을 삭토하여 만들었는데, 세 벽면은 삭평되어 위쪽의 한 벽면만 남아 있다. 수혈주거지 3기 중 1기(2호 주거지) 내부에서 60×40cm의 타원형의 화덕이 확인되었다.

한편 가운데살막패총 남쪽의 도로편입부지(라지역)에 대한 지표조사 및 시굴조사도 실시하였다. 이곳은 대부분 이미 인가가 들어서 있거나, 백사장 혹은 해안절벽으로, 시굴트렌치를 설치 굴토한 결과 별다른 유구나 유물은 확인되지 않았다.

출토유물 각종

3. 출토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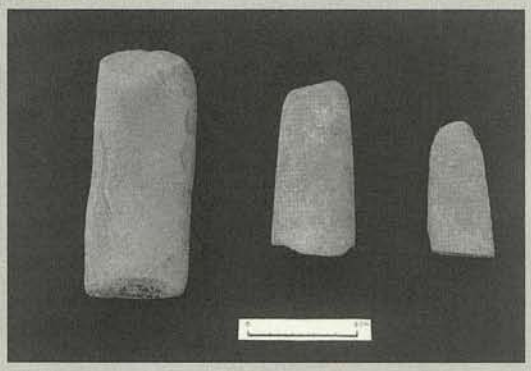
이번 조사에서는 빗살무늬토기편과 석기류 등 모두 1,000여 점이 확인되었다. 빗살무늬토기는 대체로 첨저형(尖底形)으로 구록부(口緣部), 기복부(器腹部), 저부(底部)를 나누어 문양을 시문한 '구분계 빗살무늬토기'로 구연부에는 조문(爪紋), 점열문(點列紋), 단사선문(短斜線紋) 등을, 기복부에는 단치종주어골문(短齒縱走魚骨紋), 단치횡주어골문(短齒橫走魚骨紋), 다치횡주어골문(多齒橫走魚骨紋) 등을 시문하였다. 그리고 태토는 점토질이 대다수이지만, 사질태토 및 태토에 석면, 운모, 장석 등을 혼입한 것도 상당수 확인되었다. 이러한 양상은 토기 표면 전면에 다치횡주어골문을 시문한 빗살무늬토기가 주류를 이루는 기존의 서해도서지방의 신석기시대 유적들과는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오히려 문양모티프나 태토상으로 볼 때 한강유역의 중부 내륙지방 빗살무늬토기와 유사한 점이 많다.

또한 지난 8월 4일 본 유적을 방문한 중국 신석기문화 연구가인 곽대순(郭大順) 전(前) 요녕성문화청장(遼寧省文化廳長)은 이 곳 출토 토기가 중국 동북지방의 황해 연안지방, 특히 소주산(小珠山)유적 하층문화 출토 토기와 유사하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양상을 고려하면 금번 발굴조사에서 확인된 유물들은 황해를 둘러싼 한반도 서해안, 중국의 산동반도 및 동북해안과의 문화적 관련성을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라 생각된다.

한편 석기는 3점이 확인되었는데, 모두 반파된 상태로 수습되었다. 그 중 1점은 날을 갈아 만든 석부이며, 나머지 2점은 그 용도가 불확실하다.

4. 조사성과 및 의의

이번 발굴조사에서는 수혈주거지 3기, 야외노지 4기를 위시하여 빗살무늬토기편과



석기 각종

석기류 등 1,000여 점의 유물이 확인되어 우리나라 신석기문화를 이해하는 데 새로운 자료가 제시되었다. 그 성과를 요약하면,

첫째, 지금까지 신석기시대 후기로 편년되는 다치횡주어골문을 찰과상으로 시문한 '동일계 빗살무늬토기' 중심의 기존 서해도서지방 신석기시대 유적들과는 달리, 이곳에서는 신석기시대 전기적 요소를 보이는 '구분계 빗살무늬토기' 중심의 토기들이 확인됨에 따라 서해 도서지방의 신석기문화 편년에 있어 새로운 자료가 제시되었다. 또한 문양모티프와 태토상으로 볼 때 한강유역의 중부 내륙지방 유적들과 많은 유사성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이 지역과의 문화적 관련성에 대한 구체적 자료가 제시되었다.

둘째, 이번에 출토된 토기들 중 일부는 중국의 황해 연안지방 신석기시대 유적의 출토품과 많은 유사성을 보이고 있어 이른바 환황해문화권(環黃海文化圈) 연구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자료가 될 것이라 사료된다.

셋째, 패총의 층위적 양상뿐만 아니라 패총 내 각각의 패각더미가 확인됨에 따라 당시의 조개채취집단의 생계전략 연구에 대한 기초적인 자료가 확보되었다.

끝으로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오이도패총은 서해안 신석기시대 유적을 대표할 만큼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점에서 오이도 내에 패총유적공원을 조성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다. 오이도 내 3개의 패총군 중 가장 규모가 크고 현재 비교적 양호한 상태로 남아있는 북부지역패총군을 중심으로 패총유적공원을 조성하여 이미 유적공원으로 조성된 서울의 암사동유적과 유적공원 건립을 추진중인 동해안의 양양 오산리유적, 그리고 발굴조사가 진행 중인 남해안의 부산 동삼동유적 등과 함께 우리나라 신석기시대를 대표하는 유적의 하나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석장생(石長柱)*

노순례 · 매화동 삼우주택

지루했던 여름이 쓸려 가고
외톨박이 되어버린 들녘이다.

후두두둑
후두둑

을씨년스럽게 내리는 가을비에
널브러진 볏짚들이
화들짝 깨어나
몸을 뒤틀며 흔들고 있을 때

내 귓바퀴 언저리에
용트림이 시작되었다.

"헬로우"
목소리나 솜이불 꺼지 듯

푹 가라 앉아 있었다.
목을 축인 커피 한 모금,
뒤엉켜
가슴 밑바닥을 샅샅이 훑어 내리지만
그 위력은 나를 굴복시키지 못했다.

신음하는 수화기는
남은 말을 집어 삼키고
아쉽게 파장한다.

굵어지는 빗방울이
석장생이 된 나를
볼썽사납게 쪼아대고 있다.

*석장생 : 돌로 만든 장승

그 겨울의 물왕저수지

이숙 · 계림동

택시에서 내리니
늙은 총독이 악수를 청한다
그의 갈고리 같은 손에 잡혀
관저로 들어서니
일찍 도착한 외국 귀빈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온다
테이블에 앉으니
통 유리 너머로
상처 입은 잿빛 커다란 비둘기를 닮은
광장이 보이고
저 멀리에 몇 겹으로 쌓아 올린
성곽이 광장을 내려다보고 있다
그 밑으로 관을 닮은 성채들이
우울하게 서 있다
이상도 하지
내가 가지고 있는 지도에 이런 식민지가 있었다니
여기 연회장은 햇솜처럼 따뜻한데
저 바깥에 얼음 기둥이 되 버린 병사들 좀 봐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크로노스*의
발자국 소리가 사방에서
바람이 되어 불고 있어
크로노스 크로노스 크로노스
가슴이 허기로 아파 오고
따끈따끈한 밥에 열 가지도 넘는 나물을 넣어
내가 나를 먹고 그가 나를 먹고
내가 그를 먹고 관저를 나오니
늙은 총독의 오래된 우물 같은
두 눈에 눈물이 맺히고
기어이 떨어지기 시작한 겨울비
그 겨울의 물왕저수지

*크로노스 : 희랍신화에 나오는 시간의 신(神)

낙엽

이향란 · 매화동 서능아파트

길옆 모퉁이 돌아서면
스산함이 온 몸을 감싼다.
버림 받았다는 것에,
배신 당했다는 것에,
턱밑까지 차오르는 분노를 짓누르며
애꿎은 허공만 향해
원망의 화살을 쏘아댄다.
몸부림치며 피를 토해낸 듯한
검붉은 얼굴로
스스로 자신을 자해하듯
창백다 못해 노란 얼굴로
사람들의 시선을 잡아두며
지어미의 모질음을 스산함으로 토해낸다.
자식을 버린 죄책감에
산고의 고통보다 더한 자기 학대 속에
실오라기 하나 걸칠 수 없는 휘청거림으로
속죄의 깊은 잠 속으로 빠져든다.

이루지 못할 삶이라면 몰라도

장연희 · 매화동

그대가 뿜어내는 언어에 취했습니다. 그 색깔, 소리, 향기에 아득해지며 신비한 그대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러고 보니 거울 속에도 목련꽃이 피었더랬습니다. 그대의 언어는 질서와 조화의 선입관을 초토화시키는 바이러스처럼, 보들레르처럼, 꽃처럼 그리고 랭보처럼 서럽습니다.

이루지 못할 삶이라면 몰라도, 이루지 못할 사랑이야 있겠습니까? 검은 구름이 막 소나기 한차례 뿌리고 지나갔습니다. 고통의 정수 지나 사랑에 이르시기를 바랍니다.

차단

차정림 · 매화동 제성아파트

윤유월 오후 3시
오수에 침몰하여 늙은 짐승처럼 누워있다
높다란 창문을 뚫고 들어온 투명한 기둥에
옆구리를 찔려 몸을 일으켜 세운다

서둘러 길을 나서면
넓게 난 길게 뻗은 백색의 포도(鋪道) 위를 걷는다
길옆으로 사루비아는 끝없이 늘어서 있다

'엘리뇨' 에 떠밀려 온 저 태양은
미친 이집트 독수리
나의 머리통을 쪼아댄다
속살을 파헤친다
구름조차 피처럼 칼날처럼 붉게 물들어
쏘아보면
백색의 도로엔 뜯겨진 살점이 나뒹군다

그날 난
상처투성이의 박제가 되어
더디 가는 한 여름에 백기를 들었다

분갈이를 하며

김순숙 · 논곡동 산호아파트

일찍 찾아온 더위로 화초들은 축 늘어졌다. 일주일마다 주던 물마저 걸렀더니 흉한 모습이다.

오전에 집안 청소와 빨래를 서둘러 마쳤다. 보일러실에 있던 호스를 베란다로 끌어다 놓고, 화초에 물을 주고 있는데 시이모님이 오셔서 분갈이를 해준단다.

집에 들를 때마다 화초들이 가지런히 자라도록 위치를 돌려놓고, 화분이 작은 것 같으니 분갈이를 해줘야 한다고 걱정을 하시더니, 일을 놔두고 손을 놀리지 못하는 부지런한 분이다. 어머님 돌보기도 힘들 텐데 몸을 잠시도 가만히 안 둔다. 일복이 많은 사람은 어디를 가나 일이 따라 다닌다더니 이모님을 보면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게 된다.

모자라는 흙은 아파트 화단에서 퍼오고, 창고에서 화분을 내어주고 한참 물을 뿌려주고 있는데 이모님이 부르신다. 가서 보니 화분에서 화초가 나오질 않아 애를 쓰고 계셨다. 분갈이를 한 지가 몇 해 전이던가…. 이사와서 일이 년은 해준 기억이 나지만 그 후론 분갈이는 생각도 안하고 지낸 것 같다.

자란 뿌리가 화분에 꼭 끼여 화초 위쪽을 잡아당기고, 이모님은 화분 밑을 톡톡 두드리길 여러 번 한 후에 겨우 화초가 빠져 나왔다. 좁은 공간에서 뿌리도 못 펴고 엉켜서 어찌 살았을지 미안한 마음이 앞섰다.

중국에서는 전족(纏足)이란 풍습이 있었다. 전족이란 중국에서 여자의 발을 인위적으로 작게 하기 위하여 헝겊으로 묶던 풍습이다. 3~6세에 가로 10㎝, 세로 2~2.5m의 헝겊을 발에 동여매고 엄지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을 발바닥 방향으로 집어넣듯 묶어 조그만 신에 고정시킨다. 발뒤꿈치에서 발끝까지 약 10㎝가 이상적이라고 한다.

발은 자라지 못하고 고통도 심하여 바로 서기, 걷기 등이 모두 불안정하며, 발끝으로 서서 걷는 모양이 되고, 자세도 허리 부분이 튀어나와 팔자걸음을 걷게 된다고 한다.

좁은 화분 안에 뿌리가 단단하게 엉켜 화분이 깨지지 않은 게 신기할 정도였다. 짐작

하건대 전족(纏足)보다도 더한 고통이었으리라. 내심 시이모님 보기가 민망하였다. 조카며느리의 게으름을 탓하셨으리라.

그런데 화초들이 시위하듯 분갈이하는 것마다 화분을 깰 정도로 뿌리들이 꽉 끼여 얼굴을 달아오르게 했다. 화초를 잘 기른다는 얘기를 종종 들은 나였기에 겉모습과는 달리 속으로 앓고 있었던 화초를 대하고는 부끄러웠다.

감추고 싶은 속내를 들켜버린 것 같았기에.

숨조차 편하게 쉬지 못하면서 철마다 꽃으로 화사함을 전해주고, 열매와 싱그러운 잎들로 야속한 주인에게 즐거움을 준 그들의 넓은 마음. 갈라질 듯한 아픔을 견뎌내며 묵묵히 그들을 품어준 어머니 같은 화분이 대견스러워 어루만져 본다. 변덕스러움을 참아주고 잘 자라준 그들이 내 아이들같이 소중하고 정겹다.

음식도 담는 그릇에 따라 더 맛깔스럽게 보이듯 사물이나 사람도 담겨지는 그릇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다. 또 그릇을 때에 따라 옮겨주고 세심한 보살핌을 기울여야 반듯하게 자랄 수 있으리란 생각을 해보았다. 겉모습도 중요하지만 찰옥수수처럼 꼭 찬 속을 지니도록 삶을 다듬어 은은한 향이 베어 나오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다.

넉넉한 집으로 옮긴 화초들은 편안한지 잎도 삐죽거리며 자라고 선인장은 고운 색감으로 꽃망울을 터 창가에 앉아 그들을 바라보는 시간이 늘어만 간다. 일 년에 한 번쯤은 아이들 옷 바꾸어 입히듯 그들에게도 새로운 옷을 준비해야 겠다.

항아리

복연금 · 매화동 동진아파트

그림 동호인들과 함께 강원도 문막에서 야외 스케치를 마친 길이었다.

도자기로 유명한 여주에 들렀다. 항아리와 도자기가 가득한 상점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었다. 한 상점에서 제각각 필요한 물건들을 고르는데, 뚜껑 있는 작은 항아리가 눈에 띄어 두 세트를 샀다.

하나는 책상 위에 올려 놓아 연필꽂이로 사용하고 있고, 다른 하나는 작업대 위에 놓아 유화붓꽂이로 사용하고 있는데 앙증스럽고 귀엽다.

어린 시절을 충청남도 청양 깊은 산골에서 증조부, 증조모가 계신 대가족과 함께 보냈다. 증조할아버지께서는 한약방을 하셨는데 머리에는 상투를 하고 계셨고 하얀 도포를 입으셨다.

여유와 운치를 즐기셨는지, 대나무로 둘러져 있는 뒤곁에는 제법 규모가 큰 장독대가 있었다. 장독대 주위로 수석을 계단처럼 만드셔서 사이사이 보랏빛 도라지꽃과 주황빛이 도는 산나리꽃을 옮겨 심으셨다.

봄이면 장독대 옆에 서있던 앵두나무 꽃이 너무 아름다웠다. 오랫동안 서서 황홀하게 구경했던 추억이 아른거린다.

어른이 된 후에도, 어렸을 때 장독대 주위에서 느꼈던 감정들이 되살아나서 그런지 항아리에 많은 관심과 애착이 생기게 되었다.

여행 중에 만나는 항아리들은 꼭 사진을 찍어두는 습관이 생겼다. 그 사진으로 계절마다 다르게 느껴지는 항아리의 모습을 캔버스에 옮기고 있다. 일명 '항아리' 시리즈인 셈이다.

청기와가 둘러쳐 있는 담장 밑의 항아리 위로 벚꽃잎이 소복하게 깔려있는 풍경, 홍매색 꽃 흐드러진 앵두나무가 심어진 늦봄의 장독대 주변풍경, 함박눈이 두툼하게 내린

항아리 위의 눈이 녹으며 송송 보이는 모습도 아름답기만 하다.

비내리는 날 민속촌에서 만났던 항아리에서는 작은 북 연주 소리를 들었다. 청풍문화재 단지 안에서 만났던 햇빛이 반사된 항아리에서는 주위에 피어있는 난초와 어우러져 청풍명월의 기운을 느꼈다.

여행 중에 항아리의 크기는 주거형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사대부 집안의 장독대에는 제일 뒤쪽부터 대독, 중두리, 작은 항아리 순으로 배치하며 크기, 종류, 모양새의 다양함에 놀랐다. 무슨 용도인지는 몰라도 어른 키보다 더 큰 항아리도 있었다.

그런데 항아리가 유리알 같이 반짝거리는 것은 납을 주성분으로 하는 화공약품인 광명단을 발라 구었기 때문에 표면이 매끄러워 보인다고 한다.

겉만 번지르하고 속에서는 독소를 머금고 있는 것과 같다. 음식을 담아놓으면 음식물에 배어나와 사람의 인체에 해를 입힌다고 한다.

요즘 사람들 속은 어떠하든지 상관 않고 겉모습만 가지고 구분하는 행동이, 반짝이는 항아리와 닮았다는 생각이 든다.

모양새는 볼품없고 투박했지만 음식맛을 결정한다는 된장과 고추장을 항아리에 퍼담으며 보물 여기듯이 대했던 증조할머니의 모습이 이 순간 떠오른다.

부엌문을 통해 건너편에 가지런히 놓여있는 장독대 풍경은 기와집이든지 초가집이든지 상관없이 한 폭의 그림처럼 다가온다. 그런 느낌들이 좋아서 항아리 시리즈 그림은 계속 이어질 것이다.

겨울 산행

이묘숙 · 대아동 청구2차아파트

두꺼운 방한복 속으로 갈퀴를 들이대는 바람에 맞서 옷자락을 마대자루 묶듯이 여며본다. 따뜻한 온기가 꿈틀 살아난다.

유독 바람이 거센 아파트단지를 벗어나 구름다리를 건너 미로처럼 복잡한 길을 따라 걷는다. 몇 번의 시행착오 끝에 겨우 익힌 통행로엔, 양옆으로 세워진 차들이 주차장을 방불케 하고 있다. 시청을 옮기기 전에는 그래도 조금은 활기에 넘치던 거리가 한산하기만 하다. 문만 열었다 뿐 거의 주택의 일부분이 돼버린 상점들이 거리의 붙박이장처럼 보이고, 가끔씩 길을 가는 행인이 그 문을 열고 필요한 물건을 들고 나온다.

양지와 그늘은 어디서나 늘 있게 마련이어서 이곳에도 그늘이 보인다. 시름에 찬 서민들의 한숨이 얼어붙은 빙판길이 되고, 살얼음판 같은 세상에서 넘어지지 않기 위해 조심조심 발길을 내딛는다.

발목이 아파온다. '얼마나 운동을 안 했길래 겨우 15분 가까이 걷고 엄살일까. 남들이 다 흉보겠다. 그러면서 산에 오르겠다고…'

속에서 지껄여대는 수다스런 아줌마의 입을 막는다.

'한 마리 흰 토끼되어 눈 쌓인 소래산에 발자국을 찍고 싶어'

열네 살 소녀가 빨간 볼을 부비며 하늘 끝으로 연을 날린다.

소래산이 바로 코 앞에 보인다. 어느 책에선가 읽은 기억이 난다. 산은 형상에 따라 木星, 火星, 土星, 金星, 水星으로 구분되고 소래산은 火星의 형상을 한 명산이라고 한다. 산수화의 한 폭처럼 푸르고 흰 봉우리가 듬성듬성 끼어들은 바위들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

산 입구에 지어진 사찰을 지나 등산로에 접어드니 드문드문 산행을 즐기는 사람들이 눈에 뜨인다. 겁이 많은 탓일까? 호젓하게 혼자만의 등반코스를 정하지 못하고 올라가

는 사람들의 뒷모습을 따라 걷는다.

길 양옆으로 송백의 향기가 진동한다. 낙엽이 되어 떨어진 솔잎들이 발끝에 채인다. 집을 나설 때의 칼끝 바람대신 양털처럼 따뜻한 온기가 느껴진다. 산에서 부는 바람이 더 순한 원리를 잘 모르지만 풍수지리적으로 보면 명당이라고 부르는 곳은 바람이 순하다고 한다.

'정상 670M' 라고 쓰여진 본격적인 등산로 입구로 접어들었다. 몇 군데의 등산로 중 가장 짧은 거리이지만 가장 험한 코스이기도 하다. 작년 가을 멋모르고 처음 가본 뒤, 힘든 등반 뒤의 뿌듯함을 맛보기도 했었다. 그런데 왜 이리 다리가 아프고 가슴이 쥐어박듯 아픈 걸까. 몇 달 사이에 전보다 더 노쇠해진 육신이 서글퍼진다. 헉헉거리는 숨을 달래며 천천히 한 발씩 정상을 향한다.

산다는 것은 자기와의 싸움인지도 모른다. 가다가 쓰러지는 한이 있어도 시도하고 또 실패해도 도전하고, 그러다 보면 정상이 보이고 승리의 깃발을 손에 쥘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다. 물처럼 흘러 유연하게 구불구불 좁은 길을 벗어나 하늘과 맞닿은 바다로 흘러드는 영혼의 여정이 거기에 있다. 결코 겉으로 드러나는 승리만이 승리가 아니다.

밧줄에 손을 걸고 바위 위로 기어오른다. 이곳이 제일 힘든 지점이다. 다행히 따사로운 겨울 햇살에 눈이 녹아 미끄럽지가 않다. 힘든 코스지만 하루종일 햇빛이 잘 비치는 해바라기 같은 등반로이다. 아래를 내려다보니 꽤 많이 올라 온 것 같다. 힘을 낸다. 누가 일당 주고 하라고 하면 힘들어서 못할 것 같다. 그런데도 굳이 산에 오른 이유는?

오만 가지 이유가 생각난다. 이유 같지 않은 이유들….

어쩌면 머리 속에 엉킨 실타래를 이런 식으로 정리하고 싶어서 일까. 그냥, 산이 있었고 시간이 있었고 그리고 눈이 내렸다. 그걸로 족한 것을.

산 밑에서는 보지 못한 쪽빛 하늘이 바로 이마에 걸려 있다. 하늘을 이고 세상을 굽어보니 세속의 삶이 꿈결처럼 흘러간다. 운무라도 내리는 저녁이면 하늘에서 선녀 옷이 펄럭일 것 같기도 하다. 정상에 오른 자만이 느끼는 외로움이 진하게 밀려온다. 키는 산보다 더 높아졌는데 마음은 산등성이에 떨어진 도토리처럼 작아져 산 이곳저곳을 굴러다닌다. 산의 넉넉한 품이 어떤 것인가를 이제야 조금은 알 것 같은 생각이 든다.

햇살이 잘 닿지 않는 곳으로 어제 내린 잔설이 소복이 쌓여 있다. 가슴이 시리도록 푸르고 맑은 하늘이 포개진다. 그 위에 발자국을 찍는다. 열네 살 소녀가 띄워올린 연이 새하얀 눈 위로 떨어진다. 얼굴이 누런 중년의 여인이 연을 집어 올린다.

農 복합영농을 구현하는 선각영농인

사람은 죽어 흙으로 돌아간다. 흙, 혹은 땅을 일구며 사는 농부는 어쩌면 죽은 사람의 영혼들과 서로 대화하고 위로하며 살기 때문에 가장 숭고한 직업인지도 모른다.

죽율동 9번지에 사는 김중연(67) 씨는 8대째 시흥시에서 논밭을 일구며 사는 토박이다. 주변에서 늘 만날 수 있는 이웃 어른처럼 후덕한 인상을 풍기는 김중연 씨의 직업은 천상 농부다. 군자초등학교 21회 졸업생이고 당시 6년제였던 덕수중상업학교를 졸업했으며, 인천 동산고와 서울대학교 농대를 졸업했으니 농부치고는 학력이 화려하다.

더군다나 농촌지도소에서 10년을 근무했고, 안산중·고등학교에서는 농업과 기술교사로 근무하였고, 시흥군 화훼집하장 운영위원장, 4H 클럽 농촌지도자연합회 시흥시 초대회장 등을 지내 경력도 화려하여 시흥시에서는 선각 영농인으로 통한다.

"농업은 좁은 면적에서 많은 소득을 올려야 하기 때문에 복합영농을 하지 않고서는 생존하기 어렵습니다."

느긋하고 침착한 성격의 김중연 씨는 농업도 이제는 과학적 영농방식을 도입하지 않으면 경쟁력이 떨어져 국가의 기초산업인 농업이 모두 도태될 수도 있다고 강조한다.

김중연 씨가 공직생활과 교사생활 등을 접고 부친의 가업을 이어받아 본격적으로 농업에 종사하게 된 것은 1984년의 일이다. 전국농업기술자협회의 추천으로 1년간 일본에서 연수를 받은 후에는 복합영농의 필요성을 절실히 깨달았다고 말한다.

현재 김중연 씨는 논농사(3,000평), 밭농사(2,000평), 화훼, 양식(잉어 5,000마리, 역돔 30,000마리) 등 총 8,000여 평의 대지를 경작하고 있다. '선기(先起), 선각(先覺), 선행(先行)'을 좌우명으로 삼고 있는 김중연 씨는 유근자(63) 씨와의 사이에 외동딸 김원아 씨를 두고 있으며, 모친인 음재남(88) 여사를 모시고 살고 있다.

뜻을 제대로 세우지 못하는 젊은이들이 많다. 젊은이에게 충고를 해달라는 부탁에 대해 농부 김중연 씨는 '뜻이란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뜻을 향해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한 인간'이라고 대답한다.

낙농업에 신명을 바치는 사람

계수동 482-2에서 대를 이어 낙농업을 하고 있는 원태희(42) 씨는 젖소를 사랑하고 자신의 직업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계수동에는 20개나 되던 낙농업 가구가 있었으나 이제는 원태희 씨만이 고집스레 제자리를 지키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들도 냄새 때문에 일하기를 꺼려하는 직업이지만 20여 년 동안 낙농업에 신명을 바치고 있다.

원태희 씨는 부모님의 권유로 1982년 군제대 후부터 낙농업에 본격적으로 발을 들여놓았다. 중학교에 다닐 때부터 소젖을 짜는 일에 익숙해 있던 터라 일에 대한 거부감은 없었다는 것이 본인의 설명이다.

원태희 씨의 하루를 소개하면 새벽 5시부터 일어나 우유를 짜고 소똥을 치우느라 오전을 보낸 다음, 점심때는 소들에게 사료를 먹인 후, 오후 6시부터 8시 30분까지는 소들의 젖에 착유를 하는 등 가족들과 마음놓고 소풍도 갈 수 없는 일상이 반복되고 있다. 또한 그는 낙농에 관련된 잡지나 자료를 꼼꼼히 살피고 젖소사료 자동급여기를 설치하는 등 과학낙농업에도 늘 앞장서고 있다.

그는 젖소 2마리를 가지고 시작하여 IMF 이전에는 110마리, 현재는 60마리를 키우고 있다. 하루에 700~750kg의 소젖을 서울우유에 공급하고 있으며, 연간 1억 6천여 만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으나 이중 절반 이상이 사료 값으로 지출되고 있다.

생활에는 큰 어려움이 없는 편이어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왜 고생을 사서 하느냐는 질문을 자주 받는다는 원태희 씨는 직업에 따른 개인의 어려움보다는 1980년대의 소파동과 최근 IMF시대 때 아까운 우유를 하천에 내다버리면서 울분을 삼켜야 했던 시절이 가장 마음 아팠다고 고백한다.

계수초등학교 22회, 소래중학교 14회, 부천고등학교 2회 졸업생인 원태희 씨는 최영숙(39) 씨와의 사이에 종보(중3), 주화(중1) 남매를 두고 있다. 원씨는 누가 뭐라고 해도 정겨운 우리의 이웃이고 우리 고향 시흥시를 지키는 소중한 사람이다. 소에 대한 애착심, 농민으로서의 자긍심, 그리고 부지런하지 않으면 결코 낙농업을 할 수 없다고 원태희 씨는 강조한다.

海 새벽을 밝히는 바다 사나이

시흥사람들의 직업의 다양성은 다른 지역과 비교해 볼 때 남다르다. 시흥시에는 바다가 인접해 있고, 완만한 산, 잔잔한 호수, 기름진 논밭이 있는 반면에 대규모 공업단지와 아파트단지도 공존하고 있다. 지역적 특성이 다양하고 종합적인 만큼 시흥사람들의 직업도 다양할 수밖에 없다.

정왕동 1628번지 아파트단지에 살고 있는 송선일(39) 씨의 직업은 어부다. 부모님의 직업을 대물려받아 20년이 넘도록 바다 사나이로 굳건히 살고 있는 시흥시 토박이다. 중학교 때부터 부친을 따라 배를 탔는데 공부보다는 고기잡이가 훨씬 신났다는 것이 솔직한 그의 고백이다.

현재 그는 1톤 소형 선박으로 부인과 함께 꽃게잡이를 하고 있지만 한때는 큰배로 새우, 민어, 농어, 쭈꾸미에 이르기까지 근해를 누비며 고기를 잡던 시절이 있었다. 1983년에 최연소 어민후계자로 선정이 되어 1300만 원이라는 거금을 대출받아 큰배를 장만하여 고기잡이에 나섰던 것인데 어장에 대한 이해 부족과 큰배에 대한 경험부족으로 실패의 쓴잔을 마셨던 것이다.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 바다를 떠나 송선일 씨가 새롭게 시작한 일은 5톤 트럭 운전이었다. 2년간 운전을 하다가 그는 다시 바다를 선택했다. 소형 선박을 마련하여 고정자망으로 꽃게잡이에 나섰고 더러 소라껍질을 이용하여 쭈꾸미를 잡기도 한다.

송선일 씨는 기관고장으로 바다를 표류하면서 낙담할 때도 있었고, 배 위로 그물을 끌어올리는 롤러에 끼어 죽을 뻔하기도 했으며, 바다에 들여놓은 그물을 잃어버린 것은 한두 번이 아니다. 더욱이 고기잡이배가 너무 늘어나 소득이 줄어들었고 잡은 어물도 판로가 마땅치 않아 늘 걱정이 뒤따른다.

어부는 바다를 닮게 마련이고 송선일 씨 또한 예외는 아니다. 그의 성격은 폭풍우가 몰아칠 때처럼 거칠기도 하고 은빛 고기떼처럼 반짝이는 잔잔한 수면처럼 부드럽기도 하다. 아버지의 직업을 자랑스러워한다는 송미령(중1), 송학석(초5) 자매가 가장 소중하다고 밝히는 송선일 씨는 오늘도 새벽을 밝히며 고기잡이에 여념이 없다.

火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24시간 재난 불침번

시흥소방서 대야소방파출소(소장 최창학) 최영수(36) 소방교는 방산동 다직골에서 태어나 포리초등학교(24회), 소래중(20회), 소래고(1회)를 졸업하고 여전히 같은 곳에서 고향을 지키며 사는 토박이다. 최영수 씨는 고향에 사는 것뿐만 아니라 대양동, 신천동, 계수동, 은행동, 안현동, 매화동, 금이동, 도창동, 과림동, 무지동 등 이곳에 거주하는 12만여 명의 시흥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119 소방대원이기도 하다.

최영수 소방교는 화재진압은 물론이고 화재예방을 위해 다중이용업소의 점검에 이르기까지 그가 맡은 일은 늘 널려 있다. 11년째 소방파출소에 근무하고 있는 그는 24시간 근무하고 24시간 휴무의 2교대로 일하기 때문에 늘 피곤하고 가족과의 한가로운 시간을 가질 수 없어 안타까워 하지만 직업에 대한 애착과 긍지로 살아온 소중한 사람이다.

최근 기억에 남을 만한 화재현장으로 최영수 씨는 1998년 부천 내동 가스충전소 폭발 화재를 손꼽는다. 그는 당시 충전소 주변에 냉매재(암모니아)를 취급하는 공장이 있어서 불이 옮겨 붙었을 경우 상상을 초월하는 폭발이 예상되었고, 이웃공장으로 불이 붙지 않도록 3~4시간 동안 엄호주수를 하느라 마음을 졸였노라고 당시의 긴박한 상황을 설명한다.

최영수 소방교의 말에 따르면 화재가 났을 때 사람들은 불에 타서 죽는 경우는 드물고 대개 유독가스에 질식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따라서 소방안전훈련만 제대로 익히고 있다면 소중한 생명을 많이 구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특히, 최영수 씨는 지역주민들의 장난 전화나 사소한 문제로 업무에 지장이 생기는 것을 안타까워한다. 만우절에는 장난전화가 말도 못할 정도로 폭주하고, 심지어 다른 지역의 통계에 따르면 2,000통의 전화 중에 96%가 장난전화였다는 사례를 들면서 혀를 찬다.

시간과 기회가 닿는다면 무료 소방안전훈련에 참여해 봉사하고 싶다고 밝히는 최영수 소방교는 알토란같은 아들 최혁(8)과 딸 최혜연(5)이 건강하고 공부 잘하는 것이 가장 큰 소망이다.

70년의 전통을 자랑하는죽율동 구멍가게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들어선 곳에는 어김없이 대형 백화점이 요란하게 문을 연다. 손님을 끌어들이기 위한 것인지 손님들의 편의를 위한 것인지는 잘 몰라도 백화점들이 운행하는 대형 버스들은 허름한 동네 구석구석까지 닿지 않는 곳이 없다.

조그맣게 차린 가게를 흔히 구멍가게라고 한다. 물건을 다양하게 고를 수 있고 싼값으로 구입할 수 있는 가게가 있다면 당연히 마음이 끌리고 자주 찾게 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그렇다면 슈퍼마켓과의 경쟁력에서도 뒤지고 백화점 매장과는 비교의 대상이 될 수도 없는 구멍가게는 과연 존재의 의미도 없는 것일까.

70여 년간 구멍가게로서의 명맥을 이어오고 있는 죽율동 495번지의 문화상회는 급변하는 현대시대 속에서 마음의 여유와 인간의 정서까지 고스란히 간직한 채 오늘도 아침 일찍 문을 연다. 고인이 된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가 차례로 맡아온 가게를 3년 전부터 도맡아 운영하고 있는 김향분(59) 씨는 주변에서 늘 정겹게 만날 수 있는 인심 좋은 아주머니의 인상을 풍긴다.

여름에는 새벽 6시부터 밤 12시까지 문을 열고, 겨울에는 오전 7시부터 밤 12시까지 영업을 하는 문화상회는 바깥주인 문성기(63) 씨의 부친이 일제시대 때 문을 열어 오늘에 이른다. 김향분 씨는 1962년도에 죽율동으로 시집을 와서 한편생 시부모와 남편, 그리고 자식들 뒷바라지하느라 몸도 마음도 늙어버렸고, 이제는 보상처럼 떠않은 것이 문화상회다. 인정은 그대로 남아 외상거래도 많고 벌이도 신통치 않으며, 자식들마저도 가게를 걷어치우고 제발 편히 쉬라고 성화지만 김향분 씨는 고집스레 가게문을 연다.

시부모가 해오던 일이기도 하고 소일거리도 되기 때문에 건강이 허락하는 한 계속 가게를 운영하겠다고 말하는 김향분 씨는 끝내 사진 찍기를 거부한다. 김씨에게는 거창하게 전통을 잇겠다는 각오도 없고 가게를 통해 특별한 이익을 얻겠다는 소망도 없다. 조그만 골목길을 함부로 먼지를 일으키며 백화점의 대형버스가 지나가도 물끄러미 바라볼 뿐 김씨의 눈가에는 노여움이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시흥 1000년, 시흥군 100년, 시흥시 10년

시흥시는 지난 1999년 12월 1일 시청직원 295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벌여 새 천년 맞이 10대 사건 및 10대 인물을 선정했다. 10대 사건 및 인물을 통해 시흥시의 역사를 돌아보고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진행된 이번 조사에서는 '시흥 1000년과 시흥군 100년의 10대 사건', '시흥시 10년의 10대 사건', '시흥 1000년의 10대 인물' 등을 선정했다. 설문 내용별 2배수의 항목을 설문자에게 제시, 응답자가 내용별 10개씩을 선정하였고, 설문내용별 최대 득표자 순으로 10대 사건과 인물을 선별했다. 〈편집자 주〉

수인선 협궤열차가 운행하던 모습

시흥 1000년 · 시흥군 100년 10대 사건

순위	득표	중요사항	시대
1	252	행정지명 '시흥' 첫 사용	991
2	221	경인철도 부설	1899. 9. 18
3	221	수인선 개통	1937. 8. 6
4	205	시흥군 승격	1895. 5. 26
5	190	방산동 청자 · 백자생산	고려 초기
6	185	소래산 마애보살입상 제작	고려 초기
7	182	시흥군, 7개 시로 독립	1973~1988
8	150	시흥군 해체	1988. 12. 31
9	135	군자염전 조성	1922
10	119	관곡지애 연꽃씨 식재	1460년대

시흥시10년 10대 사건

순위	득표수	중요사항	시대
1	303	시흥시 승격	1989. 1. 1
2	260	시화지구 개발사업	1986~1996
3	251	월곶공유수면매립사업	1992~1996
4	243	민선시장 시대 개막	1995. 7. 1
5	238	시화 방조제 조성	1987~1997
6	222	시흥시청사 및 시의회 청사 건립	1995~1997
7	215	방산동 청자 · 백자 가마터 발견	1991. 2
8	214	은행택지 개발사업	1992~1998
9	209	전국최초 쓰레기분리 수거실시	1989. 10. 1
10	206	연성1, 연성2지구 택지개발사업	1993~1999

시흥시 1000년 인물 10선

순위	득표수	인물	출 신 지
1	280	강감찬	시흥군 동면 봉천리(출생)
2	277	강희맹	시흥시 하상동(묘소)
3	239	강희안	시흥시 하상동(묘소)
4	220	이익	시흥시 수암면 성포리(우거)
5	188	심훈	시흥시 하북면 흑석리(출생)
6	186	조병세	시흥시 조남동(묘소)
7	181	인선왕후	시흥시 장곡동(출생)
8	162	이원익	시흥군 서면 소하리(우거 · 묘소)
9	161	김치인	시흥시 안현동(묘소)
10	116	지창룡	시흥시 군자동(출생)

시화지구 개발사업 기공식 장면

방산동 가마터 전경

시흥 1000년과 시흥군 100년의 10대 사건

조사결과 시흥 1000년과 시흥군 100년의 10대 사건의 1위를 차지한 것은 '행정지명 시흥 첫 사용' 이었다. 행정지명 '시흥' 은 991년에 처음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였으며, 응답자 중에서 252표를 얻어 1위를 차지했다. 2위는 1899년 9월 18일에 개통된 '경인철도 부설' 이 뽑혔고, 3위는 1937년 8월 6일 '수인선 개통' 이 선정됐다.

4위로 선정된 사건은 1895년 5월 26일에 실시된 '시흥군 승격' 을 꼽았고, 고려 초기로 추정되는 '방산동 청자 · 백자 생산' 과 '소래산 마애보살입상 제작' 이 각각 5위와 6위로 선정되었다. 또한 '시흥군, 7개 시로 독립', '시흥군 해체', '군자염전 조성', '관곡지에 연꽃씨 식재' 등은 순차적으로 7위부터 10위를 차지했다.

10대 순위 외에도 1987년 4월 1일 '시흥군 전국 최초 민원 온라인제 실시' (11위), '시흥 농민운동 발발' (14위), '원태우 지사 이등박문 투석' (18위), '호조벌 축조, 정조의 능행차' (19위) 등의 사건도 주목을 받았다.

시흥시 10년의 10대 사건

시흥군이 시흥시로 승격된 것은 1989년 1월 1일부터다. 이를 반영하듯 시흥시 10년의 10대 사건의 1위는 303표를 득표한 '시흥시 승격' 이 차지했다. 시 승격 이후 1991년 1월 15일 중림 · 연성출장소가 개소된 뒤 이해 9월 1일에 중림출장소는 '중림동(重林洞)' 으로, 연성출장소는 '연성동(蓮城洞)' 으로 각각 변경되었다가 이듬해 신관동이 '신현동(新峴洞)' 으로, 중림동이 '과림동(果林洞)' 으로 각각 변경되었다. 이어 1994년 7월 1일에 거모동이 군자동으로 개칭되었고, 이듬해 4월 20일 수암동 · 장하동 · 장상동과 화정동의 너빌 · 고주물 지역이 안산시로 편입되었으며, 1995년 11월 15일 법정동인 무지동이 무지내동으로 개칭되어 현재 시흥시는 10개 행정동에 30개 법정동으로 편제되어 있다.

시흥시 10년의 10대 사건 2위는 1986년부터 1996년까지 실시된 '시화지구 개발사업'이 차지했다. 1998년 말 현재 시화지구의 인구는 28,317세대 87,889명이며, 공단의 업체수는 2,116개, 종업원수는 35,494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화지구가 개발됨에 따라 12.6㎞에 달하는 방조제의 축조는 우리 나라의 해안선을 101㎞나 단축하는 효과를 낳았다.

3위로 선정된 사건은 '월곶공유수면매립사업'이었다. 17만 평에 달하는 월곶매립지구에는 현재 200여 개의 횟집이 들어서 있으며, 기계위락시설과 아파트단지, 초등학교, 중학교, 종합운동장 2002년 월드컵 보조경기장 등이 건립될 예정이다. 4위는 1995년 7월 1일부터 전격 실시된 '민선시장 시대 개막'이 차지했고, 5위는 '시화방조제 조성'이 선정되었다.

6위로는 '시흥시청사 및 시의회청사 건립'이 꼽혔고, 7위는 '방산동 청자 · 백자 가마터 발견', 8위는 '은행택지개발사업', 9위는 '전국 최초 쓰레기 분리수거 실시', 10위는 '연성 1 · 2지구 택지개발사업이 선정됐다.

방산동 산39-1, 370-1번지 일원에 위치한 방산동가마는 길이가 약 40m이며 가마의 폭은 대체로 외벽이 150~190㎝, 내벽이 70~120㎝로 그 규모가 장대하고, 아궁이나 벽면이 일부 파손되기는 하였으나 노출된 상태가 매우 양호하다. 특히 가마의 벽은 중국의 가마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벽돌을 쌓은 다음 진흙을 메워서 축조하였으며, 수차례에 걸쳐 개축과 보수를 하였던 흔적이 뚜렷이 남아 있어 가마의 축조와 운영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이 가마에서는 다량의 양질 청자와 소량의 백자가 함께 제작된 모습이 확인되고 있으며 가마의 주변에 엄청난 양의 퇴적물이 산재하고 있어 생산량이 많았음을 반영해주고 있다.

특히 이 가마의 옆에는 바로 앞선 시기에 운영된 것으로 추정되는 토기가마들이 함께 공존하고 있어 어느 시기에 도기질요업(토기 생산)에서 자기질요업(자기 생산)으로 갑자기 전환해 간 것으로 추정된다.

방산동가마는 남한지역에서 유일하게 발굴 조사된 벽돌 가마로서 현존 상태 역시 양호하여 한국 청자의 발생과정을 추정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적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향토유적 제15호로 지정되었다.

시흥시 10년 10대 사건의 순위에는 들지 않았으나 '시흥시의회 출범', '유관기관 청사신축 이전', '군자동 버스 추락사고', '문화예술단체 출범' 등은 각각 11위에서 14위를 차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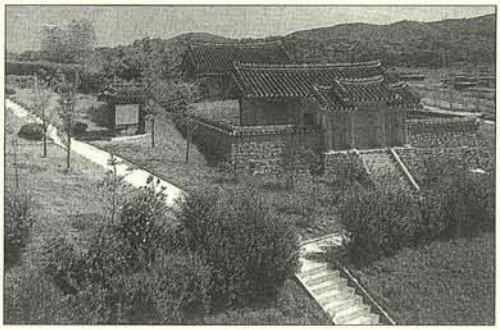
시흥 1000년의 10대 인물

시흥 1000년의 10대 인물에 1위는 강감찬 장군이 선정됐다. 강희맹, 강희안, 이익, 심훈, 조병세, 인선왕후, 이원익, 김치인, 지창룡 등이 2위에서 10위를 차지했다. 선정된 인물들의 내력은 다음과 같다.

강감찬(姜邯贊, 948~1031) 장군은 고려의 명신으로 본관은 금주(衿州, 지금의 시흥)이며, 경주로부터 금주에 이주해 호족으로 성장한 여청의 5대손이고 왕건을 도운 공로로 삼한벽상공신이 된 궁진의 아들이다.

성종 2년(983) 과거에 갑과 장원으로 급제한 뒤

강감찬


이익 선생의 묘

심훈

예부시랑이 되었다. 거란의 소배압이 10만 대군을 이끌고 침공했을 때 구주에서 대승을 거두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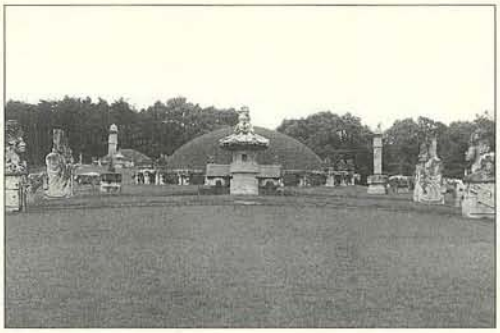
강희맹(姜希孟, 1424~1483)은 조선 전기의 문신이자 우리 나라 최초의 농학자이며 자는 경순(景醇), 호는 사숙재(私淑齋)이고 본관은 진주(晋州)이다. 세종 29년(1447) 별시문과에 장원으로 급제한 후 이조좌랑, 집현전 직제학, 이조 · 병조판서를 거쳐 좌찬성을 역임하였으며,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경국대전(經國大典)』의 편찬에 참여했고 저서에는 『금양잡록(衿陽雜綠)』, 『사숙재집(私淑齋集)』, 『촌담해이(村談解이)』 등이 있다.

강희안(姜希顔, 1418~1464)은 조선시대의 학자이며 특히 시와 글씨 및 그림에 모두 뛰어나 3절이라 불린 문신이다. 자는 경우, 호는 인재, 본관은 진주로 지돈령부사를 지낸 강석천의 첫째 아들이며 동생은 좌찬성을 지낸 강희맹이다. 정인지, 최항, 박팽년, 신숙주 등과 함께 세종대왕이 지은 『훈민정음』과 『용비어천가』에 대해 해석을 상세하게 덧붙이는 등 학자로서 많은 업적을 남겼다.

이익(李瀷, 1681~1763)은 조선 후기의 실학자로 본관은 여주, 자는 자신(自新), 호는 성호(星湖)다. 평안도 운산에서 태어났으나 아버지를 여의고 선영이 있는 안산의 첨성리로 돌아와 평생을 칩거하였다. 저서로는 『성호사설』, 『곽우록』, 『성호선생문집』, 『이선생예설』, 『사칠신편』, 『상위전후록』, 과 『사서삼경』, 『근사록』, 『심경』 등의 질서, 『이자수어』 등이 있다.

심훈(沈熏, 1901~1936)은 시흥군 하북면 흑석리에서 출생하였으며, 소설가이자 시인, 영화인이었다. 본명은 대섭, 본관은 청송, 호는 해풍(海風)이다. 1915년 경성제일고등보통학교에 입학하였고, 1919년 3 · 1운동에 가담하여 투옥, 퇴학당하였다. 우리나라 최초의 영화소설 「탈춤」을 『동아일보』에 연재하기도 했다. 영화 「먼동이 틀 때」를 집필, 각색, 감독하여 성공을 거두었고, 시집으로 『그날이 오면』, 소설로는 장편 『상록수』 등이 있다.

조병세(趙秉世, 1827~1905)는 조선 말기의 문신이다. 순국 열사로 자는 치현(穉顯), 호는 산재(山齋), 본관은 양주(楊洲)이다. 철종 10년(1859) 증광



인선왕후의 능

이원익

김치인

시 별과에 급제한 후 공조 · 예조판서, 우의정 · 좌의정을 역임하였으며 건양 원년(1896) 폐정 개혁을 건의하였고 1905년 을사조약이 체결되자 민영환 등과 을사조약 파기를 주장하다 뜻을 이루지 못하자 각국 공사 및 동포에게 보내는 유서를 남기고 음독, 순국하였다.

인선왕후(仁宣王后, 1618~1674)는 조선시대 효종의 비로서 1618년에 장곡동 산68번지에서 출생하였다. 아버지 장유는 우의정을 지냈고 어머니는 우의정 김상용의 딸이었다. 인조 8년(1630) 봉림대군의 부인으로 선택받았고, 병자호란 때는 봉림대군이 심양이라는 곳에 인질로 갈 때 따라가 8년간이나 머물면서 많은 뒷바라지를 했다. 아들 현종이 임금이 되자 현종 2년(1662)에 왕대비가 되었으며, 살아 생전에 70여 건의 한글 편지를 남겼다

이원익(李元翼, 1547~1634)은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전주, 호는 오리(梧里)다. 태종의 아들 익녕군 치의 4세 손으로 억재의 아들이다. 키가 작아 키 작은 재상으로 불렸다. 다섯 차례나 영의정을 지냈으나 그의 집은 두어 칸짜리 오막살이 초가였으며, 퇴관 후에는 조석거리조차 없을 정도로 청빈하였다고 한다. 저서로는 『오리집』, 『속오리집』, 『오리일기』 등이 있으며, 가사로 「고공답주인가」가 있다.

김치인(金致仁, 1715~1790) 선생은 조선 후기의 문신으로 자는 공서(公恕), 호는 고정(古亭), 본관은 청풍(淸風)이다. 영조 24년(1748) 문과에 급제하여 전적, 교리, 병조판서, 영의정 등을 역임하고 편저로 『명의록(明義錄)』과 『열성지장통기(列聖誌狀通記)』가 있다. 시호는 헌숙(憲肅)이다. 묘는 안현동 길마재 마을에 있다.

지창룡(1922~1999)은 시흥군 의왕면 포일리에서 출생하였으며, 국내 최고의 풍수연구가라는 평판을 받았다. 국립묘지, 대전청사의 선정에 관여했고, 역대 대통령의 묘소를 선정했다.

만나고 싶었습니다

시흥출신 탤런트 한인수 씨

지금은 열정이 필요할 때

냉철한 판단이 중요하다

1973년 MBC 공채 5기로 탤런트의 첫발을 디딘 한인수 씨는 최근 28기 새내기 탤런트 30명이 모인 자리에서 충고를 거침없이 쏟아놓는다. 그가 후배 탤런트들에게 강조하는 점을 간단히 요약하면 '포기할 사람은 빨리 포기하라'는 것이다. 돈과 명예가 생길 거라는 허황된 생각을 당장 버리라는 것이고, 스스로가 정말 탤런트로서 재질이 있는가를 냉철히 판단해서 시간 낭비하지 말고 서둘러 제 갈 길을 가라고 덧붙인다. 탤런트로서 재질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어떻게 세워야 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탤런트로서 재질의 유무는 스스로가 제일 잘 알기 때문에 냉철한 선택이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1947년 황해도 출생인 한인수 씨는 1·4후퇴 때 연평도를 거쳐 시흥시에 정착한 이산가족 2세대다. 신천동에서 부친 한성택 씨, 그리고 모친 박부전 씨와 50여 년을 살았으니 누가 뭐라고 해도 자신의 고향은 시흥시라고 여긴다.

소래초등학교 37회 졸업생이고 인천 성광중학교(9회), 서라벌고(9회)를 졸업했으며, 장학생으로 서울예술대학 연극과에 입학하였고, 경희대 경영행정대학원 등을 졸업하였다.

"선택은 빠를수록 좋은 게 아닐까요. 제가 후배 탤런트들에게 냉정하게 말하는 것은 너무 성급하고 조급해하기 때문입니다. 스스로가 판단을 해서 세상없어도 이 길을 가야겠다고 생각이 들면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면 나름대로 성과는 있을 거라는 것이 저의 생각이지요."

춥고 배고팠던 시절

연기자들의 고향은 연극무대가 아닐까. 한인수 씨는 서라벌고에 다닐 때부터 배우가 되겠다는 꿈을 키웠고 연극부 부장을 맡아 의욕적으로 활동했다. 광주일보 전국 연극제에서 그는 우수 연기상을 받아 그 가능성을 인정받기 시작했다. 이때 고등학교에서 만난 동기동창들로는 김흥기, 현석, 서상익, 김호영, 홍순창 씨 등이 있다.

한인수 씨도 TV 탤런트가 되기 전에는 1971년 차범석 선생이 대표로 있었던 극단 「산하」에 입단하여 연극무대에서 활동함으로써 연기력을 인정받았다. 「세일즈맨의 죽음」, 「중매인」, 「새야새야 파랑새야」, 「사랑하는 마리」 등의 작품에 주인공으로 출연하였고, 특히 「새야새야 파랑새야」라는 작품에 출연했을 때는 한국일보 연극 신인상을 받기도 했다.

그는 TV 탤런트로 데뷔한 이후에 「들장미」, 「뿌리깊은 나무」, 「딸」, 「풍난」, 「진실」 등에 출연하여 시청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으며, 「들장미」에서는 탤런트 이효춘 · 김자옥 씨와 애정의 삼각관계에 빠지는 대학강사 학수역을 맡아 TV 신인상을 받았고, 「뿌리깊은 나무」에서는 세종대왕의 역할을 맡아 MBC 연기 대상을 받아 스타덤에 올랐다. 그렇다고 그의 앞길이 늘 순탄하고 짜릿한 성공만이 있었다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시쳇말로 춥고 배고픈 시절이 더 많았다고 그는 고백한다.

"대학에 다닐 때는 연기력을 높이기 위해 거지나 노인분장을 하고서 길거리에 나가 실제로 연기도 했고, 목소리를 키우기 위해 정해진 시간에 늘 소리를 지르곤 했는데 주변 사람들로부터 미친 놈 취급도 받았지요. 동기들과 연극공연을 마치고는 시계마저 전당포에 맡기고 대관료를 지불하는 바람에 막걸리 값도 없어 머쓱한 표정으로 헤어지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갓 결혼했을 때는 쌀은 물론이고 아기의 우유값도 떨어질 정도로 가난했고, 유명세를 타기 시작할 무렵에는 버스 안에서 팬들에게 사인을 해주던 기억과 11년만에 집을 장만했을 때의 감격도 새롭게 떠오른다는 한인수 씨. 그는 설사 가난하더라도 뜨거운 열정과 인내가 있어야 화려해 보

이는 연기자의 세계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강조한다.

할 일이 너무 많은 사람

한인수 씨를 정치인으로 기억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실제로 그는 1991년에 도의원에 당선되어 행정감사 스타로 주목을 받은 적이 있다. 도의원시절 예산을 확보하여 소래고등학교 강당을 지은 일, 시흥시까지 세풍운수를 끌어들인 일, 청소년수련회관 건립, 심장병 어린이 돕기 등 그가 주도적으로 해낸 성과도 결코 작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는 정치에는 전혀 뜻이 없다고 힘주어 말한다. 도의원에 나섰던 것도 그 당시 시흥 JC 특우회장을 하면서 고향에 봉사를 하고 싶다는 순수한 의도 때문이었고, 정치에 특별한 관심을 가졌던 것은 아니었다고 강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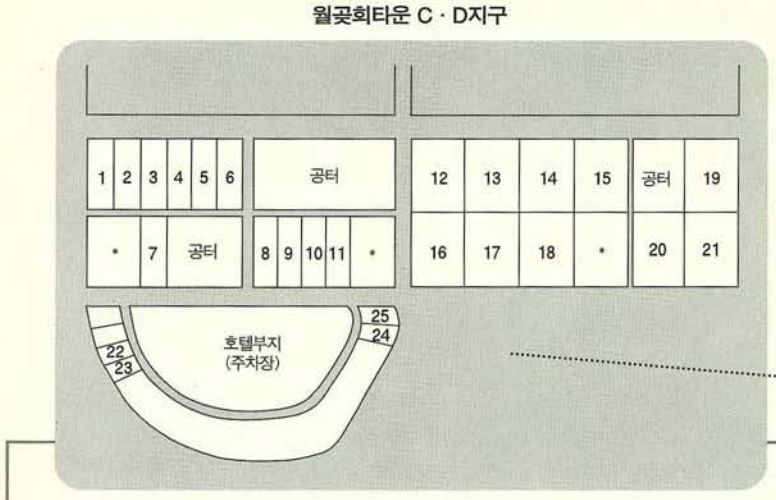
한인수 씨는 한 사람의 탤런트로서 한 일도 많았고, 할 일도 많은 사람에 속한다. MBC 탤런트 실장, TV 탤런트 기독신우회 회장, 한국선명회 홍보대사, 좋은 사람들 홍보대사, 세계선교교회 장로, 시흥문화원 감사 등이 그가 역임했거나 현재 맡고 있는 직함들이다. 최근에는 「맛을 보여드립니다」라는 드라마에 출연했고, 지금은 드라마 「허준」에서 삼적대사와 내의원 입사동기인 안광익으로 출연하고 있다.

그러나 그는 신앙인으로서 선교연극에 비중을 두어 참여할 계획이다. 자신의 전공분야인 공연을 통해 '사랑의 쌀 보내기 운동' 기금마련, '결식아동 돕기', '독거노인 돕기' 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고향사람들과 사랑을 주고받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이력이 붙으면 순회공연은 물론이고 외국공연도 시도할 방침이다.

방송음악을 전공하는 딸과 성악을 전공하는 아들을 두고 있는 한인수 씨는 자라나는 청소년과 젊은이들에게 꼭 필요한 건 '냉철한 머리와 뜨거운 가슴' 이라고 강조한다. 젊은이라면 냉철한 이성과 뜨거운 열정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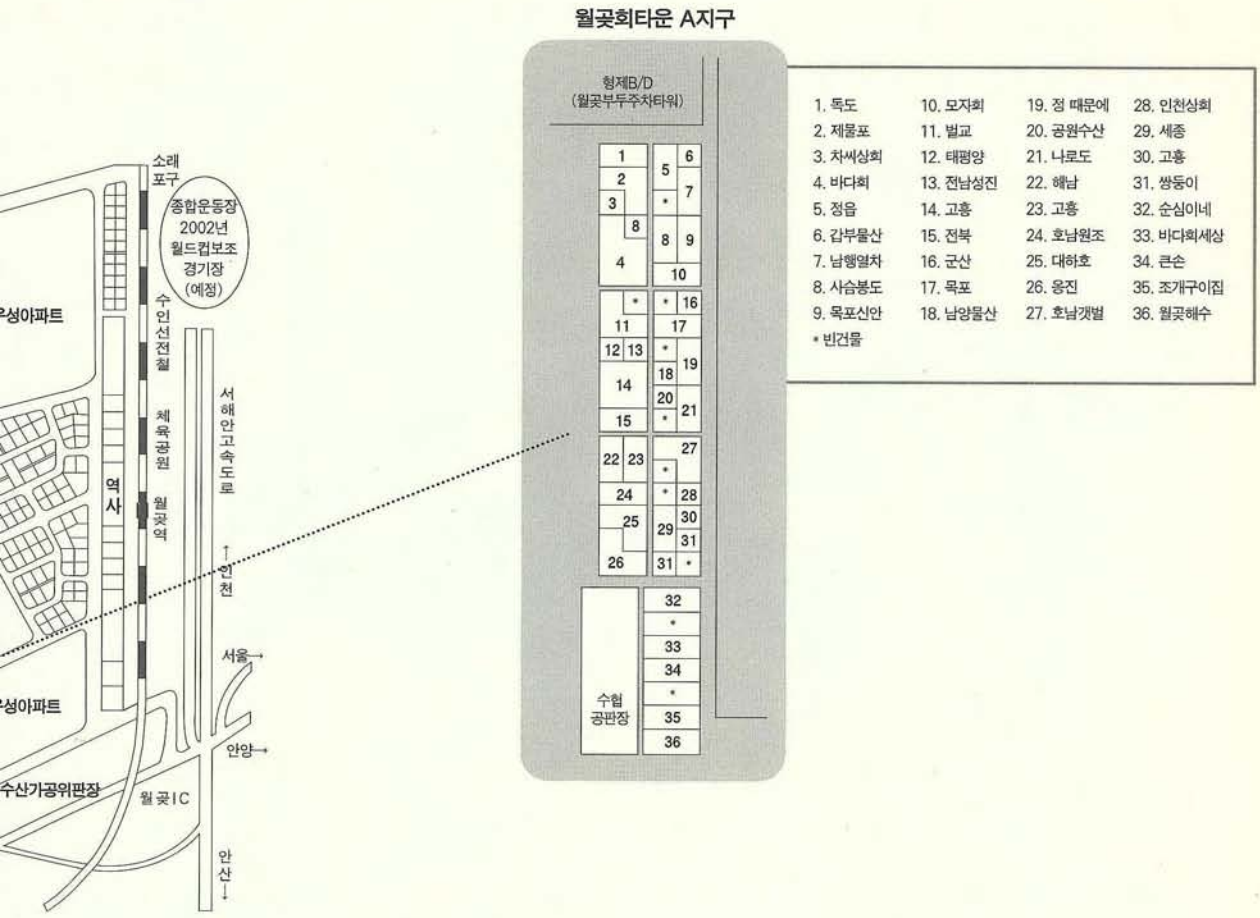
시흥시 관광가이드

월곶동편



1. 거북선빌딩 : 토방수퍼(1F), 거북선(2F), 토방카페(3F), 맥성석월곶바다체험실(4F)
2. 수일회센터(1F), 카니발노래방(3F)
3. 노을빛바다레스토랑
4. 대원개발
5. 통일주류 (1F), 관광노래방(2F)
6. 에이스빌딩 : 유진해양산업(1F), 신세기건축사무소(3F), 월곶안마(4F)
7. 은하철도 999 카페
8. 어부회센터(1 · 2F)
9. 왼도회센터(1F), 대림당구장(4F)
10. 유람선(1 · 2 · 3F)
11. 모임터카페
12. 소래(1F), 월곶(2F), 열린노래방(5F)
13. 영진빌딩
14. 상상회나라(3F), 제주복아구전문
15. 월곶회센터(2F)
16. 바다에 나간 사람들(1F), 월곶프라자수퍼(1F), 꼴뚜기노래방(4F)
17. 강명빌딩 : 일층봉회센터(1 · 2F), 코리아노래방(5F)
18. 일진프라자 : 미리도(1 · 2F), 씨월드노래방(4F), 솔당구장(5F)
19. 산수회센터, 월곶회센터, 서광회센터
20. 대부도(1F), 호남파도(2F), 마이웨이레스토랑, 오케이노래방,
21. 비치월드 : 石회집(1F), 키스노래방(3F), 바다가보이는노래방 해양공원(1 · 2F), 월미도
22. 한일프라자 : Goodis(1F), 우리밀바지락칼국수(1F), 바다낚시(1F), 汝自灘(2F), 시엘(5F)
23. 상상마트(1F), 古家(2F), 코러스노래방(3F)
24. 비치프라자 : 청석골회냉면(1F), 보부해물손칼국수(1F), 갈매기타운(2F)
25. 미도빌딩 : 만선횟집(1 · 2F), 해와달(1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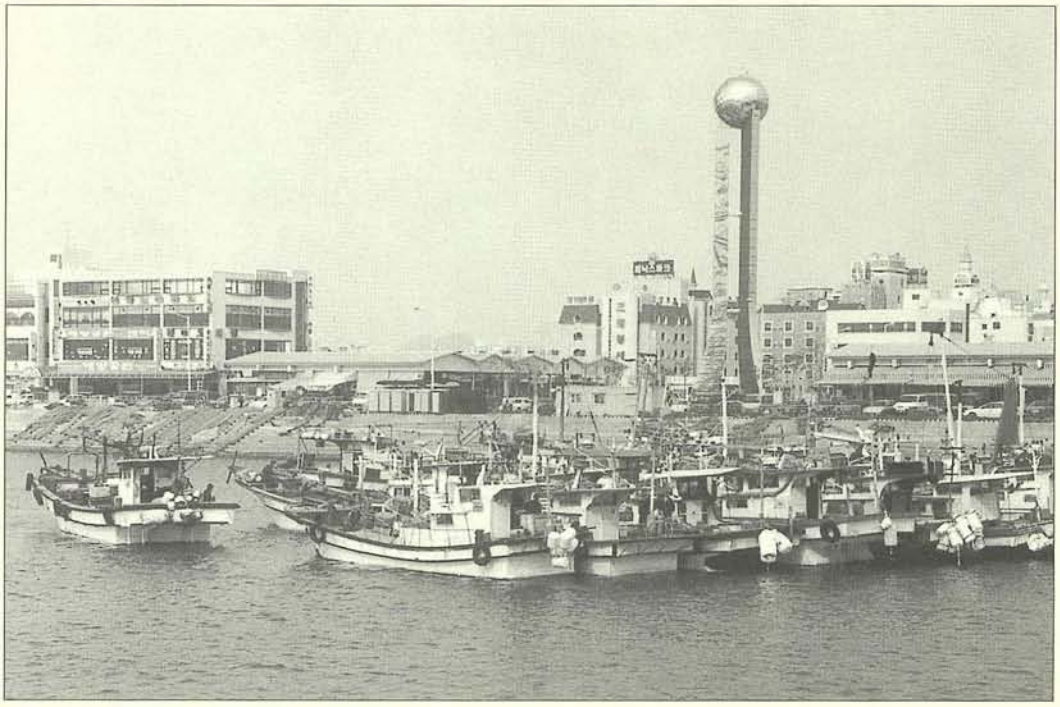
지구 분포도



1. 독도
2. 제물포
3. 차씨상회
4. 바다회
5. 정음
6. 갑부물산
7. 남행열차
8. 사슴봉도
9. 목포신안
10. 모자회
11. 벌교
12. 태평양
13. 전남성진
14. 고흥
15. 전북
16. 군산
17. 목포
18. 남양물산
19. 정 때문에
20. 공원수산
21. 나로도
22. 해남
23. 고흥
24. 호남원조
25. 대하호
26. 웅진
27. 호남갯벌
28. 인천상회
29. 세종
30. 고흥
31. 쌍둥이
32. 순심이네
33. 바다회세상
34. 큰손
35. 조개구이집
36. 월곶해수

* 빈건물

1. 전라도
2. 신가네
3. 인천
4. 미래탑
5. 형제
6. 경인수산
7. 용재도
8. 남도
9. 전라도
10. 돌산
11. 만승호
12. 장성
13. 선비
14. 모녀
15. 명진
16. 가락수퍼
17. 청해
18. 포구
19. 진양
20. 신목포
21. 청해
22. 소문난
23. 고향
24. 준비된
25. 이작도
26. 월곶
27. 광장마트
28. 홍가네
29. 흑산도
30. 다도희
31. 처녀
32. 전라도
33. 웅진
34. 원도
35. 금산
36. 수삼영
37. 바다마을
38. 황진호
39. 목포
40. 경진
41. 수성분식
42. 형제식품
43. 경진
44. 동희
45. 흥화수
46. 태우
47. 포리
48. 처녀
49. 충청도위성
50. 호남
51. 흑산도
52. 진도
53. 호남
54. 오동도
55,56. 연일
57. 나희
58. 위도
59. 이어도
60. 강원
61. 백년전
62. 똥순이네
63. 군자
64. 달월
65. 유달
66. 시원
67. 제물포
68. 산지
69. 달월
70. 유달
71. 공주
72. 소금창고
73. 혀벌네
74. 도시바다
75. 두리
76. 걸삼상회
77. 형제
78. 철마
79. 해변
80. 명진
81. 처가집
82. 유씨상회
83. 보성
84. 황해도
85. 도시바다
86. 항구
87. 은비
88. 동산노래방
89. 동산하이퍼
90. 해남수산
91. 월곶상회
92. 서해수산
93. 흑산도수산
94. 연천수산
95. 복광상회
96. 서산
97. 안면도
98. 광천젓갈
99. 관곡 * 빈건물



고깃배들이 정박하기 편리한 월곶포구항 전경

은근한 몸짓 서해

바다. 그 단어를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한번쯤 푸른 상념에 젖게 된다. 바다는 그런 힘이 있다. 비록 그곳에 서 있지 않아도 마음 한 구석에 숨어 있던 바다가 깨어나 어느새 우리 눈동자를 푸른빛으로 반짝이게 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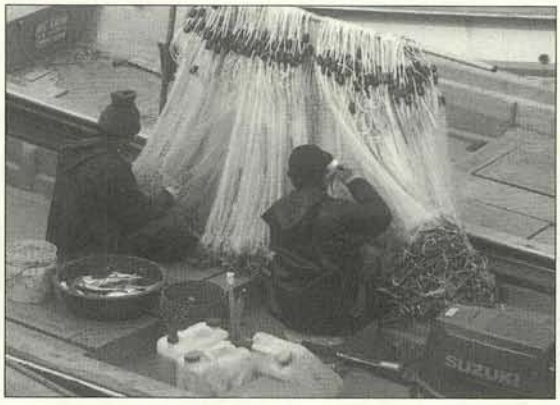
동해가 떠나는 바다이고 펼쳐 보이는 바다라면 서해는 되돌아오는 바다이며, 감싸안는 바다다. 그래서 동해가 넘치는 활기라면 서해는 은은한 생기다. 동해가 격한 춤사위라면 서해는 은근한 몸짓이다.

서해는 그렇게 사람들을 소리쳐 부르지 않아서 좋다. 포구들 역시 그 바다를 닮았다. 단아한 맵시가 대부분이다. 그저 그 자리에 낮게 앉아 느긋하게 사람들의 발길을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그러한 여유는 원래부터 그 자리에 그렇게 있었던 것 같은, 낯설지 않음에서 비롯된다.

바다와 먹거리가 있는 곳, 월곶

경기도 시흥시 월곶. 새벽 4시 서해를 닮은 어부들의 생기 넘치는 움직임 속에서 자망어선들의 출어가 시작된다. 여기 저기 알전구들이 환하게 불을 밝혀보지만, 물빛도 하늘빛도 아직은 어둠 속에 잠겨 있다.

마치 아침 산책을 하는 듯한 작은 어선들의 뱃



그물을 손질하고 있는 어부들

월곶포구에 정박 중인 소형 선박들

길을 따라 갈매기들이 떠 있다. 포구의 아침은 그렇게 밝아오고 있었다. 지척에 있는 소문난 이웃, 소래포구와는 또 다른 모습으로 월곶포구는 서서히 기지개를 켜고 있는 것이다.

월곶은 정겹고 소담스럽게 사람들을 부른다. 서해만이 줄 수 있는 특유의 여유롭고 편안한 포구의 품에다 신선한 삶의 생기를 더한 얼굴로 언제든지 한번 마음놓고 오시라고. 바다와 풍성한 먹거리가 있는 곳. 아스라이 펼쳐진 바다의 넉넉함 속에서 움직이는 크고 작은 어선들과 사람들의 건강함이 느껴지는 곳. 큰 소리로 목청껏 높여 부르지는 않고 은은한 뱃고동처럼 낮은 목소리로 월곶은 우리를 부르고 있는 것이다.

곶(串)은 '바다를 향해 뾰족하게 내민 땅'이라는 뜻이라고 한다. 달곶, 달월이라고도 불렸다는 월곶. 10여 년 전만 해도 20여 가구밖에 살지 않던 마을, 육지로 치면 산간벽지와도 같았던 월곶이 새로운 휴식 공간으로 떠오르게 된 것은 1997년 9월 월곶동 신도시개발과 함께 17만 평의 매립지를 새로 조성되면서부터.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 각종 편의 오락시설 등과 어울려 월곶은 지금 수도권에서 정말 '가볼 만한 싱싱한 곳'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이다. 소래포구와는 불과 1km 정도의 거리밖에 되지 않는 곳에 있는데도 아직까지는 입소문을 통해 아는 사람들만 찾아온다.

월곶을 상징하고 있는 은빛 조각상에 햇빛이 반짝일 때쯤 이곳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 둘씩 모여든다. 벌써 터를 잡고서 입질을 기다리는 낚시꾼들이며 둘씩 짝을 지어 바다를 바라보는 연인들이 보인다.

"고깃배들이 들어올 때마다 마음이 풍요로워지는 것 같아 틈 나는 대로 같이 오곤 합니다. 왠지 여유 같은 것도 생기구요. 교통도 좋고 해서, 한번 데리고 왔더니 이제는 이 친구가 저보다 더 여길 좋아합니다."

곧 결혼할 사람과 같이 서울에서 왔다는 김진웅씨(29)는 약간은 쑥스러운 듯 여자 친구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월곶은 무엇보다 이미 알려진 여느 포구들처럼 부산스럽지 않아서 좋다. 그래서 월곶은 찾는 이들은 대부분 색다른 분위기를 찾아 먼길을 마다하

월곶포구 회타운 전경

지 않는 연인들이거나 인근에 살고 있는 가족단위의 사람들이다.

월곶포구는 밀물 썰물에 관계없이 24시간 배가 접안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 어판장에서는 배 들어올 때마다 즉석 경매가 이루어지는데, 많을 때는 3~4번까지 경매가 열리기도 한다. 언제든지 갓 잡아온 횟감들을 맛볼 수 있다는 싱싱한 즐거움. 그것은 월곶이 아닌 곳에서는 쉽게 맛볼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즐길 거리가 많은 월곶포구

월곶은 뭐니뭐니 해도 포구의 특성에 따른 신선한 자연산 활어회가 자랑거리다. 남편은 배를 타고 나가 고기를 잡고 그 부인은 직접 횟집을 하는, 내외 합작의 횟집이 유난히 많다. 그래서 자연산을 맛볼 수 있는 횟집이 무려 230여 곳이나 될 정도다. 무엇보다 그 많은 횟집 어디에 들어가 봐도 제각기 독특한 분위기가 있다. 물론 가격이나 신선함에서 다른 지역과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 때문에 '진짜 회맛'을 아는 사람들이 물어물어 찾아온다.

옛부터 '허튼 그물만 쳐놓아도 양동이 하나 가득 줍다시피 고기를 잡았다'는 월곶의 풍성함은 아직도 여전하다.

"어디 고기 종류만 많다 뿐인가요? 여기는 직접 배를 몰고 나가 고기를 잡아오는 집이 많기 때문에 싱싱한 거하고, 맛에 대해서라면 더 이상 말할 것도 없어, 전국 최고지요."

선주인 형부가 직접 잡아온 것들이라며 뜰채로 광어를 떠 보이는 옹진횟집 김영숙 씨(38)는 월곶 횟감의 신선도에 대해서 두 말하면 잔소리라는 얼굴이다. 거기에 중간상인을 거치지 않아, 가격은 노량진 수산시장보다도 10% 이상 저렴한 편이라고 말한다.

소래에서 횟집을 하다 월곶으로 왔다는 그녀는 싱싱함과 가격 면에서, 단연 월곶이라고 자부심이

주차가 편리하고 회맛이 좋은 월곶 포구

대단하다. 회맛을 아는 사람들이 찾아오기 때문에 손님들은 대부분 단골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과연 그럴 만했다. 전채로 나오는 해산물부터 하나하나가 자연산이라는 것을 증명이라도 하듯, 이루 말할 수 없는 신선한 육질의 탄력과 감칠맛으로 입안은 짜르르 해진다.

어느 횟집 앞을 가봐도 없는 고기가 없으면서도 집마다 자기 색깔이 있다는 것이 월곶의 특징이다. 이곳 사람들의 30% 정도는 소래 사람들이지만 나머지는 모두 고향도 다르고 사연도 다른 사람들이다. 그래서 횟집이름도 가지가지. 실제로 '바다에 나간 사람들', '시바다' 등의 낭만적인 이

인터뷰 이명운 · 월곶신도시 번영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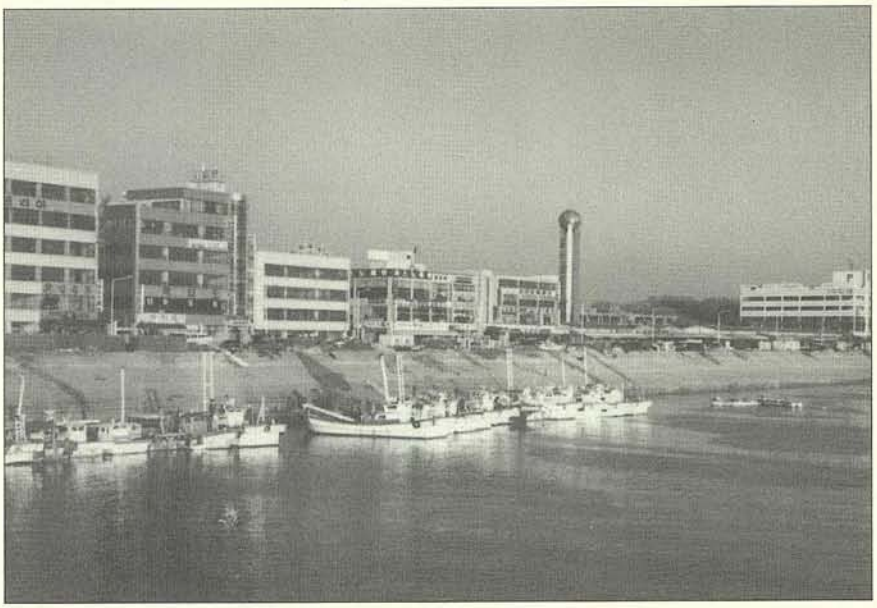
"월곶포구의 도약 기대하세요"

"시흥시에서는 월곶지구 상권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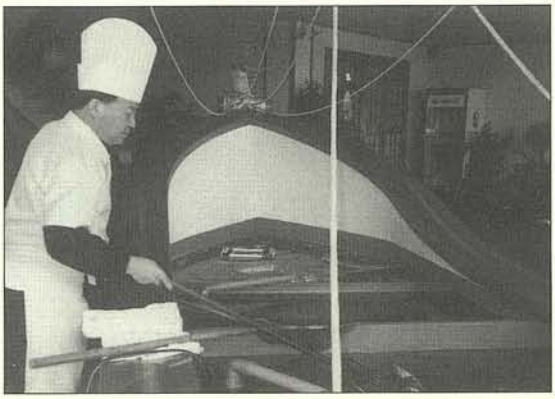
시흥시의회 의원이기도 한 이명운 번영회장은 앞으로 월곶신도시의 발전에 대해 실질적이고도 굵직한 방안을 소개한다. 우선 그는 기계위락단지의 조기완공과 월곶 전철역의 개통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그리고 당초 호텔부지가 계획한 용도로 사용되지 못할 경우 적절한 사업을 유치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또한 그는 횟집도로 앞을 지나 군자동으로 이어지는 대교의 설립이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다고 밝힌다. 시흥시에서는 이미 예산이 배정되어 타당성 조사에 들어간 상태라는 것이다. 95m 길이의 다리가 완공되면 이동인구가 급속히 늘어나 월곶포구의 활성화는 불을 보듯 뻔하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특히, 이명운 번영회장은 월곶신도시의 공영개발사업에 관한 제2의 조명이 필요하다고 그는 강조한다. 당초의 계획도시 방안은 정체성을 보이고 있고 이제 근본적인 문제로 돌아가 현실성 있는 계획안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준비나 방안은 시흥시의 철저한 계획도 필요하지만 월곶동의 주민들의 절대적인 관심이나 호응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한다. 아울러 앞에 열거된 문제점이나 여러 방안들은 시기가 문제일 뿐 순리적으로 풀릴 수밖에 없다고 낙관한다.



어촌계매장 전경



가게 안에 배가 들어있는 한 횟집

조각공원 상징탑

름을 가진 곳은 그 분위기가 색다르고, '쌍둥이횟집', '모녀횟집' 등 집안 식구 같은 이름이 있는 곳에는 가족적인 친밀감이 있어서 정겹다. 또 몇 평 되지 않는 아담한 횟집은 살갑고 부담이 없어서 편하고,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횟집들은 넉넉함이 있어서 좋다.

'안면도횟집', '해남횟집' 등의 상호를 가진 곳은 횟집 주인의 고향이나 바다의 이름을 따온 것이 분명해 보인다. 굳이 원조니, 토박이니 하면서 거짓 꾀를 부리지 않는 것은 그들 대부분이 10년 이상 횟집을 운영하면서 터득한 그들만의 노하우가 있다는 말이다.

'마라도', '흑산도', '군산횟집', '완도횟집'……. 바다를 끼고 천천히 횟집 이름들을 읽어

기차를 카페 내부로 꾸민 한 카페

교통이 편리해 사람들이 많이 찾는 월곶포구

내려 가면서 걷고 있노라면 전국의 바닷가가 이곳에 다 모여 있는 것 같다. 지나치는 집집마다 조금씩 달라지는 걸쭉한 지방 사투리를 듣다보면 괜한 웃음이 절로 난다. 이 곳에는 그야말로 회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 전국 각지에서 모여 있다.

'만선횟집'은 가게 안에 배가 들어 있는 실내장식과 함께 2층에서 바다를 보는 전망이 좋기로 이름 있는 집이다. 하지만 이 집의 진짜 자랑은 이 집에서 회장님이라고 불리는 유재우 씨(61)이다. 40년이 넘게 활어를 다뤄온 그의 솜씨는 가히 어떤 경지를 보는 것 같다.

한편으로 '태평양수산' 등과 같이 어패류 전문인 곳에 가서 철마다 다른 20여 종 가까운 조개들의 이름을 알아보는 것도, '차씨상회' 등과 같이

인터뷰 변건수 · 월곶상가조합장

"국내 제1의 회타운 건설이 꿈"

월곶상가조합회장 변건수 씨(45). 그는 젊다. 거기다가 그는 실제 나이보다도 더 젊어 보인다. 외부 사람이 조합사무실을 방문하면 그에게 조합장님이 어디 계신가 하고 물어볼 정도. 설마 저 나이에 이렇게 큰 상가의 조합장이랴 싶어서다.

그가 밝히는 월곶종합수산물센터의 발전을 위한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패기가 넘쳐흐른다. 오직 월곶상가의 발전을 위해서라면 분골쇄신할 각오로 뛰고 있기 때문이다. 젊은 나이임에도 그가 상가조합장이 된 것도 그의 그런 열정을 주위에서 먼저 알아보았기 때문이다.

"수도권 지역에서 소래와 노량진수산시장을 능가하는 작품을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는 소래사람이다. 하지만 소래나 노량진수산시장보다 더 큰 우리나라 제1의 회타운을 꿈꾸고 있다. 사람들이 움직이는 아이디어뱅크라고 할만큼 그는 기발한 이벤트행사를 통해 월곶을 성공적으로 홍보해왔다. 지난해, 상가조합원들이 한 마음이 되어 벌였던 '회썰기대회'가 그 예다. 무료시식회를 겸한 그 행사는 매스컴을 통해 전국적으로 월곶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올해는 보다 본격적으로 월곶시장을 활성화시키겠다고 벌써부터 벼르고 있다. 그는 자신이 비록 부족하더라도 조합원들이 적극적으로 협조와 단결로 자신을 도와줄 것을 믿는다고 했다. 월곶이 그냥 왔다가는 곳이 아니라 꼭 다시 오고 싶은 명소로 만들겠다는 그의 올해 계획이 기대를 갖게 한다.

온갖 젓갈류를 전문으로 취급하는 곳을 찾아보는 것도 즐거운 일이다.

월곶동의 젊은 어부가 새벽에 잡은 고기를 실어 나르고 있다.

장관을 연출하는 금빛 낙조

혀에서 살살 녹은 자연산 회와 소주 한 잔에 취해 왁자하던 사람들이 약속이나 한 듯이 한 순간 말을 잃는다. 금빛 낙조. 어느새 가슴속으로 잠겨 들었던 바다가 점점 붉은 빛으로 물들고 있다. 경이로운 광경에 취해 사람들은 감탄사 마저 잃어버린 채 그저 넋이 나간 듯 바라보고 있을 뿐이다. 시간은 갑자기 멎은 것 같고 순간 사람들의 얼굴에서는 점점 붉고 환한 빛이 뿜어져 나온다.

산책로를 따라 걷다보면 소래로 건너갈 수 있는 철길을 만나게 된다. 수인선 협궤열차가 졸인 가슴으로 달캉거리며 지나던 소래 철교 위에서 보는 낙조는 놓칠 수 없는 그림이다. 바다와 하늘, 포구와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순간. 꼭 집어 이유를 댈 수 없는 어떤 서러움과 환희가 북받쳐 오른다. 이때 들이쉰 숨을 참고 눈을 가늘게 뜬 채 귀를 기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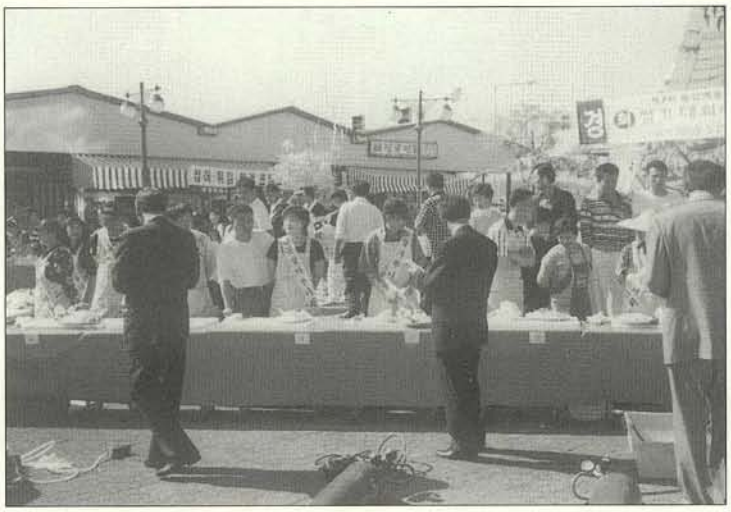
인터뷰 남기성 · 월곶어민협의회장

"소비자와 회원의 이익에 최선"

"소비자와 회원의 이익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월곶에서 자신의 배를 가지고 어업을 하고 있는 어민들의 모임인 어민협의회의 회원은 현재 51명. 회원들이 서로 가족같이 지내고 있어 무엇보다 좋다는 월곶어민협의회 회장 남기성 씨(47). 그는 월곶을 수년 내에 인근에서 제일 가는 항포로 만드는 것이 꿈이라고 했다. 30년이 넘게 바다에서 살아온 남 회장의 고향은 내륙지방인 충북 제천.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하던 중 소래에 놀러 왔다가 바다가 너무 좋아 뱃사람으로 인생을 바꾼 특이한 사람. 그리고 그렇게 어민이 된 것을 한 번도 후회해본 적이 없다. 지금 대학에 다니고 있는 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배를 타겠다고 한다면 말리지 않겠다고 할 정도로 바다를 좋아한다.

어민협의회가 발족된 것은 99년 4월. 98년 8억 원이었던 수협위판고를 99년에는 40억 원으로 끌어올렸다고 한다. 올해의 목표액은 50억원. 그는 월곶에서도 다른 항포와 같이 어민이 잡은 고기를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할 수 있다면 더욱 활기찬 모습의 월곶이 될 거라고 한다. 간자미 회가 가장 맛있다는 남회장. 그 동안 어민회의 숙원이었던 '월곶어촌계' 인가가 곧 있을 예정이어서 수년 내에 인근 최고 항포로서의 월곶의 모습을 보게 될 거라고. 작지만 단단해 보이는 그는 자신감을 보이며 환하게 웃었다.



회썰기대회 심사 장면

회썰기대회에 참가한 상인

이면 '해가 바다를 스치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을 것이다.

월곶에서 소래 쪽으로 넘어가는 철교 근처에 있는 '은하철도999'는 수인선을 지나던 꼬마열차가 이곳에서 쉬고 있는 것 같은 카페. 기차 객실을 카페로 꾸며 놓았다. 기차의 창 밖으로 지는 서해 일몰은 지상이 아닌 별세계에 와있는 듯한 느낌을 주기에 충분하다. 가볍게 칵테일을 한 잔 할 수 있는 칵테일 바 '모인터'도 연인들끼리 들러볼 만하다.

직거래장터 · 기계위락시설 곧 개장

월곶은 언제라도 가슴속에 쌓여 있는 답답함을 털어버릴 수 있는 곳이다. 그러나 요란하지 않다. 하늘, 바다, 낙조, 바람, 싱싱함, 흥겨움, 신선함……. 월곶은 이런 것들을그저 담담하게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있을 뿐이다.

여의도에서 자동차로 1시간 정도만 달려가면 바다를 만날 수 있고 싱싱한 횟감의 풍성함에 취할 수 있는 곳. 월곶은 도시생활에서 쌓은 이런 저런 스트레스를 말끔히 지워버리고 새로운 생기를 충전시키고 싶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부담 없이 찾을 수 있는 곳이다.

월곶은 서해안의 명물 포구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중이다. 무엇보다 월곶을 찾는 사람들이 언제라도 싱싱한 횟감을 사갈 수 있는 직거래(좌판) 장터가 활성화될 계획이며 포구에 들어선 횟집들도 위치마다 좀더 특성 있게 정리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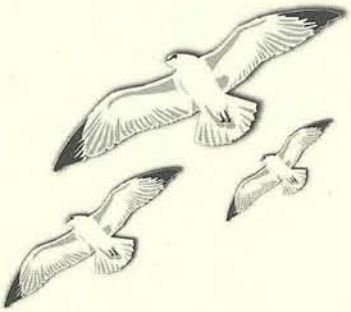
월곶을 전국적으로 알리기 위한 다양한 행사들도 준비 중이다. 지난해에 전국적으로 월곶을 알리는 계기가 되기도 했던 '월곶회썰기대회'는 올해 더 규모 있고 독특한 이벤트로 열릴 계획인데, 상가주민과 방문객들이 하나가 되는 한판 축제의 장으로 자리잡을 것이라고 한다. 또한 망둥어 낚시대회, 서해를 한 바퀴 둘러보는 유람선의 운행도 적극 추진되고 있어 상인들은 벌써부터 준비를 서두

르고 있다.

또한 가까운 곳에서 가족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기계위락시설이 개장을 서두르고 있다. 수산물 센터 뒤편으로는 30여 곳의 깨끗한 장급 숙박시설들이 이미 자리잡고 있고 있으며 특히 3,000여 대 이상 주차할 수 있는 넓은 주차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서해안 고속도로가 이미 완공되어 교통은 수도권 관광지보다 좋은 편. 또한 수도권 시민들이 즐겨 찾는 섬들인 오이도와 대부도는 여기서 20분 정도의 거리에 있어 섬과 포구의 흥취를 마음껏 즐길 수 있다. 글 · 최낙영(자유고기가)

시흥 월곶 물때

음력날짜	물때	시간	음력날짜	물때	시간
8일 23일	조금		16일 1일	칠물	2시 40분
10일 25일	일물		17일 2일	팔물	3시 20분
11일 26일	이물		18일 3일	구물	4시
12일 27일	삼물	12시	19일 4일	십물	4시 20분
13일 28일	사물	12시 40분	20일 5일	십일물	5시
14일 29일	오물	1시 20분	21일 6일	십이물	5시 40분
15일 30일	육물	2시	22일 7일	십삼물	6시 20분



이렇게 찾아오세요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지하철 1호선을 타고 개봉역에서 내려 1번 버스를 타고서 광명시를 거쳐 월곶에서 내리면 된다. 개봉역에서 월곶까지는 40분 정도 소요.

승용차를 이용할 때는 부평을 거치는 구도로도 요즘 한산한 편이지만, 시흥대로에서 새로 개통된 서해안고속도로를 타고 월곶 IC에서 들어가는 것이 좋다. 서해연안 매립으로 인해 들판으로 변해버린 수만 평에 걸쳐진 폐염전을 지나는 느낌도 색다르다.

소래산 산림욕장

시흥시의 대야동과 신천동에 걸쳐 자리잡고 있는 소래산은 자연 경관이 뛰어나기로 소문난 곳. 해발 299m의 비교적 낮은 산이지만 정상에 오르면 시야가 확 트여 있어, 맑은 날이면 서울 시가지와 서해 바다를 그림처럼 내려다볼 수 있을 정도다. 잣나무와 소나무로 우거진 숲이 이어져 있어 연인들이나 가족들이 서로 손을 잡고 천천히 걸으며 산림욕을 즐길 수 있다. 산기슭에는 조선시대 영의정을 지냈던 하연의 묘가 있고, 동쪽 정상에는 고려 초에 만들어진 마애보살입상이 병풍바위에 선각되어 있다.

물왕저수지

시흥시 물왕동에 자리잡은 물왕저수지의 공식 명칭은 흥부(興富)저수지. 시흥의 '흥' 자와 부천의 '부' 자를 합친 말이다. 낚시꾼들에게 최고의 낚시터로 알려져 있는 이곳은 사방으로 산들이 둘러싸고 있어 그 경관이 아주 빼어나다. 낚시를 좋아했던 이승만 전 대통령이 전용 자리를 만들어 놓고 자주 들러 즐길 정도로 유명한 곳이기도 하다. 제방 아래 물왕사거리에서 안산시로 가는 방향으로 약 500m 정도 들어가면 대하역사드라마 '용의 눈물'로 유명해진 조선 초 공신 이숙번의 묘역이 있다. 이곳에서 바라보는 저수지의 풍경은 가히 환상적이다.

영상에 행복을 담는 주부들
우먼포커스

뒷줄 왼쪽 끝에서부터 시계방향으로 박원영 회장, 김점현 회원, 박명자 총무, 김경미 회원, 박청림 회원

우먼 포커스는 시흥문화원 문화교실 역사비디오반 회원들이 주축이 된 타큐멘터리 제작 동호인 모임이다. 회원들은 1999년이 평생 잊을 수 없는 한해가 될 것 같다고 말한다. 신문, TV, 잡지 등 줄잡아 30여 군데의 매스컴에 보도가 되다 보니 알아보는 사람들이 많아 몸가짐이 달라지더라고 회원들은 한결같이 입을 모은다.

도대체 이들은 무슨 일을 했기에 각종 매스컴의 주목을 끌었을까. 우선 회원들의 면면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현재 우먼 포커스의 회원은 회장인 박원영(41), 총무인 박명자(37), 김경미(37), 박청림(36), 김점현(32) 씨 등 5명이다. 유아에서부터 중학생 자녀를 둔 평범한 주부들이다.

이들이 유명세를 타게 된 동기는 시흥문화원 문화교실 역사비디오반의 강좌에 수강신청을 내던 장면으로 거슬러 올라가야만 한다. 역사와 관련된 비디오 자료를 수집하거나 감상하는 강좌인

줄로만 알고 아이들의 교육에 보탬이 되고자 강좌에 참여했다.

그러나 비디오 카메라의 간단한 조작방법을 가르쳐 주고는 무엇이든 찍어오라는 다큐멘터리 제작 전문가 박성미 강사의 요구에 당황하고 말았다. 선생은 팀을 짜서 상의를 하라고 조언했고 이때 같은 조를 이뤘던 사람들이 강혜자(42) 씨를 포함한 6명이었다. 날이 갈수록 중도에 포기하는 수강생들이 늘어났고, 주부라는 현실적인 문제들이 부담으로 작용했지만 회원들은 '우먼 포커스'라는 명칭을 내걸고 무엇을 카메라에 담을까 고민하기 시작했다.

회원들이 기획회의를 통해 원칙을 정한 것은 주변에서 흔히 만날 수 있는 모습을 담자는 것이었다. 연출, 촬영, 시나리오, 편집에 이르기까지 문화교실 강사의 도움을 받아가며 제작에 들어갔다. 이들 주부들에 시선에 잡힌 모습들은 거창한 것들보다 시장풍경, 고단한 인생을 살고 있는 이웃, 자녀들의 등교하는 모습에 이르기까지 사소하고도 일반적인 장면들이었다. 이들 중 박명자 씨와 김점현 씨는 한 평 남짓한 수선집에서 구두수선을 하며 꿋꿋이 살아가는 상희 엄마의 일상을 카메라에 담기로 했다. 하반신 불구 상희 엄마는 얼마 전 척추장애를 앓던 남편이 세상을 떠나자 여섯 살짜리 상희를 떠 안고 목발에 의지하며 살아가는 구두수선공이었다. 냉담하게 거절하던 상희 엄마를 주부 특유의 동질감으로 설득하여 영상제작에 들어갔다. 마음이 통하고 불신의 벽이 무너지자 친구가 돼버린 이들은 대화를 통해 서로의 삶을 털어놓으며 눈물도 많이 흘렸다고 한다.

우여곡절 끝에 다큐멘터리 「상희 엄마의 홀로서기」는 완성되었다. 이 작품은 서울 동숭동 대학로에서 1999년 10월에 개최된 「주부영상비디오제」에서 은상을 차지했고, 「제1회 시흥시민영상제」에서 대상을 차지했다.

박원영 회원이 연출을 맡고 강혜자 회원이 내레이션, 김정미 씨가 카메라를 잡은 「시흥에서 태어난 인선왕후」는 시흥시의 역사인물을 새롭게 조명한 작품이었다. 장곡동 출신인 조선시대 효종의 비 인선왕후가 남긴 발자취와 한글편지 등이 가지는 의미를 되새겨 지역사회와 역사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다고 회원들은 토로한다. 이 작

「상희엄마의 홀로서기」 작품을 검토하고 있는 회원들

「제1회 시흥시민영상제」 수상자들

품은 「주부영상비디오제」에서 동상을 차지했다.

박청림 회원이 연출, 시나리오, 촬영 등을 모두 도맡아 제작한 「하늘 가까운 집」은 가정형편이 어려운 동네 어린이 60여 명이 모여 있는 샘물공부방에서 꿋꿋이 살아가는 아이들의 이야기다. 이외에도 생활주변의 신변잡기를 담은 「주말농장이야기」, 초등학교 앞의 교통문제를 지적한 「뛰뛰빵빵」 등을 제작했다.

최근에는 시흥시 월곶동에서 젓갈을 파는 할머니의 이야기를 담은 「시흥을 지키는 사람들」을 완성하였다. 이 작품에서는 최근 회타운으로 관심을 끌고 있는 월곶지구의 발전방안까지 접근하여 지역사회에 대한 주부들의 관심사를 드러냈다.

우먼 포커스의 활동은 몇 가지 성과를 가져왔다. 예술시선의 주최로 열린 「주부영상비디오제」에서 4작품을 출품하여 「상희 엄마의 홀로 서기」가 은상을 수상하는 등 4작품이 모두 수상을 한 것이었다. 또한 이들의 작품은 「제1회 시흥시민영상제」에서 상을 휩쓸었다. 각종 매스컴의 취재대상이 되었음은 물론이었다.

평범한 주부들의 사소한 취미활동이 반향을 일으킨 것은 거창한 문제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다. 이들의 활동이 주목을 받은 것은 주변의 생활문제, 이웃의 아픔, 지역의 발전문제, 시끌벅적한 시장의 생활상, 자녀들의 등교문제 등 주부의 시선에 잡힌 가벼운 문제를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영상에 담았다는 데 있다. 또한 영상제작에 필요한 연출 · 시나리오 · 촬영 · 내레이션 · 편집 등을 주부, 혹은 시민들이 직접 맡아 작품으로 만들었다는 점에 있다.

우먼 포커스의 회원들이 만들어낸 작품은 지금까지 총 7편이다. 따라서 회원들은 최근 각종 언론에 주목을 받으면서도 내심으로는 적지 않게 부담스러웠다고 말한다. 이제 출발인데 이미 종점에 와 있는 듯한 두려움 때문이다.

결국 회원들은 작품의 완성도와 다른 작품의 제작을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 중이다. 우먼 포커스가 탄력성을 얻고 내실을 다지기 위해서는 목표가 뚜렷해야 한다는 결론을 얻게 되었다. 그래서 우선 이들의 목표는 「여성영화제」에 출품하는 것으로 설정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관련된 전문가들을 찾아다니며 이론과 실습을 채득할 예정이다. 아울러 우먼 포커스 2기 회원들을 모집하여 향후 활동을 극대화 할 예정이다.

「하늘 가까운 집」

「뛰뛰빵빵」

우먼 포커스 회원들

박원영 회장

결혼한지 17년이 된 경상도 출신 부산아줌마다. 컴퓨터사업을 하는 남편과의 사이에 황승현, 황정부 등 2남을 둔 주부이다. 서울에서 살다가 1988년에 처음 매화동으로 이사를 와서 10년 넘게 살다보니 시흥이 제2의 고향이라고 말한다. 배드민턴, 탁구, 문학 등에 소질이 많은 팔방미인이며, 적극적인 성격이고 임기응변에 능하며 순발력이 강하다고 회원들은 평한다. 성격이 급한 것이 흠이라는 지적도 있다.

박명자 총무

결혼한지 10년째인 박명자 회원은 1990년에 매화동 서능아파트로 분양을 받아 들어오면서 시흥시민이 되었다. 충북 영동이 고향이며, 「상희 엄마의 홀로 서기」, 「뛰뛰빵빵」등을 연출하여 능력을 인정받았다. 차분하고, 꼼꼼하며, 책임감이 강하다고 회원들은 입을 모은다. 매사에 조심성이 강하고 노파심이 심한 것이 흠이라면 흠이다.

김경미 회원

우먼 포커스 회원 중에서 가장 감성이 풍부한 주부다. 안타까운 장면을 보면 가장 먼저 눈물을 글썽거린다. 결혼생활이 13년째이고 부천에서 살다가 시흥으로 이사와 9년째 살고 있으며, 김현재, 김현정 등 1남 1녀를 두고 있다. 「시흥에서 태어난 인선왕후」의 촬영을 맡아 활약했고 정이 많으며 차분한 성격이다.

박청림 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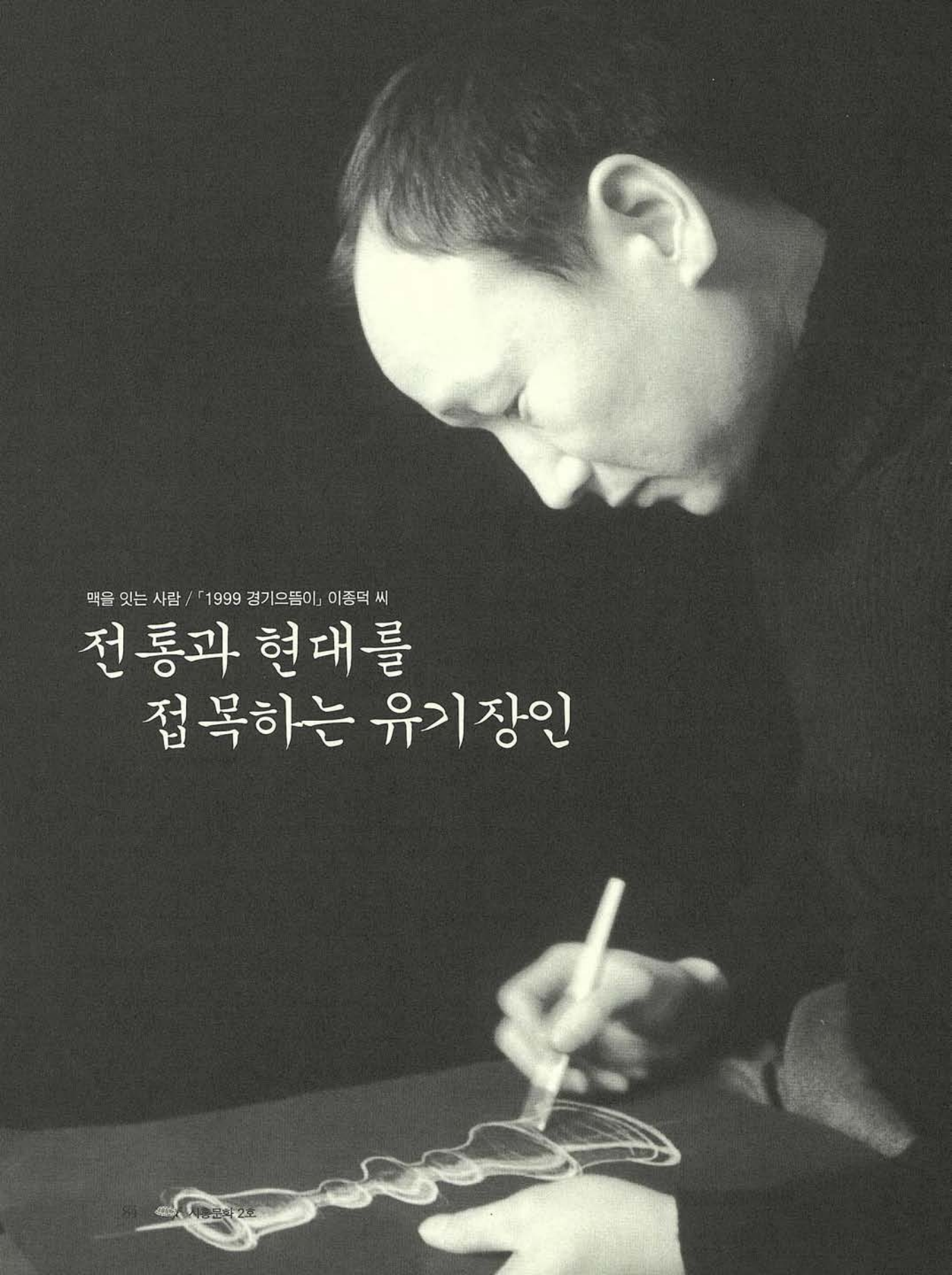
결혼생활이 12년째이며 딸 둘(김민지, 김민정), 아들 하나(김창환)를 두고 있다. 경남 마산이 고향이고 서울에서 살다가 1995년도에 시흥시로 이사왔다. 연출, 시나리오, 촬영 등을 도맡아 「하늘 가까운 집」을 제작했다.

김점현 회원

최승희, 최승미 두 딸의 자상한 엄마인 김점현 씨는 올해로 결혼생활이 10년째이다. 최근에 남편이 최신형 6㎜ 캠코더를 구입해 주어 앞으로 의욕적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고향은 전라도 익산이며 1992년도에 매화동 서능아파트로 이사와 시흥시민이 되었다. 조용하고 내성적인 성격이며, 소년소년 가장들의 얘기를 영상에 담을 계획이다.

맥을 잇는 사람 / 「1999 경기으뜸이」 이종덕 씨

전통과 현대를 접목하는 유기장인



방자유기란 구리와 주석을 78% : 22%의 비율로 합금하여 용해한 후 반복적으로 불에 달구어 고유의 망치질, 또는 단조를 통해 징, 꽹과리, 종, 놋그릇 등을 제작하는 유기제작 방법 중의 하나다. 안성의 주물유기, 순천의 반방자유기 등이 많이 알려져 있다. 우리 고장 시흥시의 방자유기 장인 이종덕 씨는 스스로를 쉽게 소개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 그는 자신을 소개할 때 "안녕하십니까, 꽹과리 만드는 이종덕입니다"라고 서슴없이 외친다. 이러한 태도에는 몇 가지 혐의가 포착된다. 첫째는 무척 솔직한 사람이라는 것이고, 둘째는 무엇이든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매우 개방적인 사람이라는 것도 알아챌 수 있다.

오롯이 피어나는 방자유기 사랑

실제로 그는 매우 솔직한 사람이다. 자신의 경력을 밝혀서 손해를 입을 것과 이득을 볼 것을 구분해야 옳지만 굳이 따지지 않는다. 그는 충남 부여가 고향이다. 군대를 제대한 후인 1986년 친구의 부친인 인간문화재 이봉주가 운영하는 안양유기(현재는 납청유기)에 사무직으로 입사하여 방자유기를 처음 접하게 됐다고 한다.

사무직으로 근무했으면서도 안양유기에서 3년간 유기의 제작과정을 답습한 그는 1989년 두레공방이라는 전통공예품 판매점을 열게 된다. 전통공예품에 대한 제작과 디자인에 특별한 관심을 숨길 수 없었던 그는 결국 1993년에 방자유기 제작공장을 인수하여 두레산업이라는 유기공장을 설립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제작기술이 떨어져 늘 적자에 시달렸고, 기술 습득에 주력할 수밖에 없었다. 주변사람들의 격려와 직원동료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없었다면 그나마의 성과도 요원했을 것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아울러 놋쇠로 만든 제품들이 현대인의 의식 속에서 이미 추억으로만 남아 있는 터라 예나 지금이나 적자를 모면하기 어렵다는 것이 그의 고백이기도 하다.

방자유기 제작에 입문한지 14년이 되었지만 이종덕 씨는 여전히 자신의 역량에 늘 우려를 나타낸다. 때문에 그는 뒤늦게 학습에 열을 올리고 있다. 유한대학 산업디자인과에 입학하여 2년 동안 그야말로 주경야독의 생활을 거듭한 끝에 수석졸업의 영예를 안았다. 이에 그치지 않고 그는 현재 강남대학교 미술산업디자인과에 편입하여 심도있는 디자인 공부에 열중하고 있다.

디자인에 대한 그의 관심은 몇 가지 성과로 설명할 수 있다. 그는 1994년부터 1996년까지 전승공예대전 방자유기부문에서 3년 연속 장려상 및 입선을 차지했다. 특히, 1998년에는 경기산업디자인 전람회에서 대상과 입선을 휩쓸어 뛰어난 실력을 인정받았다.

그는 디자인을 전공하면서 대학의 교육이 대부분 서양식 디자인에 치중하고 있는 점이 안타깝다고 말한다. 따라서 그는 우리나라 전통문양에 관심을 쏟아 전통적 디자인과 현대적 디자인을 올바르게 접목하여 새로운 디자인을 창출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힌다.

전통과 현대를 접목하는 유기장인

방자유기 장인 이종덕 씨는 무엇이든 쉽게 설명한다. 자신이 만든 징을 울려보고는 무슨 소리가 들리느냐고 묻는다. 소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다고 말하자 미소를 굳이 감추려 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이 만든 징을 울려보자 가볍고 시끄럽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

그는 답습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주장한다. 유기제작에도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고 있다. 그는 징이나 꽹과리를 제작할 때 물리학 박사과정을 수료한 자신의 처남의 도움을 받아 음향측정기 등 각종 첨단계기를 구입하여 유기제작에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제작에 대한 고집은 제품으로 나타나 전문가들이 주로 그의 제품을 찾고 있다.

무엇이든 쉽게 설명한다는 것은 대상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이는 불가능하다. 유기제품 하나하나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쏟는 그는 주문자가 단 하나의 제품을 만들어 달라고 해도 어김없이 만들어 주고 있다. 두레산업에서 만드는 방자유기는 징을 비롯해서 꽹과리, 촛대, 종, 제기, 엿장사 가위에 이르기까지 놋쇠로 만드는 제품은 소량이라고 해도 무엇이든 만들어 준다. 당장에는 이익이 없더라도 제품의 제작을 통하여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고 단골을 확보할 수 있다는 배려 때문이다.

아울러 이종덕 씨는 매우 개방적인 사람이다. 일반적으로 유기공장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제작 과정을 쉽사리 보여주려 하지도 않고 심지어 숨기기까지도 하는데 그는 그렇지 않다. 관람을 원하는 사람들이 미리 연락을 주고 오면 좋고, 그렇지 않더라도 아무 때나 공장을 견학할 수 있도록 개방해 놓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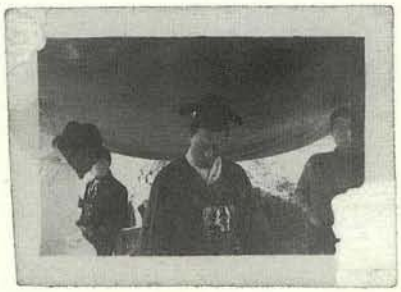
「1999 경기으뜸이」의 고뇌

방자유기 장인 이종덕 씨는 제작자일 뿐만 아니라 유기의 광적인 수집가이기도 하다. 주위의 무관심과 냉대 속에서도 유기를 수백 점을 수집하여 필요로 하는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었고, 유기박물관을 짓는 초등학교에 자신이 수집한 유기를 기증하는 등 잊혀져가는 우리 문화를 살리는 데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이종덕 씨는 최근 기쁨과 슬픔을 동시에 맛보았다. 우선 「1999 경기으뜸이」로 선정된 것은 그 동안의 생활이 헛된 것만은 아니라는 위안을 안겨주었다. 그러나 이종덕 씨는 공장의 이전 문제로 심각한 고민에 빠져 있다. 방자유기 제작공장은 원래 소음이 심하기 때문에 주변사람들이 입주를 꺼리기 때문이다. 현재 공장의 위치는 민가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서 최상의 적지이지만 그린벨트 안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다. 주변사람들로부터 곧 그린벨트가 해제될 거라는 말만 믿고 공장을 인수한 것도 불찰이었지만 다른 지역으로 옮길 형편이 아니라서 마음이 편치 않아 정말 고민스럽다고 고백한다.

계수동 사람들

계수동 이종혁 씨네 가족사진



이종혁 씨 결혼사진

계수동 복숭아과수원의 오누이

친구들과 과수원에서

수확의 기쁨

한강수리조합에 근무했던 이종혁 씨 부친 이한영 씨

시흥의 옛 이야기

따뜻한 전설의 고향, 시흥 · II

홈뿌리우물에 얽힌 전설

장곡동 긴마루 마을(長宗里)의 본래 명칭은 배 모양처럼 생겼다고 하여 '배형국' 이었다고 한다. 그런데 이 마을 안에 우물을 파고 식수로 사용하면 많은 사람들이 질병에 걸려 죽고, 또 도둑이 심해서 마을이 망하기 일쑤였다고 한다.

그래서 마을사람들이 고심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 마을의 촌장의 꿈에 신령이 나타나 '배형국' 이라는 마을명을 쾌명해 주며,

"배 안에다 우물을 파니까 배가 가라앉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고는 사라졌다고 한다. 촌장이 깜짝 놀라 깨어보니 꿈이었다.

촌장은 고심하던 중이라 하도 신기해서 마을사람들과 의논한 끝에 마을 내의 모든 우물을 메우고 마을에서 벗어난 지역의 홈뿌리의 우물을 파서 식수로 쓰니 그후부터 마을에 우환이 없어지고 도둑도 자취를 감추어 살기 좋은 마을이 되었다고 전해진다.

해방꽃우물 전설

장상동 노리울마을(獐谷)에 '해방꽃우물(또는 해방초우물)' 이 있다. 전하는 바에 의하면 예로부터 물이 맑고 깨끗하고 여름이면 이가 시릴 정도로 차고, 겨울이면 따뜻하여 마을사람들이 식수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1945년 광복이 되던 해 봄에는 신기하게도 그 우물 위에 풀이 떠오르면서 예쁜 꽃이 피었다고

한다.

그렇지 않아도 이 우물은 국가적인 큰 변동이 일어날 때에는 신비스러운 변화가 발생한다고 믿고 있었는데 이 꽃이 피던 해에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해방이 되었다고 하여 그 후부터 이 우물을 해방꽃우물, 혹은 해방초우물(또는 큰우물)이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일설에는 해방되던 전해(1944)에 마을사람들이 우물물을 청소하기 위해 갔더니 꽃이 피어 있었다고 한다. 그 이듬해에 해방이 되어 해방꽃우물이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것이다.

지금은 각 가정마다 상수도시설이 설치되어 있어 이 우물은 사용되지 않았고, 우물 또한 식수로 사용되었을 때는 우물 위에 지붕을 세우기도 했지만, 1994년에 메워졌다. 안산상고에서 안산 쪽으로 가다가 수인산업 왼쪽 논 가장자리에 있었다.

은우물 전설

장상동 동막골마을과 안산시 부곡동 개멀(元釜谷) 사이에 '은우물'이라는 우물이 있다. 물이 언제나 맑고 깨끗해서인지 다른 우물과는 달리 푸른 기운이 돈다. 뿐만 아니라 이 우물은 하도 영험하여 아무리 날이 가물어도 물의 양이 줄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그래서 날씨가 가물어 농사일이 어렵게 되면 집집마다 쌀을 거두어 떡을 해서 이 우물에 고사를 지낸다. 그러면 며칠 후에 반드시 비가 내렸다고 한다.

그런데 이 우물을 은우물이라고 부르게 된 이유는 이렇다.

아주 먼 옛날 이곳에 어느 부자가 살았는데 전란이 나자 은비녀를 이 우물 속에 넣고 피난을 갔다고 한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마을사람들이 이 비녀를 찾으려고 애를 썼지만 그때마다 뇌성병력이 일어나 결국에는 찾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다. 이후부터 사람들은 이 우물을 '은우물'이라 부른다고 한다.

노루우물 전설

예전에 장곡동 매꼴마을의 노루우물가에 큰 부자가 살고 있었는데 어찌나 욕심이 많은지 거지는 말할 것도 없고 스님이 시주를 청해도 시주는커녕 목탁과 배낭마저 빼앗아버리는 고약한 성질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마을에서는 물론이고 가까운 동네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고 나쁜 소문이 나 있었다.

하루는 고명한 스님이 마을에 왔다는 소문이 퍼졌다. 그 욕심쟁이 부자는 그 스님을 불러 어찌하면 우리 집에 동냥아치나 구걸뱅이가 오지 않겠느냐고 물었다. 이에 스님이 말하기를,

"당신네 뜰 앞에 있는 노루바위를 깨뜨려버리면 다시는 거렁뱅이들이 오지 않을 것이오."

하고는 유유히 사라졌다.

욕심쟁이 부자는 그 길로 큰 망치를 들고 가서 노루바위의 목을 쳐서 목이 떨어져 나갔는데 그때 목에서 선혈이 뻗쳐올랐다고 한다. 그후 욕심쟁이 부자의 집은 차차 망했다고 한다.

한편 노루바위의 목에서는 계속 피가 흘러나오자 우물자리에다가 절을 짓고 정성을 다하자 피가 멎었다고 한다.

지금도 그 부잣집 터에서는 옛날 기와장이 출토되고 있는데 1950년대에는 어떤 사람이 옛 절터에 '대안사' 라는 절을 짓기도 했다. 그리고 현재도 그 노루바위의 일부라고 하는 쑥돌이 우물 깊숙이 박혀 있다.

노루우물은 1970년대 초에 복원하여 마을 공동 빨래터로 이용될 뿐만 아니라 농업용수로도 활용되고 있다. 오늘날까지도 이 마을에서는 어려운 사람이나 거지를 업신여기거나 괄시하면 노루우물 부자처럼 패가망신한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으며, 아울러 걸객을 대접하는 미풍이 전해지고 있다.

굴렁바위 전설

거모동 사이마을 뒤에 옥녀봉이 있다. 옛날에는 그 옥녀봉을 넘어가는 고개 동쪽으로 커다란 바위가 하나 있었는데 그 바위를 '굴렁 바위' 라고 불러왔다. 이 굴렁 바위에는 여러 가지 형태의 동물 발자국이 패어 있었다. 그런데 이 고개를 넘으려는 가마꾼들의 발이 굴렁바위 곁에만 다다르면 이상하게도 그 자리에 꽉 달라붙었다고 한다. 그래서 가마꾼들은 그 굴렁바위의 곁으로 가는 것을 꺼렸다고 한다.

그러던 어느 날, 담력이 센 가마꾼들이 자기의 담력만 믿고 굴렁바위 곁을 지나가려고 하다가 역시 그들도 이 굴렁바위 곁에 와서는 영락없이 두 발이 꽉 붙어 꼼짝을 못 하였다. 가마꾼들은 기를 쓰고 발을 떼려 하였지만 허사였다.

그때 그 가마 안에 타고 있던 어느 대감집 마님이 입을 열었다.

"얘들아! 가마를 내려놓아라."

가마꾼들은 하는 수 없이 그 자리에 가마를 내려놓았고 마님은 천천히 가마에서 밖으로 나와서는 이미 소문을 들어 알고 있던 굴렁바위 곁으로 가 그 바위를 훑어보았다.

"얘들아! 그 뒤에 지고 오는 짐 가운데 가다가 먹을 점심밥이 있느니라. 그것을 이리 가져오너라."

영문을 모르는 가마꾼은 가마 뒤에 따라오던 하인들에게 가서 마님의 분부를 전하였고 얼마 후 하인들은 점심으로 준비해왔던 음식을 굴렁바위 위에 나란히 올려놓았다.

그러자 마님은,

"얘들아! 너희들이 이 바위 앞에 꿇어 엎드리어 사죄하고 변변치 않은 것이나마 맛있게 드시라고 말하여라."

라고 가마꾼들에게 일렀으며, 가마꾼들은 시키는 대로 시행하였다.

"됐다. 이제 다시 가자."

말을 마친 마님은 가마 안으로 들어갔다. 가마꾼들은 서로 바라보며 고개를 갸웃갸웃 하다가 곧 가마채를 들었다. 그리고 발을 떼어놓았다. 그런데, 기가 막힐 일이 아닌가! 언제 그랬느냐 싶게 발걸음도 가볍게 가마는 쏜살 같이 달려갈 수 있었다. 한참 뒤에 앞 가마꾼은 가마 속의 마님에게 궁금하여 견딜 수 없다는 듯이 물었다.

"마님, 어찌된 일입니까?"

가마 속에서 마님의 음성이 흘러 나왔다.

"뻔한 것을 가지고들 법석을 떨었구나. 내려가 그 바위를 자세히 보니 산중 왕인 호랑이들의 발자국이 꽤 많더라. 새끼 호랑이에서부터 어미 호랑이에 이르기까지…. 그러니 그 바위에는 산중 왕인 호랑이들의 영혼이 한데 엉겨 쉽게 떠나지를 못하고 있었으니, 그 동안 얼마나 허기가 졌겠느냐? 동물도 인간과 같은 거지. 그러니 간단한 제사를 지내 주면 그 노여움이 풀리지 않겠느냐."

이런 일이 있은 후로는 굴렁바위 곁을 지나는 가마꾼들은 항상 제사를 올렸고, 그러고 나면 무사히 그 곁을 지나갈 수 있었다고 한다. 얼마 전까지도 이 곳에서는 굴렁바위제가 심심찮게 치러졌었는데, 요즘에는 이 옥녀봉 근처에 군사기지가 생기고 길도 넓혀져 그 굴렁바위의 행방을 알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이 굴렁바위의 이야기도 전설로만 남아 있게 되었다.

전통 종가를 찾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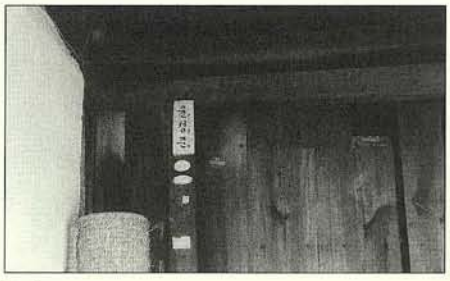
선비의 지조와 절개의 본산(本産)

윤성준 종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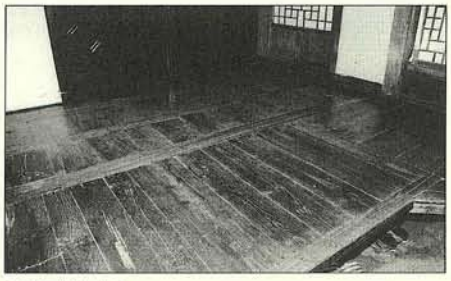
시흥시 산현동 279번지에 위치한 윤성준(尹星埈) 종가(宗家)는 시흥의 대표적인 위락시설인 물왕저수지가 옆에 있어서 풍경이 남달리 뛰어나다. 이곳은 골월마을이라고도 하는데 본래 왕골[莞草]이 많이 자생한다고 하여 '완골[莞谷]' 이라고 했었다. 그후 고주물고개에서 골월에 이르는 골짜기의 길이가 오리라고 하여 '골오리' 라고 했다가 후대로 내려오면서 '골월' 이 되었다고 한다.

이곳에는 파평 윤씨 영평위파 윤성준의 18대조인 윤승유(尹承柳, 1475~1505, 사복시정 역임)가 처음 입향했으며, 그후 안동 권씨인 권택길(權澤吉, 1594~1665, 호조참판)의 후손 등이 세거하면서부터 취락이 형성되었다고 한다. 이곳에는 조선 태종 때 좌찬성을 역임한 이숙번(李叔番, 1373~1440)의 묘도 있다.

종손인 윤성준 씨는 파평 윤씨 영평위파 27대 손으로 안산단위농협 조합장을 맡고 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종가는 80여 년 된 건물로 오랜 풍상을 겪으며, 수차에 걸쳐 개축을 하여 원형을 많이 상실하였으나 대문(사진 1)은 신축 당시의 그대로이



문패



우물정자 마루

사당(승모각)

축담

고 마루는 우리의 전통양식의 우물 정자(사진 2)이며, 담장은 돌과 흙으로 석축하였다고 한다(사진 3). 본래 이곳에서 서남쪽으로 약 600m 떨어진 깨꼴마을에서 대대로 살아오다가 조부인 독립유공자 윤동욱이 현 위치로 이전하였다고 한다.

건물의 형태는 우리나라의 전래 주거형태인 튼 'ㅁ' 자 형태이고 사당은 선조대대로 살아왔던 깨꼴마을에 있다. 사당의 이름은 '숭모각(崇慕閣)' 이라고 부르며(사진 4), 사당 뒤에는 윤성준의 14대조인 윤민헌의 묘가 있다.

종가의 의례 및 전례음식을 살펴보면 우선 연간 제사는 8회를 올리고 있다. 제사를 지내는 대수는 4대, 참여촌수는 4촌까지이다. 가정에서 생산되는 이외의 제수는 모두 일반 시장에서 구입하고 있다. 정월과 추석 때는 이웃에 거주하는 문중 여인들이 모여 한과, 떡, 탕, 적, 나물류 등을 준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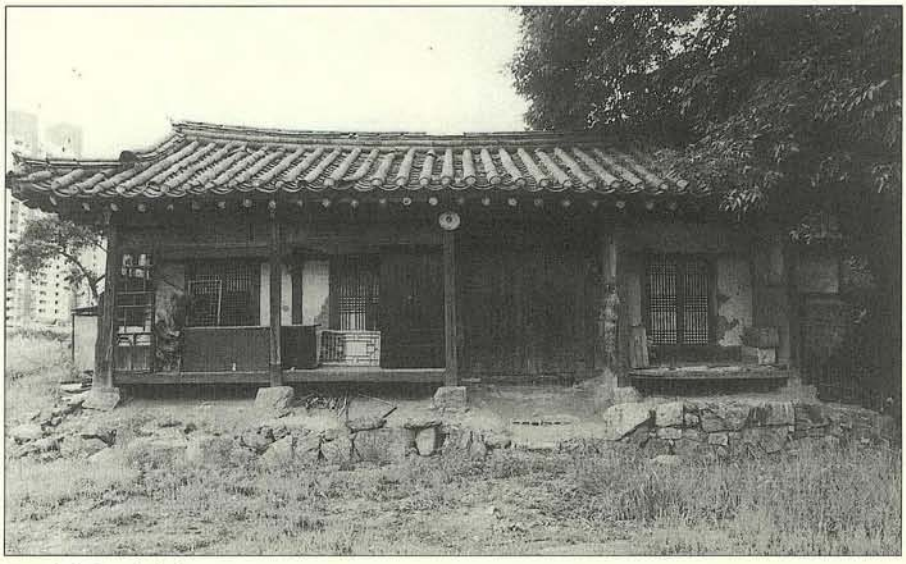
가문을 빛낸 조상을 살펴보면 시조는 윤신달(尹莘達), 중시조는 윤관(尹瓘), 파조는 윤섭(尹燮)이다. 17대조 윤섭은 성종의 딸인 정숙옹주와 결혼한 부마(駙馬)였으며, 14대조 윤민헌은 조선시대의 문신으로 이이, 성혼의 문인이었고 공조참의에 이

르렀으며 의정부 좌찬성에 추종된 인물이다. 이밖에도 윤지미, 윤상형, 윤행수, 윤칭 등의 선조는 조선시대 문신들로 명망이 높았다. 아울러 윤성준의 조부인 윤동욱은 숙종 때 우의정을 지낸 윤지완의 후손으로 1919년 3월 30일 시흥군 수암면 일대의 독립만세운동을 주도한 독립운동가다.

한걸택 종가

청주 한씨 서평부원군파 14대 손인 한걸택 종가는 시흥시 거모동 745-1번지 3통 4반에 자리잡고 있다. 시흥시 군자~월곶간 도로에서 시화공단 입구 삼거리에 위치한 도로변 마을이다. 이곳 거모동 거무개[去毛浦]마을은 조선조 세종 때 학자인 정인지의 셋째 아들인 정승조의 후손이 처음으로 세거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조선시대에는 안산군 대월면 거모포라고 칭했던 이 마을은 1914년 부군폐합 때 법정리 명칭인 거모리를 이 마을 명칭으로 하였다. 이곳에는 조선 16대 왕인 인조의 장인인 한준겸(韓浚謙, 1557~1627)의 묘를 비롯하여 한회일(韓會一, 한준겸의 아들로 한성좌윤을 역임) 등의 묘가 있다.

종손인 한걸택 씨는 현재 공무원으로 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 사무총장직을 맡고 있다. 시흥시 건축물대장에는 한걸택 종가는 1925년에 신축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



목조와가인 구가 전경

고풍미를 풍기는 신축 한옥

최근 신축한 사당

으며, 목조와가이다. 안마당에 대대로 사용한 돌절구가 있다.

선조들의 묘가 모두 주택 뒤에 있는데 때문에 대대로 이곳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구건물 옆에는 최근 신축한 한옥이 고풍미를 풍기며 위용을 자랑하고 있다. 사당은 본래 주택 뒤에 있었다고 하나 그 뒤 훼철되어 최근에 주택 바로 뒤에 신축하였다.

의례 및 전례음식을 살펴보면 우선 연중 제사는 13회를 올리고 있다. 제사를 지내는 대수는 불천지위인 파조 한준겸을 비롯하여 부모의 제사를 지내고 있다. 불천지위 한준겸의 제사 때는 그의 후손 약 20명이 참여하고 일반제사는 종손 한걸택 부자만 참여하고 있다. 제사음식의 준비는 일반 가정의 예와 같고 과일로는 대추, 밤, 사과, 배 등을 준비하고 그밖에는 포, 식혜, 숭어, 나물류 등을 마련하여 제사를 지낸다.

현재 한걸택 종손이 소장하고 있는 고문서는 소지(所志)를 비롯하여 교지, 치제문, 명문, 가상초, 전가필첩 등 49가지에 이른다.

가문을 빛낸 조상으로는 시조인 한란(韓蘭), 중시조 한준겸 등을 꼽을 수 있다. 조선시대의 문신인 한준겸은 선조 12년(1579) 생원시와 진사시 양시에 장원으로 합격하고 선조 18년(1585) 태릉참봉에 제수되었으며, 이듬해 별시 병과에 2등으로 급제하여 이 해 예문관 검열이 되었고, 이어 홍문관 정자에 올라 문장으로 이름을 날렸다. 그후 여러 관직을 거쳐 인조반정 후 그의 딸이 인렬왕후로 책봉되자 서평부원군에 봉해졌다.

그외에도 한성부판관, 돈령부판관을 지낸 한두상, 고성군수를 한 한종로, 의금부도사 등을 역임한 한진하, 한산군수를 역임한 한익동, 돈령부조정을 역임한 한긍우 등이 조상을 빛낸 얼굴들이다. 한걸택 종손의 부친 한중현(韓中鉉, 1906~1950)은 당대 문장가이자 한학자로 초대 군자면장을 지냈다.

냉정초등학교 학생애향단

우리 고장의 역사와 문화를 배웁니다

냉정초등학교 애향단 학생들의 체육대회

시흥시 정왕동은 공단 밀집지역이면서 신도시 아파트형 거주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맞벌이 가정이 많고 인구의 유동이 빈번하여 마을 공동체로서의 의식이 매우 희박한 편이다.

매스컴의 보편화로 인해 문화의 파급이 급속화된 이후로 젊은 세대들의 가치관 혼란도 급속한 기류를 타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외래의 것이라면 무조건 수용하는 분위기가 확산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실정을 감안할 때 고장에 대한 공동체의식이나 애향심은 기대하기조차 어렵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시흥시 정왕동 1872-3에 위치한 냉정초등학교(교장 양연남)는 1996년 3월 1일에 개교한 신설학교지만 학생들에게 지식이나 기술의 전달에만 치우치지 않고 학생 스스로의 자질을 키우는 교육을 펼침으로써 새로운 명문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냉정초등학교는 대규모 공단과 아파트로 구성된 지역적 특성 때문에 자칫 삭막하고 이웃과의 유대감이 단절될 우려가 있으나 학생들에게 고장의 역사와 문화를 어릴 때부터 교육함으로써 건강하고 희망찬 미래의 주인공으로 키운다는 방침을 실천하고 있다.

이 학교에서는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내 고장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공동체의식을 심어주어 애향심과 나아가서는 고장에 대한 자긍심과 주인 의식을 내면화할 수 있도록 애향단 활동을 극대화하고 있다. 특히, 냉정초등학교는 1999년에 경기도 교육청에서 학생애향단 시범학교로 지정하여 앞으로의 활동이 더 주목되고 있다.

학생애향단 활동은 운영상의 특징적인 방향을

교육중인 양연남 교장

최근 교사들이 직접 원고를 작성하여 만든 재량시간 교재

대략 세 가지로 세워두고 있다. 첫째는 아파트단지별로 마을애향단을 조직하여 특색 있는 마을활동의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고, 둘째는 고장문화의 전수활동을 통해 애향심을 발현시키며, 셋째는 애향의 기본정신과 실천덕목의 생활화로 지행일치의 생활습관을 형성시킨다는 것이다.

"고장을 사랑하는 마음은 우선 자신이 속한 주변을 바르게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우리 고장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접하면서 자연스럽게 주변에 눈을 돌리게 하고,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활동에도 참여케 함으로써 마음으로부터 우러나는 애향심을 갖게 하는 것이 본교 애향단활동의 취지입니다."

1999년 9월 1일에 양연남 교장이 부임하면서 냉정초등학교는 애향단활동에 더욱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학생들과 교사들이 함께 냉정애향단신문 『둥지』 창간호를 만들었는데 학생들이 아파트단지별로 문제점이나 여러 가지 소식들을 직접 취재하여 게재함으로써 내 고장에 대한 관심은 물론이고 교육적 성과도 높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최근에는 냉정초등학교 교사들이 겨울방학 동안에 학생 애향단활동을 위한 재량시간 교재인 『우리 고장 시흥』을 자체적으로 만들어 새학기부터 교재로 활용할 계획이다.

교재 제작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냉정초등학교 연구부장 허옥희 교사는 총7편으로 구성된 이 교재는 교사들이 관련자료를 모으고 취재와 원고작성까지 직접 관여해 교육적 효과가 높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한다.

교훈이 '밝은 마음, 바른 생활' 인 냉정초등학교는 경기도를 대표하는 애향단 시범학교로서 65명의 교직원이 50학급 2,200명에 달하는 꿈나무들을 밝고 바르게 키우기 위해 최대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추억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고향, 금천옥

맛있는 음식점을 고르는 방법

맛은 형편없고 음식값은 비싼 음식점에서 나올 때는 기분이 언짢을 때가 있다.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생활 형편이 좋아지고 음식 맛이 까다로워져 이제 가격보다는 음식 맛에 비중을 두어 맛이 좋은 집이 있다면 어디든 멀다 않고 찾아가는 추세다.

금천옥의 설렁탕

따라서 맛있는 음식점을 찾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시도되고 있다. 우선 사람들은 손님이 많이 찾아가는 집을 선택한다. 손님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음식 맛이 좋다는 반증이라는 것이다. 결국 유명세나 입 소문을 한 번 타게 되면 그 음식점은 장사가 잘 되는 셈이다.

어떤 사람들은 동일한 음식점이 많이 몰려있는 곳을 찾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은 오래된 음식점을 찾기도 하며, 또 어떤 사람들은 음식점 건물이 크거나 깨끗한 곳을 찾기도 한다. 그리고 간혹 음식을 만드는 주방장이나 주인이 젊거나 지나치게 미모일 경우는 회피하는 식으로 음식점을 고르기도 한다. 선택의 기준이야 다양하겠지만 어쨌거나 아무런 생각도 없이 음식점에 들어가 실망을 하는 것보다는 나름대로의 기준을 세워 음식점을 찾는 것도 크게 나무랄 일은 아니다.

그런데 음식점을 고를 때 다양한 음식을 내놓는 집보다는 한두 가지만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집을 선택하는 것이 성공률이 높다. 모든 일을 무난하게 처리하는 사람보다 한 가지 일에 최고 전문가로 통하는 사람이 돋보이는 것도 같은 이치다.

시흥시 신천동 후미진 길목에 자리하고 있는 금천옥은 40년이 넘는 연륜에 설렁탕과 수육만 판매하는 전통음식점이다. 전통과 전문성만 따져보더라도 이곳을 찾아 음식 맛을 보는 것도 즐거운 일이다.

시흥사람들 추억의 장소, 금천옥

나이가 지긋한 시흥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대야동과 신천동 일대에 위치했던 '뱀내시장', 혹은 '뱀내우시장'을 기억한다. 1일과 6일에 개장되었

시흥의 뱀내우시장 전경

금천옥의 산증인 김영자 할머니가 사골을 끓이고 있다. 금천옥의 설렁탕 국물은 24시간 장작불로만 끓인다.

던 뱀내시장에서는 축산물, 농산물, 직물 등이 주로 거래되었는데, 특히 우시장(牛市場)은 수원장, 소사장 등과 함께 경기도 일대에서는 손꼽히는 큰 시장이었다. 아울러 나이가 든 시흥사람들이라면 우시장 인근에 자리하고 있던 '금천옥'을 누구나 쉽게 떠올린다. 좁다란 방이 3개뿐인 데다가 조그만 토방문이 달린 옛날 시골집에 불과했던 금천옥에는 사시사철 음식을 먹으려는 사람들로 발을 디딜 틈도 없었다. 지금은 작고하셨지만 요식업조합장까지 지냈던 김준수 할아버지와 현재도 금천옥의 음식 맛과 운영을 맡고 있는 김영자(76) 할머니가 뱀내우시장 앞에서 음식점을 연 것은 1950년대 후반의 일이었다. 김준수 할아버지의 고향이 황해도 옹진군 금천이었던 까닭에 붙여진 이름이 금천옥이었다.

두 내외는 고향에서는 사진관과 치과병원을 운영하고 있을 정도로 유복한 집안의 아들과 며느리였다. 6 · 25 전쟁이 터지고 가족 중에 한 명이 치안대에서 근무한 경력 때문에 부모와 당시 7세였던 아들을 남겨두고 월남을 할 수밖에 없었다.

전쟁 이후 김준수 할아버지와 김영자 할머니는 개성, 평택, 인천을 전전하다가 시흥에 터를 잡고 사진관을 개업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김영자 할머니는 생업에 보탬이 되고자 주변의 반대를 무릅쓰고 우시장 앞에서 가게를 열었다. 당시에는 막걸리와 빈대떡, 그리고 불고기 정도를 팔았지만 이윽고 설렁탕을 팔기 시작했고 할머니의 음식 솜씨가 워낙 뛰어나 입소문이 퍼져 나갔다.

우시장에 소를 팔러 나온 사람들은 으레 금천옥을 들러 설렁탕과 술을 마시고 가는 것이 정해진 진로처럼 되버려 금천옥에는 사람들로 늘 장사진을 이루었다. 나중에는 경기도지사가 점심을 먹으로 일부러 금천옥을 방문한다는 소문이 퍼질 정도였다. 또한 주변의 권유로 색시집으로 전환하기에 이르는데 이때 상호도 '금천옥'에서 '금천관'으로 바뀌게 되었다. 요즘에도 사람들이 금천옥과 금천관을 혼돈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변함없이 금천옥을 자주 찾는 손님들

특히 금천옥에서 매년 1주일간이나 무당을 불러놓고 벌이는 재수굿은 인근의 화제가 되기도 했다. 김영자 할머니의 말에 따르면 손님들에게 받은 외상값을 1년 동안 따로 모아두었다가 굿판을 벌였고, 찾아온 손님들에게는 무료로 음식을 제공했다고 한다.

장작으로만 끓인 사골국물 맛

현대화가 급속히 이루어지면서 금천옥도 모든 것이 그전 같지는 않다. 우시장도 없어졌고 소래농협 뒤편에서 신천동 버스정류장 옆 후미진 골목으로 12년 전에 이사를 왔다. 옛날처럼 돈을 쇠스랑으로 긁는다는 소문과 명성은 잠잠해졌지만 옛날 그대로의 진국과 음식 맛을 볼 수 있다.

76세라는 고령에도 불구하고 김정자 할머니는 지금도 직접 고기를 고르고 국물 맛도 보며, 군불을 때는 것은 물론이고 설거지까지 거든다. 사골국물은 예나 지금이나 큰 가마솥에 소머리를 넣은 후 크고 작은 장작불로만 24시간을 끓여서 만든다. 한때는 참나무로만 군불을 지폈지만 현재는 사정이 여의치 않고, 손님들에게는 늘 서비스로 누룽지를 선사하기도 했으나 요즘에는 찾는 이들도 없다.

현재 120평 규모의 금천옥에 들어가면 곳곳에서 고린내가 풍긴다. 싫어하는 사람들에게는 사골이 풍기는 역겨운 냄새일 수 있지만 추억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고향의 냄새로 다가오게 마련이다. 금천옥에서는 설렁탕 한 그릇에 보통은 5,000원, 특은 6,000원, 수육은 13,000원을 받는다. 고향의 추억을 반추하는 값으로는 부담스럽지 않은지 나이가 지긋한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찾아온다.

먼훗날

초등부 차상

김경준 · 도창초등학교 1학년

나는 이 세상에서 무엇보다도 게임이 가장 즐겁습니다. 게임 보다 공부를 해야 한다고 야단 하시지만 생각만해도 항상 즐거워집니다.

이 다음에 제가 어른이 되어서 세계에서 하나 뿐인 게임천국을 만들거예요. 그리고 컴퓨터와 대화할 수 있는 나의 친구를 만들고 싶어요.

아직은 제가 어리고 작지만 먼 훗날의 꿈은 아주 큽니다.

그 꿈을 이루려면 부모님 말씀 잘 듣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 착한 어린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 모든 어린이들에게 아름다운 꿈과 희망을 심어 주려면 하지 말라고 하기 전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칭찬해 주세요.

지금 우리 어린이들의 모습보다 더욱 멋진 모습으로 변할거라고 생각합니다.

컴퓨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컴퓨터를 더욱 좋아한답니다. 새로운 2000년을 맞이 하면서 컴퓨터처럼 거짓 없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나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학교로 돌아가 열심히 노력하는 어린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일반부 차상
서민자 · 매화동

그 아줌마라는 이름으로

나는 누구인가? 이 얼마나 원초적이고 철학적인 물음인가? 나(我)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많이도 고민하고 사색에 잠기기도 하고 친구들과 토론하며 생각했던 물음이다. 그러나 얼마만인가? 나자신에 대하여 생각할 수 있는 이러한 시간, 주체할 수 없는 벅참으로 다가온다.

나, 한 사람의 아내이고 두 아이의 엄마라는 이름으로 불려지는 아줌마! 그날이 그날같은 일상의 연속에서 정신없이 살아온 날들, 해도 해도 끝이 없는 집안 일, 출산, 육아….

나뿐 아니라 대부분의 여자의 삶이 이러하기에 나도 그러려니하고 살아온 나날들, 한 번씩 내 속의 꿈틀대는 무엇을 느낄 땐 주부 우울증이라 이름지으며 묵살해 버렸던, 나 자신에 대한 무관심이었다.

새천년을 맞이하는 이즈음에 나자신을 뒤돌아 보고, 나자신에 대한 다짐이 바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거의 나의 일생의 반은 20세기에 나머지 반은 21세기에 사는, 세기를 넘나드는 삶이라 보내는 20세기의 반성은 나의 지나온 삶의 반성이고 다가오는 21세기의 희망은 다가올 나의 삶에 대한 바람이다. 이렇게 거창하게 시작한다 하여도 나는 일상에서 벗어날 수 없는 두 아이의 엄마, 바로 21세기의 희망, 꼭 필요한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도움을 아끼지 않아야 할 아줌마로서의 나 자신의 삶을 찾을 수밖에 없다. 아줌마라는 이름이 이 사회 속에서 평가절하되지 않고 당당하게 설 수 있을 때 나 자신 또한 당당하지 않을까?

우리 사는 세상이 곤경에 빠질 때나 어려울 때 억척스레 이겨나갈 수 있었던 원동력은 남편을 격려하고 아이들을 잘 키워낼 수 있었던 아줌마들의 노력이 아니었나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성은 존중되면서도 우리 속에 알게 모르게 아줌마라고 했을 때는 부시시하고 펑퍼짐하고 집안일(아주 천한 일로 생각하는)이나 하는 전혀 긴장감이 없는 사람으로 보지 않는가?

다가오는 새천년 21세기에는 아줌마가 이 사회에 제 위치를 당당히 찾을 수 있도록 나 자신부터 당차고 똑 부러지는 아줌마로 설 수 있도록 힘을 아끼지 않으리라. 나는 누구인가라는 이 형이상학적인 물음에 결국 아줌마라는 구체적인 이름으로 밖에 답하지 못하는 어쩔 수 없는 아줌마가 된다.

새로운 천년, 이제 새로운 의미의 아줌마로 이 사회 구성원들을 튼튼히 세울 수 있는 당당한 아줌마로 거듭날 것을 다짐해 본다.

나는 누구인가?

일반부 참방
이행지 · 매화동

해가 질 때마다 숨이 막혀온다. 15층 발코니에 서서 하늘에 닿은 바다를 본다. 날고 싶다.

날고 싶던 여학교 시절부터 기다려 왔던 마흔이란 나이가 두 해나 더 지나 마흔 둘이 되고 주름살은 나이보다 3배는 더 많아졌다.

마흔이 되면 '꼭 무엇인가가 되어 있을 나' 를 상상했다. 막연한 기도를 하면서 하루 하루를 먹어 살을 찌워왔다. 피둥피둥 살찐 몸둥이로 날지 못해 앙탈하며 '너 고작 이렇게 사냐?' 그래 나는 자랑할 게 없다. 이룬 것도 없다.

'현모양처' 로의 길에서 조차 밀려 날까 두렵다. 자신의 학문에 깊이를 더해 두려움을 벗고 있는 남편, 이 남편이 늦는 날이면 머리 끝에 피가 몰려 움직이지도 못한다. 악악대며 아이들과 싸우는 소리는 차라리 들을만하다. 좁은 아파트에서 내 생각마저 사각형이 되어 벽속에서 굳어 버린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때로는 내 사주팔자를 내 손가락으로 짚어보며 손가락 끝에 달린 재주를 믿어 그림도 그리고 글씨도 써보고 인형도 만든다. 얇은 한지 한 조각 한 조각을 붙이며 닥종이 인형을 만든다.

내 속에 있는 못생긴 모습도 있고 내 속에 없는 잘생긴 모습도 만든다. 인형들이 늘어나도 늘어나지 않는 것은 나에 대한 만족이다. 내 속의 욕망은 그냥 그대로 남아 나를 비웃는다.

창을 열고 하늘을 본다. 내 삶이 막연하듯 하늘도 막연하다. 구름이 몰려있고 햇살이 빠져 나오지를 못한다.

"엄마, 뭐 하세요?"

"엄마, 뭐 해요?"

내 아이들의 목소리, 나를 깨우는 소리다. 혼자 빠져 허우적대는 늪속에서 나를 건지는 소리다. 나를 존재하게 하는 목소리다. 아이들이 이루어준 나의 존재 '어머니' . 나는 어머니인 것이다.

밝은 아이들의 목소리는 나를 깨우고 가르쳐서 두려움을 이기게 하고 날게 해 줄 것이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나에게 말해 주는 남편의 목소리는 내 영혼까지 기쁘게 한다.

나는 남편과 아이들로 하여 하늘을 날 수 있다.

시흥문화원 2000년 사업일정

■ **연날리기대회(2월중)**
- □ 우리 고유의 세시풍속의 계승과 발전 도모
- □ 시연
- □ 연 높이 날리기
- □ 창작연대회

■ **제4기 · 제5기 문화교실 운영(연중)**
- □ 다양한 문화활동 기회 제공
- □ 문화활동을 통한 정서 함양
- □ 서예 · 향토사 · 비디오 · 닥종이인형 등 9개 강좌 운영

■ **『시흥문화』 제3호 발간(11월)**
- □ 각종 문화행사의 홍보
- □ 내 고장의 역사와 문화 알리기
- □ 4×6배판, 1,000부 발간

■ **전통마당극 공연(9월중)**
- □ 초청공연

■ **문화유적답사(상 · 하반기)**
- □ 문화유적지 현장답사

■ **테마등산대회(상 · 하반기)**
- □ 소래산, 군자봉, 수암봉 등

■ **청소년교실(상 · 하반기)**
- □ 방학을 이용한 테마강좌

■ **우리 생활예절 및 문화수첩발간(연중)**
- □ 10,000부 발행

■ **제2회 갯벌체험(8월중, 2회)**
- □ 산업체 견학 및 갯벌탐사

■ **제12회 연성문화제(10월)**

□ 명필휘호대회

□ 청소년궁도대회

□ 향토음식축제, 시민의 밤 행사 외

■ **제3회 경기도청소년민속예술제(9월중)**

□ 전통문화에 관한 청소년들의 관심 제고

■ **향토사료 수집(연중)**

□ 시흥시 관련 향토사료 연중 수집

■ **마을지 발간(구지정마을, 연중)**

□ 마을의 역사와 문화 관련 자료 수록

■ **문화원 조직표**

직 위	이 름	주 소
원 장	정학진	거모동1586-1
부원장	류병문	계수동 242
이 사	변재웅	안현동 101
	윤태수	은행동 344-1
	이윤영	계수동 493
	김중연	죽율동 9
	최취수	신천동 314-19
	서영수	물왕동 산36-2
	신종순	물왕동 97
	전남훈	광석동 98
감 사	장승진	거모동 1628-1
	한인수	신천동 545-3
이사 · 사무국장	이영득	포동 36-37

시흥시 2000년 사업일정

■활력 있는 지역경제

□ 기업운영 및 성장의 여건 조성
- 공업발전 추진위원회 구성, 공업발전 전략 수립
- 500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 자금지원
- 중소기업 창업보육센터 건립추진(2000~2002)

□ 실업자 취업알선

□ 농촌환경 개선과 영농 생산기반 확충
- 용배수로 정비, 농로 및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에 20억 원 지원

□ 외국자본 유치활동 추진

■균형 있는 지역개발

□ 21세기 발전구상에 대비한 도시계획 수립

□ 효율적 도로망 구축
- 간선도로
  계수대로 건설(2000~2003)
  소래대교 완공(연중)
  신천~오류간 도로개설(2000~2001)
  거모~신길간 도시계획도로 시설결정과 개설(2000~2001)
  계수~과림간 도로개설(2000~2001)
- 지역내 도로
  월곶~조남간 도로개설(2000~2002)
  조남동 새미마을 진입로 개설공사(연중)
  능곡~화정간 도로개설공사(2000~2001)
  연성동사무소 진입로 개설공사(연중)
  목감동 중심로 확포장공사(연중)
  정왕동 도시계획도로 개설(2000~2001)

□ 교통체계의 일대 전환점 마련

□ 택지개발 추진
- 은행지구 택지개발사업 제2공구 1만 7천평(11월 준공)
- 연성 · 연성2지구 택지개발사업 28만 6천평(12월 준공)
- 서해안 공유수면 15만 평 매립사업(1999~2002) 등

■환경친화적인 도시환경 조성

□ 「아름다운 시흥21」환경계획 수립

□ 시화지구 대기환경 개선
- 환경개선기금 150억 원 조성

· 공해배출업소 24시간 감시체제 구축

□ 쓰레기 대책 추진

· 환경미화타운 건설(연중)

· 퇴비화시설 설치(7월 준공)

· 알뜰 재활용센터 건립(4월 운영)

□ 시민 휴식공간 확보

· 소래산, 옥구도자연공원 야생화 식재 등

□ 맑은 물 공급과 안정된 용수 확보

· 연말까지 상수도 보급률 95%까지 확대

□ 하수처리체계 지향

· 신천동 · 대야동 지역 찻집관거 시설사업(9월 준공예정)

· 시화호 간사지에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 추진(2000~2003)

■사회안전망 구축에 중점을 둔 복지

□ 저소득 주민 생활향상

· 저소득 주민 자립지원

· 기초생활보장법 시행에 따른 생활보호 지원

□ 장애인들의 재활자립 지원

· 장애인 직업 재활작업장 건립(정왕동, 3월 운영)

·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포동)

□ 노인을 위한 복지환경 개선

· 경로당 3개소(신천, 목감, 죽율동) 신축, 보수 7개소 등

□ 여성회관 건립(~2003)

□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운영

■시흥문화 조성과 교육환경 개선

□ 정왕중앙공원 내 도서관 건립(1999~2001)

□ 전통문화 보존

· 방산동 백자가마터 전시관 건립 추진

· 소래산 마애보살입상 복원

□ 특색있는 「시흥문화」 조성

· 전국단위의 「시흥문학상」 제정(시, 수필)

·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행사 및 단체육성 지원

□ 인재육성과 교육환경 개선

· 애향장학사업 확대 · 학교 급식시설비 지원

□ 체육진흥을 위한 지속적인 투자

□ 청소년문화와 면학분위기 조성

· 청소년공부방 확대운영

· 청소년 어울마당과 한마당 축제 연간 6회 이상 개최

■재해예방과 시민생활 안전체계 구축

□ 하천 개선사업

· 방산동, 포동지역 배수펌프장, 배수갑문 설치(1999~2001)

·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 등

□ 교통안전 확보

· 신호기 설치 및 보수관리 105개소

· 교통안전 표지판 및 시설물 설치 · 보수 200개소 등

□ 재해 · 재난에 대한 안전관리

· 안전관리 정보시스템 D/B를 구축 안전관리시스템 개선

■건강한 사회와 경쟁력 있는 행정조직 지향

□ 시민이 주도하는 「제2의 건국」 운동 추진

□ 인터넷 홈페이지의 지역 사이버 관문화 추진

□ 지역과 지방행정의 경쟁력 강화

· 구조조정 지속 추진

· 도시관리공사 설립 검토

· 동사무소 기능전환 주민자치센터 건립(12월 완료)

□ 공공청사 확보

· 정왕2동 청사(2000~2001.3)

· 농업기술센터(2000~2002)

□ 지역정보화 기반구축

· 지리정보종합시스템(12월 완료)

· 행정정보종합시스템(2000~2001)

시흥시의회 2000년 사업일정

■제3대 의회개원 2주년 기념행사(7월)

□장소 : 의원회의실

□초청대상 : 초대의원, 제2대 의원, 시장, 유관기관, 사회단체장, 시민 등

□내용 : 의정운영 홍보(의회소식지 제작 배포)

유관기관 · 사회단체장과 간담회

■9개 시군 의장단 협의회 개최(일정 추후 결정)

□장소 : 의원회의실 등

□참석 : 시흥 · 과천 · 광명 · 군포 · 의왕 · 부천 · 안산 · 안양 · 김포시 의장단(18명)

□내용 : 의정활동 정보교환 및 상호협력체제 구축

■의원 세미나(연 2회)

□개최방법 : 1회(5~6월)-인근시와 연계추진 검토(9개 시 의장단협의회와 협조)

※1999년도 7개 시의회의장단 협의회에서 주관, 2회(10~11월)-자체 계획에 의거 실시

■선진국 의정활동사례 비교연수(의원임기중 1회)

□참여인원 : 10명(의원 8명, 공무원 2명)

□대상국가 : 별도 선정(미주, 유럽, 호주 등)

□연수내용 : 선진국 자치단체 방문, 환경시설 및 복지시설 견학 등

□기타 : 연수보고서 작성

■의회 민원봉사실 운영(연중)

□장소 : 의장실 및 의회 사무과장실

□내용 : 지역 현안사항 청취 및 건의사항 수렴, 격의없는 대화로 내실있는 의정활동 구현

■열린 의정활동(연중)

□내용 : 회의록 전산화 작업 마무리(1/4분기 내)

의회 홈페이지 개설, 방청권 제작 활용(패용식으로 갱신제작)

■청소년 의회교실 개설운영(8~9월)

□장소 : 본회의장 또는 의원회의실

□대상 : 관내 초 · 중학교 학생

□방법 : 희망학교별 1개 학급 초청 견학 및 실습

회장, 반장 선거시 본회의장 활용으로 참민주주의 교육 제고

회기와 중복되지 않도록 일정 조정(학교측과 협의)

원/고/를/보/내/주/세/요

시흥의 문화발전과 시흥시민의 문화활동을 선도하는 저희 시흥문화원은 시민이 함께 하는 문화소식지를 만들고자 원고를 찾고 있습니다. 시흥에서 개최된 문화활동, 계획하고 있는 문화운동, 시흥의 문화발전을 위한 제언이나 글들을 환영합니다. 아울러 개인이 창작한 글이나 시흥시의 문화와 관련된 글들도 환영합니다. 적극적인 투고를 기대합니다.

모집부문

· 창작 : 시, 수필, 꽁트
· 제언 : 문화발언대, 문화칼럼
· 사료 : 시흥시 관련 사료나 사진, 논문 등

대우

채택된 글이나 사료, 사진, 논문 등에 대해서는 소정의 상품권을 드립니다. 아울러 시흥문화원 문화교실 문화강좌에 우선적으로 초대됩니다.

기타

· 원고의 반환은 책임지지 않으나 사진, 사료 등은 우편으로 돌려드립니다.
· 원고접수는 수시
· 보낼 곳 : 경기도 시흥시 대야동 484-5
시흥문화원 『시흥문화』 편집부 앞
전화 (032)695-6465, 690-2706